



4

1995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5. 4호

(루계 570)



◆◆◆◆◆◆◆◆◆◆ 차 례 ◆◆◆◆◆◆◆◆◆◆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거룩하신 모습을 불멸의 화폭속에 아로새기자.....	4
4 월의 봄이 오니	7
수령님과 봄.....	8
바라시는 마음	9
추 억	18
명 언	19
수령님은 함께 계신다.....	19
영원히 빛나시라	20
백송리의 메아리	21
민족의 어버이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에 대한 깊이있는 형상	23
노래를 부른다	26
크나큰 믿음속에 빛나는 삶.....	27
산수 좋은곳에 잠시라도 (외 1 편).....	32
혁명의 총대로 결사옹위하리라	33
기쁨중의 기쁨	34
조 선	36
나의 심장, 나의 총대 (외 1 편).....	37
네가 부럽구나 병사여	38

정일봉에 별들이 새겨진 이야기	39
장군님 명령을 받아안을 때	42
영원의 5년	43
명제해설	52
세월은 흘러가도	53
고결한 충정	55
멀리 더 멀리	64
지휘관	65
얼싸안았네	71
묘향산에서 날아온 새	72
혁명의 성지에서	74
백날과 하루	77
광천역을 떠나며	78
마음의 열도여	78
배덕골치너	79
딸기꽃(외 1 편)	80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거룩하신 모습을 불멸의 화폭속에 아로새기자

오늘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은 날이 가고 달이 거듭될수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두터이하고있다.

해마다 찾아온 뜻깊은 4월 15일을 가장 큰 기쁨과 행복 속에 맞고보내던 우리는 올해 위대한 태양을 잃은 가장 큰 상실의 아픔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한가슴 가득안고 4월의 봄을 맞는다.

우리 작가들은 주체문학의 시조이시며 대스승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잃고 첫 4월의 봄날을 맞으며 깊은 감회와 결의에 가슴뜨거워움을 억제하지 못하고있다. 자기 수령을 운명의 수호자로, 위대한 어버이로 굳게 믿고 따르며 수령과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혼연일체를 이루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 주체문학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이 오늘 뜻깊은 4월 15일을 맞는 우리 작가들의 확고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영원히 높이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작가들의 절대적인 숭배심과 다함없는 신뢰의 정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수령님의 영생을 드높이 구가하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히, 더 많이 창작하여 후세에 길이 전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 복무하는 사상적무기인것만큼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석화하기 위한 사업을 총적목표로 들고나가야 한다. 문학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인 기본이며 우리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수령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풍모와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 위대한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최고전형이다.

수령의 빛나는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은 혁명가의 가장 숭고한 세계를 알게 되고 그 위대한 풍모를 크나큰 감동속에 따라배우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에 의하여 오늘 우리 문학은 수령형상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여기에 창작력량을 집중함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의 세계적본보기를 마련하였다.

오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더 활발히 창조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날이 갈수록 수령님을 그리워하며 뵈고싶어하는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이며 최대의 희망으로 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가장 숭고한 시대적사명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을 새로운 력사의 시점에서 창조하는데 온갖 심혈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신념의 구호, 충성의 구호를 문학작품창작에 구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과 순결한 충성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령님은 한평생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오신 우리 인민의 삶의 위대한 태양이시고 운명의 수호자이시였으며 보람찬 삶과 행복을 꽃피워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는것을 감동깊게 보여주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할것없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손길아래서 참다운 삶과 행복을 누리며 자라난 사람들이다. 우리 인민모두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고 참된 혁명전사로 키워주신 위대한 스승도 경애하는 수령님이시며 우리 인민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따듯이 보살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도 우리 수령님이시며 우리 민족이 자자손손 행복한 생활을 누리갈수 있도록 만년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은인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우리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에서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수령님의 **《이민위전》**의 숭고한 리념이 모든 작품들에 관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변함없이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받들어모심으로써 세계앞에서 수령에 대한 충효일심을 지켜가는 가장 혁명적인민으로, 숭고한 공산주의도덕관을 지닌 위대한 인민으로 자랑떨칠수 있게 더욱 고무하여주어야 한다.

현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창조에서 **《이민위전》**의 숭고한 리념을 어떤 생활분야, 어떤 주제분야를 취급하든지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수령형상문학의 사상에술적수준을 더욱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해에 나온 총서 **《불멸의 력사》** 중의 장편소설 **《승리》**가 감동을 주는것도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했던 시련의 시기를 반영하면서 강철의 령장 **김일성** 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주체적인 인민관에 기초하시어 조국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 일떠선 우리 인민과 군대의 힘을 믿으시고 전쟁의 최후승리로 인민군대와 우리 인민을 령도하여오신 그 위대한 풍모를 깊이있게 보여주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창조에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가장 위대한 인간의 성격, 가장 위대한 인간의 생활을 보여주는것이다. 문학은 성격형상을 통하여 자기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발휘하며 문학에서 성격은 생활을 통하여 형상될 때 산 형상으로 감동적으로 안겨온다. 수령형상문학에서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작품의 사상에술적수준을 최상의 높이로 올려세우기 위한 근본 문제이다.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혁명가중에 가장 탁월한 혁명가이시였고 수령님의 생애야말로 력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인간의 고귀한 생애였다. 우리 수령님과 같이 심장이 고통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며 그처럼 영생불멸할 유혼을 남기시고 생애를 마친 위대한 혁명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있다. 만경대에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때로부터 80여성상 오로지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시다가 순직하신 위대한 수령은 동서고금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밖에 없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애, 인민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풍만하고 다양한 생활속에서 감동깊게 형상하여야 한다. 아직도 일부 수령형상작품들에서 위대한 인간의 성격이 부각될수

있는 위대한 생활이 깊이있게 탐구되지 못하고 력사적사실을 전달하는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거나 력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인간의 숭고한 모습을 감명깊게 보지 못하는것은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성격과 생활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데 기인하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원시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산 첫세대의 작가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실지 심장으로 느끼고 산 현실로 체험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우리 대에 최상의 수준에서 격이 높게 형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고 빛내이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을 모시고 살며 혁명하여왔음을 언제나 잊지 말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색과 로고, 심혈이 뜨겁게 어려있는 유혼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함에 있어서 창작실천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감동적으로 그리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사회주의정치지도자의 기본풍모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규정해주시였다. 사회주의정치지도자가 능력이 없으면 혁명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인민에 대한 덕망이 없으면 사회주의자체를 말아먹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령도자의 풍모에 관한 문제에만 귀착되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되는 보다 심중한 문제이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사회주의의 수령의 기본풍모에 대한 고전적가르치심을 명심하고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이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수령의 위대한 사상도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며 수령의 위대한 령도풍모도 인민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기초지어지는것이다.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예술적으로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욱 높이 구가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우리 혁명과 현실의 요구에 맞게 수령형상문학을 잘 창작하려면 우리의 위대한 스승

이시고 혁명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따라배워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 충직하고 위대한 인민으로 되고있는것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시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전략가이실뿐아니라 수령에 대한 충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시고 수령의 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가고계신다.

수령의 위업계승문제를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아버지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유훈에 충직하도록 이끌어주고계시며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위대성, 수령님의 영생을 불멸의 화폭에 새기도록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는 신념의 구호, 충성의 구호를 제시하시여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효의 한마음을 더욱 깊이 간직하도록 해주신분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며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과 정력적인 혁명활동모습을 거듭거듭 마음속깊이 새기려는 우리 인민들의 소망을 풀어주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조직하여 주신분도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있기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과 경모의 정은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고있으며 우리 작가들의 창작적열정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는것이다.

모든 작가들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몸소 보여주신 위대한 풍모를 적극 따라배우고 그대로 구현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생을 구가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특히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최

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숭고한 공산주의도덕관을 그대로 따라배워야 한다.

공산주의도덕관은 수령의 혁명전사들이 지녀야 할 가장 숭고한 료리이며 혁명적량심이다. 공산주의도덕관에서 근본핵으로 되는것은 혁명의 수령을 친아버지로 숭배하고 따르며 수령의 은덕에 보답해나가는 혁명적의리이다. 혁명가는 공산주의도덕관을 지녀야 누가 보건말건 언제 어디서나 수령을 티없이 깨끗한 량심으로 받들어나갈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공산주의도덕관을 지니는 여기에 수령의 혁명전사로서의 고결한 삶이 있고 값높은 영예가 있다.

모든 작가들은 공산주의적 의리와 도덕관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적풍모를 적극 따라배워 혁명적량심을 가지고 수령형상작품을 최상의 높이에서 창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경애하는 수령님을 언제 어디서나 높이 모시고 따르며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일하는것이 어길수 없는 생활료리, 행동준칙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문학형상을 통하여 가르쳐주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주체문학의 시조로, 대스승으로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문화위업을 끝까지 완성할것을 맹세하고 당과 수령과 함께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온 동행자, 혁명문학의 기수들이다. 우리 작가들의 혁명투쟁과 승리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비록 우리결을 떠나가시였으나 수령님앞에 다진 문예전사들의 맹세는 더욱더 불타오르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문예사상이 우리들을 더 큰 창작적양양으로 떠밀어주고있다.

우리 작가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시고 문학예술의 위대한 영재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시고 수령형상문학의 세계적본보기를 개척해나가고 있는 우리 문학은 계속 승승장구할것이다.

4월의 봄이 오니

김창식

4월의 봄이 오니

그리움은 더더욱 이 가슴에 부풀고
가보처럼 전하는 사진앞에서
수령님을 뵈옵는 이 마음

백송리, 산속의 대학을 찾으신 수령님
소박한 연락앞에서 연설하시는 사진
그이의 선견지명으로 빛나는
혁명전설을 속삭여주는 사진

우러르면 그날의 밤나무술
머리우에서 조용히 설레이고
시내물은 발밑을 감돌아 흐르는듯
그날의 젊으신 음성, 환하신 미소앞에
이 마음 세워주는 뜻깊은 사진이여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그 결사의 고지들에서
대학생출신의 군인들을
하나하나 불러주신 수령님
그 준엄한 세월
승리한 래일을 펼쳐주신 그 업적을
사진은 뜨겁게 속삭이여라

적기의 편대가 하늘을 썰고
폭음에 문풍지 애처롭게 울어도
등잔불이 글줄을 밝히는 작은 집이
우리의 숙소이고 교실이었던만

키낮은 이 집의 문을 열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찾아오실줄을
화선천리를 명술하시는 그 차림으로
우리를 찾아오실줄을 어찌 알았으랴
폭격에 파헤쳐진 언덕길도 오르시고
실개울 작은 나무다리도 건너시여
생신날을 며칠 앞둔 4월의 봄날
우리들을 찾아주신 아버지수령님

격전장에서 단련된 동무들이 보고싶었다고
전선에서는 어떻게 싸웠으며
지금 공부하는 어떻게 하는가고
마디마디 정을 담아 하시던 그날의 그 음성
오늘도 귀전에 쟁쟁하여라

위훈의 무훈담도 기꺼이 들으시고

영예군인대학생의 상처도癒여주시며
총을 펜으로 바꾸어진 오늘은
학습도 전투라고 고무해주신 수령님

밤나무아래 소박한 연락을 마주하시고
승리한 조국의 휘황한 미래
그 미래 펼쳐나아갈
민족간부양성의 대강을 펼치시던 그날

우리는 벌써 내다보았어라
폐허를 털며 일떠서는
내 조국의 장한 기상
부강번영을 노래하는 내 조국의 위용을

불비 쏟아지던 엄혹한 세월이었던만
지혜와 열정, 땀을 바쳐가는 지식인대부대는
창조의 거센 숨을 몰아쉬며 래일을 설계하며
승리한 조선의 모습을 펼치었나니

조국의 운명개척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변이었던가
조국번영의 초석을 다지는데서
얼마나 가슴 벅찬 나날이었던가

4월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흐르고흘러
백송리의 밤나무들 거목으로 무성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나가는
충효일심의 대오속에
오늘도 그날의 숨결은 뿜어나니

잊지 못할 력사의 사연 속삭여주며
그날의 뜻깊은 사진은
오늘도 머리 희여진 나를 이끌어
수령님의 전사, 제자로서 성장하던
젊은 날의 그 열정을 불러주고

정녕 4월의 이 봄날
잊지 못할 그날에로 달려가는 마음이어
인류사가 알지 못하는
선견지명의 위대한 전설을 속삭이는 그 나날이
이 심장속에 영원한
위대한 업적을 다시금 새겨주누나
그날의 수령님을 뵈게 하누나

수령님과 봄

유영하

만경대프락에
4월의 봄이 화창하니
내 가슴에
더더욱 사무치는 그리움

뵙고싶어
한달음에 달려오니
아버이수령님 방금 뒤편에 오르신듯
만발한 꽃속에
사립문마저 열려있어라

꽃향기 진동하는 그 어디선가
금시 그 음성 들려올듯해
경건히 옷깃 여미며 우러르니
이 마음속에 우렁이 차오르는
아버이수령님의 환하신 그 미소

하늘땅 가득
가슴 가득 넘치는 그 미소
맹세의 피를 끓여
들끓는 협동벌에
랭상모 푸른 잎새 키우고

사랑의 그 미소
다녀가신 구내에 넘쳐
필필이 쏟아지는 비단필에
송이송이 꽃을 피워라

아 기나긴 한평생
인민의 세상 행복의 봄천지를 가꾸시며
언제나 인민앞에 지으시던 그 미소
4월의 봄이 오니
더더욱 그리운 그 미소

창창한 미래가 비긴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봐도
집집의 창가에 날리는
공화국기발의 퍼덕임을 들어도
그리움을 더해주는 4월의 봄

화창도 해라
모진 광풍속에
우리 수령님 꽃피워주신
인민의 봄, 사회주의 봄이여

눈비속에 가꾸시고
세파속에 지키신 봄이여서
우리 수령님
오늘도 환히 웃으시여라

4월의 봄에 이어
내 나라 내 조국이
날마다 봄날같이 꽃피고 흥하니
영원한 봄빛으로 넘쳐흐르는
아버이의 그 미소

꽃피는 인민의 봄천지
참된 삶의 터전을 안겨주신 수령님
온 누리에 자주의 봄 펼쳐갈
크나큰 확신의 그 축복이
이 땅우에 해빛으로 빛나라

아 봄
꽃피는 봄날에 탄생하시여
행복의 봄을 펼쳐주신 수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지지 않는 봄꽃이 만발한 내 나라에
웃으시며 웃으시며 계시여라

바라시는 마음

로정법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거리의 풍경에 눈을 주고계시었다.

래일은 설이어서 수도의 거리는 어디를 둘러보나 설분위기였다.

극장과 영화관, 상점과 국수집의 현관우에는 손님을 부르는 산뜻한 그림판과 장식등이 걸려있었다.

설상품을 싣고가는 자동차에서도, 푸른 파와 홍당무가 들어있는 부인들의 구렁에서도, 우편통에 신년장을 넣고있는 처녀의 기쁨어린 얼굴에서도 설냄새가 풍겼다.

한 녀인이 거리쪽을 향한 아파트 4층로대에 공화국기를 드리우고있었다.

명절음식준비를 하겠는지 새하얀 앞치마를 두른 젊은 녀성인데 그는 로대를 따라나온 소년에게 새해가 오는쪽을 가리켜보이듯 눈이 오는 하늘가 어딘가를 손짓하며 밝게 웃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벌써부터 공화국기를 서둘러 내다걸며 아이와 함께 밝게 웃는 그 녀인의 얼굴에서 이해에 우리 인민이 느끼고있는 긍지와 다가오는 래일에 대한 신심을 읽으시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의가 있는 이후 풍전을 쪼개여 착공의 첫삽을 뜨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건설을 다그쳐온 공장들과 기업소, 직장들이 이미 조업을 했거나 조업을 시작하고있었다.

동해안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지역에서 봄철날씨가 나빠 농작물의 초기생육에 일정한 지장을 주었지만 우리 당의 주체농법을 받들어나선 농업근로자들의 근면하고 성실한 로력에 의해 농사도 풍년이었다.

년말에 잡히면서 신문들과 방송, 텔레비존에서는 올해에 이룩한 성과에 대한 각계층 인민들의 반향을 많이 내보내고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 당 정책이 옳았고 당의 령도가 현명했기때문이라고 말하고있었다.

목소리는 소박하고 크지 않으나 진실인것으로 하여 울림이 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어제저녁에 보신 텔레비존의 한 장면을 생각하시었다.

올해 체육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개괄하는 록화물이었는데 거기에는 우리 나라의 권투선수가 세계적인 강자라고 하는 미국선수를 일격에 쓰러뜨리는 경기의 한 장면도 수록되어있었다. 그것이 바로 올해 우리 인민이 떨친 슬기로운 기상이었다고 수령님께서서는 생각하시었다.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피뢰도당은 올해에도 우리 공화국을 고립말살하기 위하여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악랄하게 날뛰었지만 이긴 것은 우리였다.

현명하고 억센 당! 좋은 인민!-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래일 하시게 될 신년사 앞부분의 기본 사상이기도 하였다.

악기와 가장물을 든 학생들의 한패가 소년궁전쪽으로 노래하며 가고있었다.

오늘저녁에 있을 설맞이모임준비로 가는 학생들이 분명하였다.

아이들의 소원대로 해마다 설맞이모임에는 꼭꼭 참석해주시는 수령님이시었다.

아이들속에 계시게 되는 그 시간은 아버지수령님께 있어서 년중 가장 즐거우신 시간이였다.

명랑하고 깨끗하고 재롱스러운 아이들의 공연을 보시고나면 이 나라의 밝은 미래가 선히 어려오시여 일년내내 곁쌍였던 피로가 가셔지고 바로 저애들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일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는것이였다.

설맞이 생각을 하시니 자연히 전우이며 충신인 박덕산이가 그리워지시였다.

박덕산 역시 아이들의 설맞이모임에는 한번도 빠지지 않던 사람이였다.

체통이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지만 아이들이 자기의 목에 붉은넥타이를 매여주면 그때부터는 기분이 봉-떠서 노상 병글거렸다.

그러던 사람이 지금 앓고있었다.

누구보다도 이 설을 즐겁게 쇠야 할 그가 이 시각도 병원의 침대우에 누워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벌써부터 비여있는 옆자리가 눈에 밝혀와 가슴이 빠근해오시였다.

재빛으로 컴컴해진 하늘에서는 섬없이 솟같은 함박눈이 흩날리며 내려왔다.

《수령님, 올해는 왜 아직 눈이 오지 않는지 모란봉의 설풍치에 빈구석을 남기는가봅니다.》 하고 덕산이가 명상에 누워서도 걱정하더니 하늘도 그를 위로하는 모양이였다.

시내를 벗어난 차는 어느덧 남포로 향한 교외길을 달리고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지금 룡강으로 가시는 길이였다.

룡강땅의 농민들과는 전쟁시기부터 인연이 깊은 신 수령님이시였다. 그곳에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친

근하게 불러주시는 《구면친구》들이 많았다.

전시에는 전식식량증산에 앞장섰고 전후에는 농업협동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그리고 오늘은 대지에 뿌리를 내린 거목처럼 우리 당의 주체농법을 드팀없이 받들고있는 농업전선의 오랜 로병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수리화, 전기화, 화학화가 실현되고 바야흐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의 높은 단계로 올라서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을 기쁨진 룡마로 부르길 즐겨하시였다.

바로 그 룡마의 기수들을 만나 새해 농사문제를 의논하시려는것이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하는것처럼 농사역시 새해의 주공전선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새해 농업발전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안고계시였다.

그것은 래일 하시게 될 신년사에 구체적으로 명시될것이지만 먼저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싶으시였다.

일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근면하고 수더분한 우리 농민들과 마주앉으면 덕산이로 하여 아프신 마음을 잠시 잊으시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였다.

…병원에서 박덕산의 병이 불치의 병이라고 알려왔을 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선뜻 믿으려 하지 않으시였다.

그래 여느 병도 아니고 그런 병의 진단은 그렇게 단번에 략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무라시고는 다시 잘 진찰해보라고 이르시였다.

《다시 하되 그런 결론부터 지어놓고 그것을 증명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그런 병이 아니라는 결론을 지어놓고 해보시오. 사람도 나쁜 딱지부터 먼저 붙여놓고 보기 시작하면 좋게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박덕산을 살리라고 했으면 기어코 살리겠다는 관점에 서야지 애초에 벌써 난치다 뭐다 하기 시작하면 살릴수 있는 사람도 살릴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인민이 박덕산동무의 생사를 지켜본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말씀은 그렇게 하시였지만 다시 소식을 기다리시는 그이의 마음은 불안하시였다.

십여명으로 된 의료진이 박덕산이 한사람한테 붙었는데 설마 오진이야 했으랴.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의사들의 말을 믿으시였다. 의학은 과학이고 과학적으로 내려진 진단은 거부할수 없는것이였다. 과학의 법칙앞에서 인간의 욕망은 무력할 때가 있는것이니 인류가 달성한 과학적결론을 거역할 힘은 누구한테도 없었다.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덕산이한테 내려진 무서운 진단만은 오진이기를 바라시였다. 선행한 과학적결론에도 우연한 실수가 있어서 그 천번중의 하나의 우연이 박덕산의 명명에 맞아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였다.

2차검진에 대한 소식은 이튿날 아침에야 올라왔는데 전화기를 들고서도 그냥 갑자르기만 하던 병원 원장은 《수령님, 면목이 없습니다.》 하고는 다 음말을 잊지 못하였다.

묻지 않아도 뻔한 일이였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인차 알려주어야지…》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조용한 어조로 원장을 나무라시고는 너무나도 서운하시여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였다.

박덕산이 넘어지다니,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박덕산을 처음 만나신것은 장백현 홍두산밀영에서였다.

그때 덕산은 멸망직전에 있던 반일부대를 이끌고 장군님께서 계시는 밀영으로 찾아왔었다.

굶어서 얼굴이 퉁퉁 붓고 온몸에 동상을 입어가지고서도 장군님을 만났으니 이제 살았다고 웃기를 붙잡고 어린애처럼 울던 그때의 덕산이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시였다.

덕산은 항일대전의 그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오면서도 장군님께만은 쌀밥을 대접해야 한다면 늘 쌀배낭을 등에 지고 다녔고 그 쌀이 떨어질세라 위험한 적구로 내려가던 사람이였다.

《덕산동무, 난 풀죽을 먹어도 동무가 내옆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오. 그것이 동무가 나에게 주겠다는 쌀밥보다 낫소. 내려가지 마오. 부탁이요.》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그런 동지적 사랑과 의리로 오늘까지 혁명의 한길을 걸어온 박덕산이였다.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치르면서도 견재하던 그가 이렇게 좋은 세월에 와서 덜컥 쓰러지다니…

《그래 지금은 뭘하고있습니까, 원장선생? 모두 손맥을 풀고 나았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피로운 생각을 달랠길 없으시여 다시 원장을 찾으시였다.

《수령님, 지금 의사협의회를 하고있습니다. 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지금상태로 수술을 하면 환자의 생명을 일년반정도는 연장할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원장은 그 일년반이라는 말이 위대한 수령님께 다소나마 위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정도는 담보할수 있습니다.》 하고 짝어서 말씀올렸다.

《일년반이란 말이지. 원장선생, 그건 박덕산이를 당장 죽이겠다는 소리보다 더 듣기가 싫구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쏘파의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도닥도닥 두드리시며 눈을 반쯤 감으시였다.

이윽하여 수령님께서서는

《언제 수술하자고 합니까?》 하고 다시 물으시였다.

《수령님께서 허락하시면 당장 하려고 합니다. 수령님,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의사들이 알아서 하는 일인데 내가 허락하고말고 있습니까? 그래 가족들에게는 알렸습니까?》

《수령님께서 결론을 하시면 그때 알려드리자고 하였습니다.》

《빨리 알려주시오. 부인이 와서 수술립회를 서도록... 아니, 내가 알려주겠소.》 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려는데 매우 당황해하는듯한 원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왜 그러니까, 원장선생?》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다소 긴장하신 안색으로 수화기의 진동관을 울리며 들려오는 원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였다.

《수령님, 지금 의사협의회에 참가하고있는 한동무가 환자의 수술을 반대하고있습니다.》

《그가 왜 반대합니까?》

《자기는 그런 병이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아니라고 한대구요? 그가 누굽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캄캄하던 하늘에서 번쩍하는 번개의 섬광을 본듯싶으시여 급히 물으시였다.

《조선인민군제11호중앙병원 군의입니다.》

《그 동무와 전화를 바꾸시오.》

인차 수화기에서 군의군무소와 아무개 위대한 수령님의 전화를 받는다는 군대식의 힘찬 말소리가 울려나왔다.

군의의 그 목소리만 들으시고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가 담차고 쾌기있고 주대가 있는 젊은 군관일것이라고 짐작하시였다.

차렷자세로 수화기를 정중히 두손 받쳐들고있는 젊은 군의의 자태가 선히 그려지시였다.

느직느직 기운없이 말꼬리를 질질 끌던 늙은 원장의 말을 들으시다 한마디한마디가 선택되고 함축된 군의군관의 힘찬 대답을 들으시려니 수령님의 마음은 대번에 거뜨해지시였다.

《어디 말해보시오. 동무의 소견이 무엇인지... 그런 몸쓸병은 아닌것 같가지?》

쫘전과는 달리 우렁우렁하신 음성이였다.

방금전까지도 기운차게 대답을 드리던 군의가 이번엔 웬일인지 주춤거렸다.

이제와서야 자기가 어느분앞에서 소견을 내놓고있는지를 깨닫고 자기가 하는 한마디한마디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에 눌리워 당황해진 모양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벌써 군의의 이런 심정을 헤아리시고 힘을 주시듯

《일없소. 마음놓고 동무의 생각을 그대로 말해보시오. 말그대로 소견인데 옳을수도, 옳지 않을수도 있는것이요. 그렇다고 탓할 사람은 없소. 아니 좀 기다리시오. 내가 거기로 가겠소.》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병원마당에 나와 서서 그이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있던 원장이 차앞으로 황황히 다가서며 인사를 올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협의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마음놓고 자연스레 내놓을수 있도록 방안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시려고 담배도 권하시고 수고가 많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의사들의 가정형편까지 일일이 물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그러보시던대로 군의는 총기가 있어보이는 30대의 젊은 군관이였다.

군의는 학업성적이 우수했던것으로 하여 군의대학을 졸업할 때 한급 더 높은 군사칭호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는 선발된 사람들로 무어진 박덕산의 치료진에 속하게 된것을 과분하게 생각하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것처럼 아끼시는 혁명의 로투사를 일으켜세우는데서 자기자신이 병마의 요진통을 찌르는 침대가 되리라는 속생각을 품고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젊은 군의의 그 의지가 우선 마음에 드시였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처음부터 환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의혹을 품고있었지만 내놓고 주장하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자기 하나를 내놓고 치료진의 열명나마되는 사람들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환자를 다시 진찰해볼데 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군의는 여러차례에 걸쳐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얻은 결론이 무엇이란데 대해 비교적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였다. 한마디로 그는 수술이 아니라 약물치료를 주장하고있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옹당한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군의의 론거에 대한 매우 조심스러운 반박이 시작되였다.

맨처음 오랜 기간 복부내과의로 일해온다는 박덕산의 담당의사가 발언했는데 어쩔수 없이 군의의 주장을 부정하고있는 그의 목소리에는 괴로움이 짙게 깔려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지금 군의가 옳기를 바라고계시는데 자기는 그것을 매우 설득력있는 론조로 부정하고있으니 이 무슨 망명된 도리란말인가.

군의의 주장에 목소리를 합칠수 없는 다른 의사들의 심정도 한가지였다.

이제 와서 환자의 병이 무엇이라는데 대해서는 거의나 명백해진것 같았다.

협의회를 결속하는 원장의 목소리는 의사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여 어버이수령님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다는 죄스러움에 두간두간 끊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더는 반박할 말을 고르지 못하고 얼굴이 해쓱하니 질려있는 군의를 옆으로 부르시였다. 그래서 더욱 몸둘바를 몰라하는 군의를 한동안 말없이 지켜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원장에게

《이 동무한테 차를 한고삐 가져다 주시오.》 하

시며 일어서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군의가 몸돌바를 몰라하며 차 한고뿌를 다 드는것을 보시고서야 방을 나오시며 왔던 길에 환자나 한번 보고가자고 하시였다.

원장의 안내로 덕산이 든 방에 이르시니 보자기에 남비를 짜든 한 녀인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있다가 허둥지둥 물러나며 허리를 굽혔다. 박덕산의 부인이였다.

《아니, 허동무, 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러니까?》

수령님께서서는 위로하시듯 부인의 손을 다정하게 쥐여주시며 물으시였다.

《수령님, 들어가면 불벼락이 날것 같아 이롭니다. 저분이 입원한 다음부터는 더 사나와져서 호랑이처럼 으르렁대는데 도무지 범접하질 못하겠습니다.》

녀인은 서글프게 웃었다.

《그가 왜 그러니까? 자기 병이 무엇인지 짐작한것이나 아십니까?》

수령님께서서는 낯을 흐리시며 걱정스레 물으시였다.

《뭐 달래 그런건 아닙니다. 정 할일이 없으면 통장갑이라도 한컬레 더 기워 건설장에 보내줄것이지 왜 큰일이나 난것처럼 밀려다니는가 하는겁니다. 그래 모두 집으로 쫓겨갔었는데 오늘은 저분이 제일 귀해하는 손주녀석의 생일도 되구 해서 아침끼니만이라도 제 손으로 차려드리고싶어 첫새벽에 왔습시다만...》

녀인은 웃고름으로 눈굽을 찍었다.

《박덕산동무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 그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하지만 병원침대에 누워서까지 그렇게 범노릇하는줄은 몰랐구만. 어서 들어갑시다. 나와 같이 들어가면 그가 뭐라지 못할거요.》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부인을 앞세우고 방에 들어서시였다. 그때 박덕산은 문밖에 수령님께서 오시였다는것을 알고 허둥지둥 일어나 침대에서 내리는 참이였다.

《수령님.》

박덕산은 몸이 일없다는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며 반가와 어쩔줄 몰라했다.

《누워있재도 고통스럽겠는데 왜 일어나서 이러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급히 환자에게로 다가가시여 그를 부축여 침대에 눕히시였다.

병색이 짙은 환자의 얼굴을 침통한 안색으로 내려다보시며 베개까지 바로잡아주신 다음에야 자리에 앉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덕산이가 기빠할 새소식들을 들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먼저 전국의 협동농장들에서 결산분배가 전반적으로 끝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에 의하면 금년농사는 대풍이라고 알려주시

고나서 새해를 맞으며 조업을 하게 되는 한 공장에 내려가보니 그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덕산동지는 안오는가 묻더라는 말씀을 하시였다.

《터전을 닦을 때부터 덕산동무가 수고를 많이했다는 말들을 했소. 난관이 막아설 때마다 덕산동무가 자기들한테 당의 뜻대로 건설을 다그쳐 조업하는 날 수령님을 모시자면서 자기가 꼭 모시고 올테니 두고보라고 했다더구만. 그런 덕산이가 안왔으니 그 동무들이 왜 섭섭하지 않겠소. 나도 그 말을 듣고는 내내 속이 좋질 않아 공장안을 돌아보면서 동무생각만을 했소.》

무리했소. 너무 무리했거든. 사흘 갈 길 하루 가서 열흘 눕는다는 속담이 있소. 아무래도 동무의 건강이 마음놓이질 않아 당분간 하루 한나절씩만 일하고 한나절은 무조건 쉬여야 한다고 당결정까지 채택해 내려보냈는데도 동문 말을 듣지 않았거든. 보시오, 결과가 어떻게 됐나... 동문 병원에 와서까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러오? 내대신 말동무라도 해주라고 사람을 보내면 왜 쫓아버리오?》

수령님께서서는 자신과 함께 들어와가지고도 등뒤에서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오금을 펴지 못하고있는 부인을 앞으로 내세워주시며 박덕산을 나무리시였다.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지 못하구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것만도 불효막심한 일인데...》

《...내 말을 막지 마오. 내가 그 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요. 그게 날 위해주는것 같지만 동무가 진짜로 날 위해주는건 병을 말끔히 떼고 내옆에 있어주는거야. 덕산이, 동무야 일생을 혁명에 충실했는데 이제와서 몸이 좀 편치 않아 천다 해서 동무를 닦할 사람은 없소.》

난 동무가 내 일을 크게 돕지 못해두 늘 옆에 있어 말동무라도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겠소.》

그러니 병은 꼭 고쳐야 하며 능히 고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병과의 싸움도 박덕산이답게 잘하라고 고무하시였다.

수령님을 모시고 차가 있는곳으로 나오면서 원장은 수령님께서 허락하시면 인차 수술에 들어가겠다고 조심스런 어조로 말씀올렸다.

《그건 동무들 좋을대로 하시오. 그런 대답을 나한테서 꼭 받아내야만 하겠소?》

언짢으신 음성이지였다.

승용차는 떠났다.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인차 다시 돌아오시였다.

《다들 수술해야 한다니까 나도 반대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렇다면 그 군의동무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차결로 뛰여온 원장에게 타이르시듯 말씀하시였다.

《모두 찬성하는데 혼자 반대한다는 식으로 목살

해서는 안됩니다. 정치적인 문제라면 다수가결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문제에선 백사람가운데 한사람이 의견을 달리해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비록 동무들의 견해가 옳다 해도 우격다짐으로 밀어제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입니다. 납득을 하고안하고는 그 동무의 자유입니다.》

수령님께서는 거듭 다짐을 두시었다.

《잘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면서도 원장은 난감해하는 눈치를 감추지 못하였다.

《왜 그러니까. 그가 납득할것 같지 못합니까?》

《최종합니다. 수령님, 저희들이 잘 리해시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신것이 벌써 며칠전인데 아직도 그 군의를 납득시키지 못했는지 환자를 지금상태로 그냥 두다가는 위험할것 같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래 다시 병원에 들리시니 정말이지 환자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맞아주는데 그는 제몸의 아픔보다도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모양, 어떻게해서나 일어나보려고 모지름을 쓰다 그만 주먹으로 침대모서리를 내려치며

《수령님, 수령님께서 오시였는데도 박덕산이가 이제는...》 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일없어, 일없어. 난 덕산의 병문안을 왔지 동무의 깁듯한 인사를 받자고 온게 아니야.》 하시면서도 《이게 웬 일이요? 동무가 이 지경이 되다니.》 하는 생각에 앞이 보이지 않으시었다.

원장이 수령님께 그동안의 치료정형을 보고드렸다. 군의에 대해서도 말씀올렸다.

군의는 여전히 제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요즘은 환자의 결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그한테서 자기의 약물치료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관찰하고있었다.

군의는 환자에 대한 검진도 다시 시작하였다.

원장은 군의가 환자에게 투시를 하자, 실험검사를 다시 해보자 하며 쓸데없이 괴롭히는것이 매우 언짢았지만 묵묵히 참았다.

그한테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건뎠자 서로 감정이 나 상하고 시간만 더 끌게 될것이였다.

어서 저하고싶은대로 다 해보고 스스로 손들고 물러설 때를 기다릴수밖에 없었다.

《의술보다 고집부터 배운》 이 짧은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결코 자기가 벌려놓은 일을 중도반단하지 않을것이다.

환자에 대한 정성과 그가 가진 정열만은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가 환자를 어떻게 머물쩍해놓았는지 원장자신도 매번 그한테 접근하자면 은근히 두려워지군하는 박덕산이가 군의의 말이라면 무엇이냐 고분고분 들어주었다.

이쪽으로 돌아눕자면 이쪽으로 돌아눕고, 피를 뽑자면 피를 뽑고, 이 약을 꼭 잡수어야 한다면 군말없이 받아마시는것이였다.

한번은 밤늦게 순회를 하다가 방싯하게 열린 문틈으로 도란도란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나오기에 들어가보니 군의가 덕산의 침대앞으로 의자를 바투 끌어다놓고 앉아서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있는데 언제가야 한번 웃을줄 모르는 그 엄하고 푹한 얼굴에 빙긋이 웃음이 내돌고있었다.

밤 두시, 자장가를 불러주듯 군의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환자를 동무해주는것이 분명하였다.

원장은 혀를 찼다.

제가 제눈을 가리는 그 고집만 아니라면 저런 정성과 열정이 못해낼 일은 없을거라고 아쉽게 생각하였다.

원장은 제편에서 군의를 도왔다.

그한테 그 어떤 기대를 가져서가 아니라 군의가 어서 자기를 깨닫고 물려서게 하기 위해서였다.

실험실에 직접 찾아가 실험결과를 독촉해주시기도 하고 간호원을 집에 보내여 군의가 보고싶어하는 약물에 관한 저서들을 가져오게도 하며 그가 해독하기 힘들어하는 눈치면 붙어앉아 같이 해주기도 하면서 무엇인가 그의 의도를 앞질러 알아차리고 처리해주었다.

군의가 대학시절에 자기를 배워준 스승을 앞세우고 환자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원장은 기분이 나빠하는 담당의사에게 《스승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그자체만으로도 고귀하고 훌륭한것이다. 그런 제자를 두지 못한 스승은 웅당 자기를 부끄러워해야 할것》이라고 충고하고나서 군의의 희망대로 그의 스승이 환자를 손수 진찰할수 있도록 하여주었다.

하지만 군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한테서는 끝내 원장이 우려하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고려의학연구소엔지 어텐지 간다면서 얼마간 자리를 떴던 군의가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그도 환자를 보더니 얼굴이 컴컴하게 질렸다.

안타까운것은 그가 그렇게 당황해하면서도 수술하자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웅해나서지 않는것이였다.

병원에 온 보건부장이 그를 불러왔히고 이 이상 더 시간을 끌다가는 환자를 죽인다고 사정하다 못해 박덕산이가 어떤 사람인데 잘못되는 경우 후과가 두렵지 않은가고 위협도 해보았으나 군의는 끝내 입을 열지 않고 또 어딘가에 간다면서 자리를 피해버렸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원장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시고나서 지치고 피곤이 실린 원장을 동정하듯 바라보시며 군의를 한번 만나보자고 하시었다.

군의가 언제까지나 그런 립장으로 나오겠는지 그 어떤 기적을 바라기전에는 시간을 더 이상 끌어서

안되리라는 생각이 드시였기때문이었다.

보건부장이 다시 부르는줄만 알고 환자의 방에 먼저 들렀다가 원장실로 들어서던 군의는 그만 문턱너머에서 굳어지고말았다.

그러지 않아도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져 머리를 들지 못하고 들어서던 군의였다.

보건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계시던 수령님께서는 군의의 그런 마음을 능치주시려는듯 손짓으로 앉으라고 하시고는 하시던 이야기를 계속하시였다.

그래도 꾹꾹하게 굳어져있는 군의를 원장이 슬며시 자기의 옆자리에 끌어다앉히고 그에게 차한고뿌를 따라주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군의가 어지간히 마음을 녹았했다고 생각되시자 그에게로 시선을 주시며 《환자한테는 들렸됐나?》 하고 친근하게 물으시였다.

《어때?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지?》

군의는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좋지 않아. 대단히 좋지 않거든. 그래 시간을 더 이상 끌다가는 안될것 같기에 군의동무의 의견을 다시한번 들어보자구 불렀소.》

철없이 고집을 쓰는 자식을 달래이듯 수령님의 음성은 더없이 부드러우시였다.

《어서 수령님께 말씀드리오.》

보건부장이 조심스럽게 군의를 재촉하였다.

《수령님, 저의 죄가 큼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다가 환자를 저 지경에까지...》

군의의 이마에 비지땀이 송골송골 내뿜었다.

원장이 자기 손수건을 꺼내 군의의 손에 쥐여주었다.

《그러니 이제는 수술에 동의한다는거구만.》

군의한테서 그런 대답이 나올것이라고 생각하시였지만 막상 들으시니 가슴이 허전하시였다.

박덕산의 생명을 두고 걸어보시던 가느다란 희망의 마지막 실줄마저도 끊어진것이었다.

《그렇게 쉽게 동의할거면 아침에 보건부장동무가 물을 때는 왜 대답을 안했나? 위협까지 했다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보건부장을 향해 웃으시고 나서 미소를 머금으신 눈길로 군의를 바라보시였다.

군의의 이마에서 진땀이 뚝뚝 떨어져내렸다.

그래도 군의는 땀을 씻을 생각을 못하고있었다.

손에 수건을 쥐고있다는것도 잊고있는것 같았다.

《종소. 돌아가보시오. 군의동무가 그동안 수고가 많았소. 마음고생이 컸겠는데 래일은 꼭 쉬도록 하시오.》

군의가 그만 선자리에서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런 군의를 일별하시고 일어서시였다. 가시려는것이였다. 이제는 여기에 남아계실 이유가 없으시였다. 계신댔자 원장이나 더 괴롭히게 될거라고 생각되시였다.

이제 자신께서 타신 차가 떠나면 원장은 그 즉시

로 들어와 수술에 달라붙을것이다.

건강이 나빠질대로 나빠진 덕산이가 그런 큰 수술을 받아내겠는지도 의문이지만 결과가 좋은 경우라면 1년내지 1년반이라는 제한된 생명을 받게될 것이였다.

방금 자리를 뜨시자고 하는데 언제 올었던가싶게 눈물자욱을 깨끗이 훔친 군의가 절도있는 걸음새로 몇걸음 다가서며 《어버이수령님, 군의근무소좌 정순기 말씀드릴수 있습니까?》 하였다.

례의를 벗어난 군의의 돌발적인 행동에 언짢아진 원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어버이수령님, 박덕산동지의 수술을 사흘만 더 연기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장이 아연해서 뭐라고 소리치려다가 입을 꼭 다물었다.

수령님께서는 은근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며 초면이시듯 짧은 군의를 주의깊게 바라보시였다.

배짱이 여간한 청년이 아니라는 생각을 어쩔수 없으시였다.

3일간만 더 달라는 청년군의의 요구에는 자기자신을 통채로 내대는 그런것이 있었다. 자기의 운명이나 일생을 내대고라도 군의는 3일간을 더 얻으려고 하는것이였다.

신념이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만이 이렇게 행동할수 있었다.

나이는 서른댓쯤 나보였다. 군복때문에 그렇게 젊어보일수도 있었다.

키는 큰 축이고 몸은 약해보이는데 도수높은 안경을 걸고있는것으로 해서 사람이 더욱 어저보였다.

이모저모로 아무리 뜯어보셔야 원장이 말하는 그 《고집불통》 같은데라든가 그런 배짱이 붙어있을 만한데를 찾아볼수 없는 젊은이였다.

하긴 저런 사람이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외려 더 질기고 끝이 없다고 생각하시며 수령님께서서는 혼자 미소를 머금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묻는듯한 눈길로 원장을 바라보시였다. 그제서야 원장이 벌써부터 입술을 푸들푸들 떨며

《군의동무, 책임적인 발언을 하시오. 어떤 자리라고 감히... 경거망동을 해도 정도가 있지. 아직도 적어서 또 사흘이요? 그래 그 사흘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거요?》 하였다.

《수령님.》

군의는 원장에게가 아니라 수령님을 우러르며 말씀올렸다.

《오늘까지 제가 환자한테다 약물치료를 해오면서 관찰해본데 의하면...》

군의는 걸잡을새없이 뚝뚝 떨어지는 땀을 팔소매로 뺨 문지르고나서 주머니에서 급히 수첩을 꺼내 들었다.

수첩을 꺼낼 때 원주필이 꺼묻어나오다 떨어졌다.

군의는 그것을 집으려다 말고 수첩장을 번졌다. 이번엔 안경이 땀에 젖어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군의는 매우 당황하여 허둥거리며 안경을 벗어 닦았다.

보건부장이 떨어진 원주필을 그한테 쥐여주며 텀비지 말고 차근차근 말씀올리라고 하였다.

안경을 썼으나 또 인차 흐려졌는지 군의는 할수 없이 수첩을 접었다. 그리고는 죄송스러워 어쩔줄 모르며 《지금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는것이 없지만 꼭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늦어서 3일후에는 미약하게나마...》 하고 다시 땀을 씻는데 손을 후들후들 떨고있었다.

군의의 말에 반신반의하는 의사들이 한두명 나타났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그래서 더 사색이 된 원장이

《늦소. 그 어떤 약물치료효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허락칠 않는단 말ियो.》 하고 절망적으로 손을 내저으며 한옆으로 비켜섰다.

《군의동문 돌아가보시오.》

그가 나가자 수령님께서도 인차 자리를 뜨시였다.

《나도 가겠소.》

그이께서 아무런 결론도 주지 않고 떠나시는것만 같아 원장이 울상이 되어 어쩔줄 몰라했다.

수령님께서도 며칠사이에 풀썩 늙어버린듯한 원장을 측은하게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웃으시였다.

《원장선생, 수술을 한 삼사일간 늦춘다 해서 당장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겠지요?》

《예. 무슨 다른 일이야 생기겠습니까마는 지금의 하루하루가 환자한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군의동무가 요구하는 사활은 내가 얻어내겠습니다. 박덕산동무한테 현상태로 3일동안만 견제하라고 내가 직접 부탁하겠습니다.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여 전호숙에서 총을 잡고 싸우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내가 지탱하라고 명령하면 그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견디내내군하였습니다. 너무 노여워마시오. 원장선생, 난 그 군의동무가 마음에 듭니다. 그 동무가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의 주장에 반신반의하는 의사들도 있는것 같던데 원장선생같은 의학계의 로병이 그 동무의 편이 되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해해주시오. 박덕산의 생명을 놓고는 나도 억지를 쓰게 되는 모양입니다.》

수령님께서도 원장의 어깨에 한손을 다정하게 올려놓으시며 다시 가볍게 웃으시였다.

《군의동무가 지금 매우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을것입니다. 그 동무한테 내 말을 직접 전하십시오.

뒤일은 내가 책임지겠으니 마음놓고 치료에 전심하라고 말입니다. 설사 그 동무의 소견이 틀린다고 해도 탓하지 않겠다고 말하십시오. 일을 하자면 그 동무처럼 래일엔 목을 내대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해본다는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키워주면 큰 일을 할수 있는 동무입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도 죄책감으로 하여 눈물이 그렁해진 원장을 일별하시고 병원을 나서시였다.

그것이 바로 그제저녁의 일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타신 차가 청산벌을 지나는데 강서읍쪽에서 트랙트르행렬이 마주왔다.

공장에서 방금 받아내오는 새 차들인데 꼬리를 어데다 두었는지 연해연방 굴러와서는 옆으로 지나갔다.

흰눈에 덮인 벌판가운데로 차를 대고 그어놓은듯 곧추 뻗어간 청산포10리 신작로에 붉은색 트랙트르가 한줄로 늘어선 모양도 불만하지만 탄생을 알리는 고고성인듯 수백대의 트랙트르가 한꺼번에 내지르는 소리 또한 장관이었다.

새해 농사를 앞둔 평원과 문덕, 숙천벌로 가는것으로 짐작되시였다.

수령님께서도 그 트랙트르행렬에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생각이 참으로 깊어지시였다.

그렇다.

반동놈들이 비료를 먹여 죽인 소를 놓고 조합에 하나밖에 없던 소를 죽였으니 이제는 농사를 어떻게 짓겠는가고 우리 농민들이 가슴을 치던 그 간고했던 시절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것이다.

회고하실수록 세월은 빨리도 줄달음쳐왔다는 감회로 하여 생각이 깊어지시였다.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걸던 그 행진대오의 앞장에 바로 박덕산과 같은 우리 인민이 낳은 우수한 아들들이 서있었다는 생각을 하시였다.

문짜과 적재함에 《남새》라고 쓴 화물차 석대가 온실에서 따실은 오이와 쑥갓, 시금치를 싣고 마주오다가 길옆으로 조심히 비켜섰다.

시내에 있어도 교외길에 나서도 오늘의 생활은 오직 설이라는 래일을 목표로 흘러가는듯싶었다.

다만 박덕산이 한사람만이 이 흐름에 섞일 생각을 못하고 한옆에 비켜서서 자기를 지나쳐 흘러가는 그 생활을 쓸쓸한 눈으로 바래우고있다고 생각되시였다.

차창밖으로 과원을 등지고 오בות하게 들어앉은 농촌마을이 흘러가고있었다. 점심때가 갓 지났는데 집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는걸 보면 벌써 명절음식들을 만들고있는 모양이었다.

농촌에서는 명절날보다 명절안날이 외려 더 흥성거린다.

오늘은 쉬는 날이 아니여서 모두 나오기는 하지마는 이날의 작업배치라는게 누구는 리상점에 내려가서 설상품을 실어오고, 누구는 후방가족 아무개 할머니집에 가서 장작이나 좀 패주고 누구누구는 문화회관의 불을 때고 녀자들은 들어가 떡방아나

짚고... 이런 식이었다.

수령님께서도 명절안날의 이런 분위기를 손금보듯 잘 알고계시었다.

그리고보면 농촌에서는 이미 설이 시작된셈이었다.

설은 모두의것이면서도 늙은이와 아이들의 설이라고도 말한다.

래일 아침에는 늙은이들이 제일먼저 일어나 옷차림을 잘하고 앉아서 세배오는 아이들을 기다릴 것이고 세배를 받고서는 부엌에 대고 어서 상을 들여오라고 명을 내릴것이며 애들한테는 사랑값을 쥐여주고 젊은이들한테는 술을 권할것이다.

젊은 어머니는 애들이 나가서 세배값으로 얻어가치고 온 돈을 필요한 때 준다면서 전사할것이고 할머니는 그게 싫어 허를 찔것이다.

어느해인가 수령님께서도 세배를 온 박덕산의 손자녀석한테다 십원짜리 하나를 쥐여주신적이 있었다. 세배값은 내야했기에 향간에서 하는대로 하신것인데 아이가 그 돈을 찬찬히 보고나서 도로 내밀며 《이런 돈은 싫어요. 장군님, 다른 돈을 주세요.》 하는것이였다. 알고보니 그런 돈은 어머니가 빼앗는다는것이였다.

그래 한참 웃으시고 그애의 소원대로 해주자고보니 당장 품에 지니신것이 없었다. 아이는 어서 작은 돈을 내라고 야단을 해대는데 그때의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으시었다.

그것은 분명 즐거운 추억임에 틀림이 없었으나 이날에 느끼시는 감정은 쓸쓸하였다.

이녀석, 어디까지 따라와서 이 야단인가고 아이를 안고 일어나며 바빠하던 그런 박덕산의 모습을 더는 볼수 없단 말인가. 보아하니 이제는 덕산이도 자기의 병이 무엇인지 눈치챈것 같았다.

《수령님, 년말이 돼서 더 바쁘시겠는데 이제는 오시지 마십시오.》 하던 사람이 막상 나오자고 일어서니 이번엔 떨어지기가 싫어서 아이처럼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수령님, 십분만 더 계시다 가십시오.》 하며 자신의 손목을 꼭 부둥켜잡았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수령님, 퇴원하면 오는 4. 15에 만경대에 가서 관성렬차를 타보자고 합니다. 자리에 누워있으니 아이 마음이 되는것 같습니다. 갑자기 관성렬차를 타보고싶은 생각은 왜 나겠습니까.》 하는것이였다.

《왜 그렇지 않겠소. 우리가 그런걸 만들어줄줄이나 알았지 언제한번 타볼 생각이야 했소?》

그 말을 하시자니 눈물이 나서 그를 마주볼수가 없으시었다.

《하긴 언제부터 한번 타보고싶은걸 갈 때마다 아이들이 줄을 쭉 서있군해서 타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타자면 아이들이 양보는 하겠지만 왜 그런지 그애들의 뒤에 서서 내 차례가 되기를 오래오래

기다려보고싶어집니다. 수령님도 같이 가십시오.》

《그러자구. 나도 줄을 서겠소. 박덕산의 뒤에...》

수령님께서도 목이 메여 얼른 그자리를 피해 나오시며 《덕산동무, 절대로 약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되오. 동문 지금 자기 병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고있는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소. 능히 고칠수 있는 병이요. 예감이 그렇소. 동무야 내 예감을 믿겠지?》 하시며 애써 웃어보이시었다.

《생각나오? 덕산동무, 그게 아마 52년도 초였지? 군단장 오석진의 감시소에서 동무를 만났던 때가 말이요.》

그제서야 박덕산은 수령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계시는지 깨닫고 《생각납니다. 수령님, 생각나구말구요.》 하며 밝게 웃었다.

환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피어난 생기있는 웃음이였다.

그날 수령님께서도 박덕산과 오군단장을 만나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문득 군단장감시소를 옮기는게 좋을것 같다고 말씀하시었다.

《작전지휘상 위치로 보나 지형으로 보나 군단장 감시소자리로는 나무랄데가 없는것 같소. 하지만 너무 나무랄데 없다는 바로 그점이 불안하구만. 예감이 좋지 않소. 빨리 옮기도록 하시오.》

그 말씀이 계신지 반시간도 못되어 감시소가 있던 자리에 한톤짜리 폭탄이 떨어졌다. 그것이 감시소를 겨누고 떨군 폭탄이였는지, 아니면 지나가던 비행기가 심심풀이로 내던진것이 거기 와서 터졌는지 벌어진 사태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한동안 말 못하고 서로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었다.

《죽을 팔자면야 덕산인 그때 벌써 죽었지.》

수령님께서도 즐겁게 웃으시고나서 장담하시듯 《이번에도 덕산일 죽이지 못해.》 하시었다.

하긴 수령님의 예감이 그처럼 신묘할 정도로 들어맞은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덕산은 그이를 몸가까이 모시고 장구한 기간 혁명의 불바다를 헤쳐오면서 위대한 천재의 두뇌속에 번개의 섬광처럼 언뜻언뜻 비끼는 그런 예감이 어떤것이라는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였다.

위인은 누구라 없이 위대한 예언자라고 하지만 수령님이시야말로 어느 위인도 견줄수 없는 천재적인 예언자이시였다.

밀도끝도 없이 찰나적으로 언뜻 비끼는 예감이 우리 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한적도 여러번이시였다.

그러기에 덕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한마디를 더없는 숭배심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수령님께서 박덕산이 죽지 않는다고 했으면 그것

은 죽지 않는것이였다.

덕산의 기분은 확실히 달라졌다.

졸전까지도 이제 헤어지면 수령님을 다시 뵈옵지 못할것만 같아 십분만 더 계시다 가시라고 매여달리던 사람이 아이처럼 금시에 기분이 좋아져서 바쁘신데 어서 가시라고 외려 제편에서 안달이나했다.

그런 덕산이를 보시니 수령님께서서는 더욱 가슴이 아프시였다.

병세는 자꾸 기울어지지, 돌려세울 방책은 서지 않지, 생각하시다 못해 나중엔 예감에 대한 소리까지 꺼내보신것인데 덕산은 이번에도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린것 같았다.

《믿는다니 됐소. 기어코 믿으면 귀신도 이를 꾀한다는 격언이 있소. 나도 그래서 수술을 하겠다는 결 끝내 허락하지 않았소. 힘을 내오. 신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시오. 며칠안으로 이제 기적이 일어날 거요.》

덕산이한테라기보다 자신의 아픈 마음에 대고 하시는 위안의 말씀이시였다.

정말 자신께서 바라시는대로 2~3일안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으랴

혁명전사들에 대한 그이의 사랑은 다 이러하시였다.

사랑이 이처럼 뜨거우신분이기때 그이께서는 누구보다도 크나큰 슬픔을 가슴에 안고계시였다.

얼마나 많은 혁명동지들이 그이의 결을 떠나갔던가. 떠나면서 그들은 누구를 찾았던가.

수백수천의 그 부름소리가 개개의 음성으로 그이의 가슴 갈피갈피에 아프게 젖어있었다.

그 목소리들가운데는 김혁이도, 리광도, 오중흡이도, 강건이와 김책, 류경수의것도 있었다.

홍명희도, 김구도, 계웅상이도 있었다.

한결 기분이 좋아진 덕산이가 부인이 떠주는 미음을 달게 받는것을 보시고서야 수령님께서서는 병원을 나서시였다. 하지만 왜 그런지 관성렬차를 타고고싶다던 박덕산의 말이 자꾸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으시였다.

말수가 적고 좀 똑한 사람이 그런 말까지 하는걸 보니 왜 그런지 기분이 좋지 않으시였다.

림종을 앞둔 사람들이 그런 엉뚱한 소리를 잘 한다면데 그럼 박덕산이도?!

생각이 여기에 이르시자 수령님께서서는 속이 철렁하시여 차를 세우시였다. 그러시고는 아무 말씀이 없이 담배를 태우시였다. 아마 한 20분은 그렇게 계신것 같았다.

수령님의 심증을 헤아린 부관이 운전사에게 조용히 차머리를 평양으로 돌리라고 하였다.

《아니, 룡강으로 갑시다. 박덕산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벌써 한시간나마 군의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였다.

군의의 곁에는 원장이 기쁨과 죄스러움이 어린 표정으로 수령님의 말씀을 수첩에 적다가는 이따금 젖어드는 눈시울을 수건으로 문질렀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기다리는줄은 모르고 무슨 생각인들 안했겠소.》

말을 하자니 자꾸 마음이 격해나시여 수령님께서도 자주 손수건을 꺼내드시였다. 그러시고는 다음 말을 잊지 못하시고 그저 군의의 잔등을 톡톡 두드리시였다.

《수고했소. 그러니 결국 동무가 옳았던 말이지. 원장선생이 그렇다니 믿어지오. 원장선생, 군의동무를 돕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령님, 면목이 없습니다. 기존지식과 낡은 경험에 매달려 수령님의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나도 덕산동무가 다시 살수 있다고는 믿질 않았소. 수술을 하면 일년은 더 살수 있다는데 그런 희망도 가질수가 없었지. 군의동무가 어디 수술을 하게 해야말이지. 그런데다 또 사흘만 더 달라고 하는데 정말 바빴소. 덕산동무를 당장 죽일것만 같았거든. 오죽했으면 그한테 예감소리를 다 했겠소.》

수령님께서서는 웃으시며 다시 군의의 어깨를 두드리주시였다.

《수령님, 수령님의 그 말씀이 계시지 않았다면 덕산동지의 병세는 벌써 수습할수 없는 상태로 기울어졌을거라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수령님의 그 말씀이 다 죽어가던 환자한테 그런 기적을 불러오리라고는 정말 생각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수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우려하던 그 3일을 훌륭히 견디어냈을뿐만아니라 병세가 그전보다 호전되는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거야 군의동무가 복용시킨 약물의 효과겠지 다른거겠소.》

《아닙니다. 혁명전사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시야말로 그 어떤것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불사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놀라움이 가셔지지 않은 어조로 원장이 말씀을들었다.

《아니요. 난 그저 살아주었으면 하고 바랐을뿐이요.》

덕산동무가 믿듯이 모든 일이 그렇게 내말대로만 되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소.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고 그렇게 당부해서 보냈건만 차광수는 죽어서야 나한테로 왔소. 오중흡이도 그랬소.

룩과송 자신즈... 아직도 잊혀지질 않소. 왜놈들의 목재소를 다 점령해놓구서 죽었거든. 마루아래로 도망쳐들어갔던놈이 무방비상태에 있는 중흡이한테 총을 올려대고 쏠줄이야 누가 알았겠소. 강건이도 그렇게 죽었소. 강건의 고향은 경상도요. 어려

서 고향을 떠나 혁명투쟁에 나선후로는 그는 한번도 고향에 갈수가 없었소.

해방은 되었지만 38선이 막혔지. 1차남진때에야 드디어 길이 열렸기에 만사를 제쳐놓고 고향부터 찾아보라구 했소. 얼마나 그림던 고향이요.

그런데 고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가 잘못될 줄이야. 그는 죽으면서 나를 불렀다고 하오.

나도 분명 그 소리를 들었소. 그가 찾는 소리에 화닥닥 놀라 깨어나니 꿈이더군.

나는 덕산이도 그렇게 가는줄만 알았소.》

수령님께서서는 또다시 수건을 눈곱에 가져가시었다.

이윽하여 수령님께서서는 원장에게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지요?》 하고 물으시었다.

《수령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가지 약재만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와야 할것 같습니다.》

원장이 수첩을 펼쳐들며 말씀올렸다.

《치료책이 정확히 선 이상 지구의 끝에라도 가서 가져옵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

《예, 한시가 새롭긴 하지만 일없습니다. 래일은 전세계가 쉬는 날이구. 지금은 또 이렇게 눈이 와서 비행기가 뜰것 같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산을 해보았는데...》

《전세계가 다 즐겁게 쉬는 설인데 박덕산동무도

그 축에 속해야지 않겠소? 하루를 바쳐 한 인간의 일생을 찾을수만 있다면야 그거야 해볼만한 일이지.

설날에 좋은 일을 하면 일년내내 좋은 일을 하게 된다던데 오죽 좋은 일이요. 그 일은 내게 맡기오. 하하, 그러고보면 새해의 시작이 아주 괜찮소.》

이튿날아침, 평양교외의 한 비행장에 다른 나라 국적의 초음속전투기 한대가 내리고 거기서 두명의 외국손님이 나왔다.

설날아침, 가족들과 같이 축배잔을 들다가 그 나라의 국가수반으로부터 존경하는 **김일성**각하의 부탁이니 지금 당장 해당한 약재를 가지고 조선으로 가되 려객기로 가면 늦을수 있으니 전투기를 타고 가라는 지시를 받고 날아온 귀한 손님들이었다. 그들은 전투기를 타고오느라고 털외투를 입었는데도 뽁뽁 얼어있었다. 하지만 자기들이 왜 이렇게 급한 걸음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는 가슴이 후더워진다고 하였다.

그 시각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해를 맞는 인민들에게 신년사를 하고계시었다.

그이의 음성이 집집의 텔레비존과 고성기에서 친근하게 울려나오고있었다.

그것은 지난해보다 더 좋아질 올해에 대한 천리혜안의 결론이시었다.

그후 박덕산은 십여년을 더 살았다 .

추 억

조세프 마체가

추억

만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추억

그것은 절세의 위인

김일성동지에 대한 추억이여라

주체사상의 창시자

조선로동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군의 창건자

일제를 물리치시고

나라를 광복하신 절세의 애국자

미제를 타승하시고

공화국을 수호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령장

그이는

페허우에 조선을 일떠세우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 물리치고

주체조선의 위용 떨치신

불세출의 영웅

그이는

우리의 독립투쟁

새 사회 건설의 은인

온 세계 자주위업수행의 위대한 령도자

그이의 80여성상

걸으신 자욱자욱에 꽃이 피고

인민 위해 바치신 한생

인류력사의 갈피갈피에

영원히 아로새겨져있나니

우리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추억하리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과 함께 계시리

(필자는 짐바브웨공화국 국회의원의임)



《꿈도 없고 담력도 없고 열정도 패기도 투지도 랑만도 없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젊은 시절에는 리상을 높이 세우고 그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난을 무릅쓰고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생신한 사상과 건실한 육체를 가진 청춘들이 피와 땀을 바쳐 가꾸고 이룩해놓은 모든 열매들은 조국의 귀중한 재부로 되며 그 재부를 이루어놓은 주인공들에 대하여 인민들은 영원히 잊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는것은 그때가 일생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할수 있는 시절 이기때문이다. 일을 많이 할수 있는 때가 제일 행복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중에서

수령님은 함께 계신다

송명근

직승기가 날고있다
삼태자가 태어나면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수령님
아버이 그 사랑 그대로 실고
분계연선마을 김화땅의 시골 녀인을 찾아
직승기가 날고있다
예전과 다름없이
우리 수령님 그토록 못잊으시여
먼 이국에서 울적마다 만나주시던
백발 흘날리는 동포의 눈물에 찬 가슴달래여
80돛상도 차려주신다
이 강산에 수령님 그 사랑 그 정이 차고넘친다

오늘도 나는 느낀다
시각마다 수령님의 다심한 보살피심을
키낮은 유치원 식탁우엔
예전과 다름없이
수령님 보내주신 과일들이 오르고
정해진 시간이면
사랑의 콩우유차는 교문을 들어선다
온 나라 아이들이 그 은덕 노래하며
학교로 오가는 거리거리에
수령님은 웃맵시도 살피시며 웃고계신다

나는 본다 눈굽이 뜨겁도록
손길 높이 드시여 래일을 펼쳐주시는 수령님을
수령님의 수도건설 설계따라
청류 쇠바줄다리에 잇대여
새 청류다리가 뻗어가고있다
수령님 손수 당기에 그려넣으신 붓대는
마치와 낮 가운데 드림없이
제자리를 지켜 문수거리 창공에 솟아오른다
우리 당 경제전략의 역센 기관차는
달린다 1번선으로
농업과 경공업, 무역의 차량을 끌고
수령님의 구상 그대로 가르치심 그대로
한치도 변함없는 궤도를

그래 무엇이 달라졌단 말인가?
우리의 생활, 우리의 밝은 공기 한점이라도 변했
단 말인가?

아니다, 사상도 그대로 령도도 그대로
아버이사랑도 그대로
오,
나는 확신하노라
영원한 수령님의 모습으로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여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영원히 빛나시라

오필천

김정일 동지-그이는

하늘이 내신분
하늘의 산
백두의 대문을 여시고
2월에 우리에게 오신분

2월에 오시여
천지의 맑은 물과
따사로운 향도의 봄빛으로
이 땅우에 주체의 푸른 숲을
무성하게 가꾸신분

인민을 위해선 자신의 심장을 주시여
천하를 얻으시고
뜨거운 인정미로 인민을 이끌며
일심단결의 중심으로 서계시는분

김정일 동지

그이 하시는 한마디 말씀에
세기의 사색이 비껴라
그이 걸으시는 한걸음에
우주의 무게가 실려라

김정일 동지-그이는

평양바람으로
사회주의 재생의 숨결을 주신분

하여 다시 대오를 편성하고 나아가는
사회주의가 령수로 받드는분
세계의 명인으로
만민이 높이 추대한분

그분이시여라
어버이수령님께서
김정일 동지를 따를
그런 정치의 대가
그런 장군중의 장군은 없다고
세계앞에 명명하신분

오직 그이 한분
력사의 궤도를 내다보시며
20세기 사회주의기관차를
21세기의 한복판으로 이끌어가시는
혁명의 사령관-**김정일** 동지

아, 인민의 영광
조선의 영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빛나시라 주체의 해빛으로
누리에 영원히 빛나시라

(1995. 2. 8)

백송리의 메아리

최영화

그리울수록 더해지는것이 추억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피눈물속에 지난해를 보내고 처음으로 수령님께서 안계시는 4월의 봄을 맞고 보니 글보다 먼저 눈물이 앞선다. 이런 일을 어찌 꿈속에서나마 생각해보았던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더 사무쳐지고 그리움이 더해질수록 수령님에 대한 가슴뜨거운 추억들이 더 생생히 떠오른다.

나에게는 평생을 두고 못잊을 추억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소중한 추억은 1952년 4월 백송리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뵈옵던 일이다.

해마다 꽃피는 4월이 오면 나는 늘 백송리를 생각한다. 그것은 백송리가 내 인생의 중요한 매듭과 깊은 인연을 맺은 못잊을 고장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정부에서는 전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 대학교육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하도록 하였으며
전선에 나간 대학생들까지 소환하여 공부
시키고있습니다.》**

이 땅 어디에나 전쟁의 포연이 무겁게 서려있던 엄혹한 시련의 나날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전선에 있던 대학생들을 다시금 대학으로 불러준 류례없는 조치가 취해져 세상사람들을 경탄시켰다. 나도 그 경이적인 사변속에서 주인공의 한사람이 되어 적탄이 작렬하는 전호를 떠나 종합대학이 있던 백송리로 왔었다.

봄이면 산과 골짜기에 붉게 피어나는 진달래, 여름이면 골안을 흘러내리는 맑은 도랑물소리와 무성한 나무숲들의 설레임, 가을이면 그 많은 밤나무들에 가지가 휘도록 달리는 밤송이, 겨울이면 눈덮인 산마루에 푸르른 소나무들 그리고 반토굴집들과 트랙, 도랑물이며 밤나무아래에 꾸려놓은 휴식터... 어느것이나 짙은 여운을 남겨놓은 잊을수 없는곳이다. 그중에서도 휴식터는 나에게 참으로 뜨거운 추억을 불러일으켜주는곳이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4월 13일, 나는 나이든 밤나무가 풍채좋게 서있는 이 휴식터에서 오매에도 그림던 어버이수령님을 무한한 감격속에 뵈옵게 되었고 이틀후엔 탄생 40돐을 맞으시는 그이께 내가 지은 헌시를 읊어드리는 꿈같은 영광을 지니였던것이다.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 와서도 어제일처럼 떠오르는 이날의 감격과 영광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4월 12일 저녁무렵, 가렬한 전쟁의 중하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쟁을 승리로 령도해나가시는 그 바쁘신속에서도 어버이수령님께서 먼 포연길을 헤치시고 당시 **김일성** 종합대학이 갖 자리를 잡은 백송리를 친히 찾아주시였다.

전선의 전호가에서도, 해방된 남녘땅에서 정치공작의 밭길을 걸으면서도 복두칠성을 바라보며 그처럼 그리던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뵈옵는 교직원학생들의 바다같은 감격의 파도는 온 백송리골안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화시기가 아닌 전쟁의 불길속에서 그것도 평양이 아닌 산속 골안에서 40돐 탄생일을 맞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뵈옵게 되는 우리들의 심정은 무겁기도 하였다. 이런 심정들이였기에 무엇으로라도 어버이수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싶은 우리들의 마음은 갑절 더 절절했던것이다. 그러나 전쟁환경의 백송리골안에서 무엇으로 기쁨을 드릴수 있었겠는가.

자연도 산과 골짜기에 온통 아름답고 붉은 진달래를 피워 수령님의 탄생 40돐을 축하해드리는데 과연 학생의 몸인 나는 무엇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릴수 있을것인가. 나는 가까운곳에서 대학의 교원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밝김도록 이야기를 나누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깊어가는 4월의 봄밤을 잠들수 없었다. 생각던끝에 나는 며칠전부터 위대한 수령님 탄생 40돐을 맞이하여 창작중에 있던 헌시 한편을 마저 완성하여 마음속으로라도 우리 수령님을 축하해드리고싶은 심정을 안고 밤을 꼬박 새워가며 시상과 시줄들을 다듬고다듬어 마침내 날이 샅녘에 헌시 《수령님께 드리는 노래》를 완성하였다. 고심끝에 헌시를 탈고해낸 13일 새벽은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는, 나의 인생에서 잊을수 없는 그런 새벽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헌시를 이날 어버이수령님께 직접 읊어드릴 무상의 영광이 나에게 차례질줄이야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드디어 영광의 그 시각이 다가왔다. 13일 오전 10시경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어문학부가 위치한 교실앞 휴식터에 모여 수령님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을 터뜨리고있는 교직원 학생들에게 한손을 높이 드시여 답례를 보내시면서 다가오시였다. 가까이에서 목청껏 만세를 웨치며 어버이수령님을 우

러려비움은 나의 가슴은 한없는 걱정으로 끓어올랐다.

젊음에 넘치신 그이의 위대한 모습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서산락일의 함정으로 몰아넣으시는 천하제일 명장으로서의 기상을 느낄수 있었고 만면에 담으신 그이의 미소에서 전쟁의 승리를 신심넘치는 마음으로 내다볼수 있었다.

잠시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통나무 기둥에 널을 대어 만든 작고 검소한 연락앞으로 나가서시였다. 그이께서는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흠모와 충성의 한마음을 함뿍 담아 올린 진달래 꽃다발을 받으시고 한동안 우리들을 미덥게 둘러보시더니 온 골안을 울리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먼저 교직원 학생들이 이런 산골짜기에서 불비한 조건들을 이겨내며 교수교양사업과 학습전투를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전선에서 싸우다 돌아와 공부를 하는 동무들의 씩씩한 모습도 보고싶고 학습조건과 생활형편도 알아보며 대학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토의해보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망과 정전담판형편도 알려주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구상, 민족간부양성, 대학교육사업과 교직원 학생들앞에 나서는 파업들에 대하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나는 격동된 심정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연설을 들으면서 이처럼 위대하고 결출하신 젊으신 장군님을 수령으로 높이 모신 조선민족으로서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 세계 《최강자》라고 자처하는 미제의 숨통을 한손아귀에 움켜쥐시고 바짝 조이시는 천하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이 전쟁을 이겨나가는 승리자의 기쁨으로 가슴은 한껏 부풀어올랐다.

열정에 넘치시여 말씀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위대한 모습에서 나는 오늘의 불바다속에서도 승리한 래일을 내다보시며 전후복구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는 크나큰 담력, 미제침략자들의 검은 속심을 날날이 꿰뚫으시며 놈들을 정전담판장에 끌어내어 호되게 족치시는 비범한 명장의 지략, 그이의 청청하신 음성과 불빛 번뜩이는 안광이며 호탕한 웃음에서 울려나오는 위대한 장군의 신념과 락관을 온 뱃으로 절감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이 끝나고 폭풍같은 박수와 만세소리가 잦아들자 대학의 한 책임일군이 수령님의 탄생 40돐을 축하하여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드리는 헌시를 읊어리겠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을 저으시며 굳이 사양하

시는것이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간절한 소망을 꼭 이루고싶어 절절히 말씀올리였다.

우리들의 소원을 받아주신 그이께서는 연락결에 긴 나무 오리대로 만들어 푸른 모포를 접어 깔아놓은 소박한 의자에 앉으시였다.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어버이수령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린 다음 흥분과 감격과 영광이 한데 엉켜 설레이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쓰며 대학교직원 학생들의 이름으로 내가 완성한 헌시 《수령님께 드리는 노래》를 삼가 읊어나갔다.

반만년 력사우에 솟아오른
인민의 태양, **김일성**장군!

그이의 해발아래 새 조선은 태어나
어제날의 머슴이 영웅이 되고
온 강산이 타번지는 불바다속에서도
배움의 꽃은 피여 청춘은 푸르러라

아, 설레는 자모산발이여, 이야기하라
탄생 마흔돐에 포연을 헤치시고
우리의 배움터를 찾으신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을!
너, 영광의 땅이여, 길이 노래하라,
한밤을 우리와 함께 새우시며
천년미래를 밝혀주신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피끓는 심장에 혁명의 불길은 타올라라
미제를 쓸어눕힌 승리한 이 땅우에
공산주의의 조국을 높이 세우리라!
김일성장군의 나라를 온 세계에 빛내리라!

평화로운 건설시기나 엄혹한 전쟁의 불길속에서나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계시며 대학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뜨거운 은정과 배려를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살며 배우는 끝없는 행복과 긍지를 온 세상에 한껏 소리쳐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는 열정을 다해 헌시를 랑송하였다. 헌시의 여운은 골안을 울리며 산발을 넘어 멀리 4월의 봄하늘로 메아리쳐갔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소박한 그 의자에 스스럼없이 그대로 앉아계시며 생각에 잠기신채 미숙한 헌시를 끝까지 다 들어주시였다.

랑송이 끝나자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박수를 쳐주시고 인사를 드리는 나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면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까지 하여주시였다. 나는 그 영광의 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을 잡고계신다는것도 있고 그만 복받치는 감격으로 하여 흐느끼고말았다.

20대의 대학시절에 백송리에서 받아안은 이 영광, 이 감격은 70을 가까이하는 오늘에도 나의 가슴속에 생생히 살아있으며 한생을 가며 나의 심장과 함께 뜨겁게 고동칠것이다.

나는 전쟁이 엄혹하던 4월의 그 봄날에 백송리에

오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 내가 지은 헌시를 읊어드리었던 그날의 못잊을 추억을 언제나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나의 손을 그토록 다정히 잡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인자하고 자애로운 영상을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마음속에 소중히 모시고 살것이며 수령님께 다하지 못한 충성과 효성을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 끝까지 바쳐나갈것이다.

단 평

민족의 어버이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에 대한 깊이있는 형상

-단편소설 《민족의 어버이》를 읽고-

리용일

어버이수령님!

언제나 조용히 불러보느라면 사무치는 그리움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이의 한평생이 가슴가득 안겨와 우리 소설가들은 선뜻 붓을 들지 못한다.

그것은 그만큼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치신 그이의 생애가 위대하기때문이다.

사실자체가 위대하고 감동적일수록 그것을 재현하는 작품은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형상을 요구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잘 형상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것은 우리 세대 작가들이 지닌 가장 영예롭고 책임적인 과업이다. 이 과업을 후대에게 넘겨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하는 사업은 수령님의 혁명활동의 직접적인 목적자와 체험자가 살고있는 우리 대에 다 완성해놓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늘 가슴속에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 소설가들은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사명감으로 가슴불태우며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와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하기 위한 탐구와 사색의 길을 쉬임없이 걷고있다.

단편소설 《민족의 어버이》(강학태작, 《조선문학》 1994. 9~10호)는 그 길에서 얻어진 열매의 하나이다.

《민족의 어버이》, 단편소설의 제목에 어울리지 않게 지내 큰감을 주는 이것을 두고 우리는 그에 맞게 사상주제적과제를 제기하고있는지, 만만치않을 형상과제를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해결해나가겠는지 하는 호기심과 기대, 우려가 뒤섞인 감정을 가지면서 소설의 글줄에 눈을 가져간다.

소설에서는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5천년 민족

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라는 문제를 내세우고있다.

소설은 민족의 어버이이신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에 대하여 독자들이 새롭고 커다란 감동을 받아안을수 있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강성대국으로 이름을 떨쳐온 대 고구려의 시조왕과 왕릉발굴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다.

소설은 왕릉문제를 무덤의 주인공을 찾는 단순한 문제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사대주의자들과 민족허무주의자들에 의하여 외곡되고 무시당해온 민족의 력사를 바로잡는가, 못잡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로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오한 사색의 세계를 펼쳐보이고있다.

학자들에게 주제적인 관점에서 왕릉문제를 고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는 수령님, 수령님께서서는 왕릉발굴을 지시하시고 친히 현지에까지 나가신다. 왕릉앞에 있는 제당이며 룡문을 비롯한 유물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면서 수령님께서서는 동방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 사대주의가 없는 나라를 일떠세운 시조왕릉답게 크고 웅장하게 왕릉을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다.

이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도, 예상도 못했던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하고도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전설속의 인물로만 전해지던 동명왕도 로동당 시대에 와서야 실재인물로 태어나게 되었으며 세월의 락엽에 묻히어 버림받던 왕릉도 비로소 강성대국의 시조왕다운 면모를 갖추게 된것이다.

소설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 정녕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유구한 이 나라의 력사를 되찾아주시고 세상에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애국자, 5천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민족의 가장 위대

한 어버이이시라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소설은 제기한 문제를 이처럼 의의있는 생활내용을 통하여 깊이 해명하고있다.

소설이 독자들에게 안겨주는 사상정서적 감흥과 여운은 크다.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미소,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몸가까이 느끼며 그이의 위대성을 가슴가득 새로이 받아안는다.

그처럼 위대한 업적을 쌓으신 민족의 어버이의 품에 안겨있기에 내 나라, 내 조국에 민족의 정기와 넋, 기상이 넘쳐흐르는것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민족으로 세계의 각광을 받고있는것이 아닌가.

정녕 수령님을 떠나서는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궁지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독자들의 가슴에 흐르는 이 사상정서적감흥, 그것은 어떻게 생겨난것인가?

우리는 소설에 모셔진 수령님의 형상을 우러른다. 소설가의 탐구의 발자취를 더듬어본다.

소설에서는 주체의 민족관, 력사관을 지니시고 선견지명과 천리혜안의 예지로 잃었던 민족의 력사를 찾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형상이 뜨겁게 안겨온다.

동명왕과 왕릉이 실재인가 아닌가하는 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엇갈린 주장, 고주몽전설자체가 허황하며 무덤도 시조왕의 무덤으로서는 규모가 작을뿐 아니라 벽화도 없고 고구려의 첫 수도에서 활동하던 왕이 어떻게 평양에 와서 묻힐수 있겠는가. 그러나 동명왕과 왕릉은 실재의것으로도 믿기어렵다는 주장,

한편 아니다, 주몽전설자체가 신비화된 감은 있지만 그와 련관된 인물들이 실재이다. 또 무덤형식으로 보아도 평양으로 천도할 때 이장된 무덤일수 있다는 주장, 그들의 두가지 견해는 일치를 보기가 어려웠다.

수령님께서는 어느 견해를 긍정하시는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계시는가?

무엇보다도 수령님께서는 민족사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옛 기록에만 매달리면서 쉽사리 부정해버리는 학자들의 옳지 못한 력사관, 주체가 서지 못한 력사관을 두고 심려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래침략자들의 만행을 피하여 고려태조의 무덤을 옮겼던 력사적사실, 재일귀국공민들이 조상들의 유골함을 조국으로 가져오는 영화장면을 레드시면서 그것은 조선민족이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오는 미풍양속이라고, 그런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선민족이기때문에 력사유적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민족적전통과 결부시켜 주체적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신다.

이는 우리 학자들이 갑론을박하던 동명왕릉문제

해결의 근본열쇠로 되었으며 우리 력사학자들이 력사연구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명언인것이다.

진리란 발견해놓고보면 명백한것이지만 그것은 누구나 쉽게 내놓을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투철한 주체의 민족관, 력사관을 지니신분, 선견지명과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가르치심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발굴을 시작한 학자들은 왕릉을 확정할수 있는 《정릉사》터와 여러가지 유물들을 찾아내었을 때 이에 더없는 만족을 표하면서 룡안에 벽화가 없는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며 벽화찾는 일을 단념한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명왕의 무덤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벽화가 있을것이라고, 고구려시조왕의 무덤에 벽화가 없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꼭 벽화를 찾아내어 벽화없는 무덤이라고 머리를 흔드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남아있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끝내 벽화를 찾아냈을 때 오박사를 비롯한 학자들과 발굴성원들은 수령님의 선견지명과 천리혜안의 예지에 얼마나 감탄해마지 않았던가. 그들의 걱정은 그대로 우리 독자들의 가슴속에 흘러든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불멸의 화폭에 깊이있게 형상하려는 소설가의 탐구의 걸음은 줄기차다.

소설이 독자들에게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흥을 주는 요인의 다른 하나는 애국애족의 리념을 지니시고 고구려의 력사를 더욱 빛내여 우리 민족이 얼마나 훌륭한고 위대한가를 세계만방에 보여주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깊이 형상한데 있다.

왕릉발굴장소에 나오시여 《정릉사》터를 보시고 못내 기뻐하시는 어버이수령님, 수령님께서는 《정릉사》를 복구한 다음에 거기에 유물진렬관을 하나 잘 꾸려놓자고, 왕릉을 돌아보고 진렬관에 와서 우리 나라 고분들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비롯한 고구려시기의 유적유물들을 실물로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신다.

어찌 그뿐이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초라하게 지어놓았던 제당을 가늠해보시고 룡문과 제당을 크고 웅장하게 지을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말씀속에는 고구려의 력사를 더욱 빛내여 우리 민족의 슬기와 기상, 조선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만방에 떨치시려는 심원한 뜻이 담겨져있다.

그토록 심원한 뜻은 고구려시대상과 민족의 넓이 비끼게 더 크고 웅장하게 바꾸어 세워지게 된 돌말과 돌범의 조각상에도 깃들어있다.

오박사는 유물들을 그대로 두는것만이 력사주의 적원칙을 지키는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짧고 좁은것인가를 가슴저리게 느낀다.

되찾은 민족의 력사를 온 세상에 아낌없이 빛나게 하시려고 모든 정력을 기울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와 심혈, 그것은 결코 민족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소설에서는 왕릉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는 수령님의 모습을 평면적으로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민족에 대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 사랑의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은것인가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밝히고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다는 모르는 자식의 심정으로 소설의 글줄에 눈을 가져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룡앞에 세워진 문무관상을 세심히 둘러보시면서 모자와 옷차림이 고구려식이 아니라고, 조각상을 너무 작고 불품없이 형상해놓아 초라하다고 하시면서 돌사람을 품위있게, 고구려맛이 나게 잘 세우며 세울바에야 동명왕을 적극 도와나선 개국공신들을 잘 고증해서 세우자고 말씀하신다.

《웁습니다. 동명왕과 함께 그의 충신들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왕릉앞에 변함없는 충신의 모습으로 서있게 해야 합니다. 한쪽 반렬에는 무관들을 세우고 다른쪽 반렬에는 문관들을 세우고 그옆에 각기 그들이 타는 돌말까지 척 세워놓으면 무덤속의 주인공도 못내 기뻐할겁니다.》

우리 수령님은 이런분이시였다! 수백년전에 력사의 갈피속에 깊이 묻혀버린 동명왕의 충신들까지 찾아내시여 그들의 삶을 빛내여주시는 웅심깊은 도량과 사랑을 지니신분이시다!

우리의 눈앞에는 무덤을 차고 뛰어일어나 말을 타고 달려와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깊이 머리를 숙이는 대 고구려시조왕의 모습이 안겨온다.

뜨거운 걱정속에 소설의 마감부분에 눈길을 돌리는 우리에게는 어버이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다시금 들려온다. 왕릉발굴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하고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고도 왕릉발굴에 동원된 오성국박사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감사를 주시는 수령님, 유물을 보관했던 박로인이며 교원을 하는 그의 손녀에게 장한 일을 했다고 치하하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대했던 천년대국을 일떠세운 민족의 넓이 후

대들에게 이어져 심어지고있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시고 기뻐하시는 수령님.

누가 받아야 할 감사를 누구에게 주시는것이며 누가 받아야 할 치하를 누구에게 하시는것인가.

소설에서는 이와 같은 생활세계의 풍부한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민족에 대한 사랑, 그것은 오늘 우리 인민들에게 뜨겁게 미치는것이며 대대로 이 강토에 살며 이 나라 력사를 빛내여온 아득히 먼 옛날 조상들까지 시대의 영원한 삶을 안겨주시는것이며 우리 민족의 래일을 떠메고나갈 후대들에게까지 가닿은 위대한것임을 절절히 느끼게 하고있다.

이상에서 본것처럼 소설에서는 실재한 력사적 사실을 라렬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활을 여러 각도로 파고들으로써 어버이수령님께서야말로 주체의 력사관에 튼튼히 서시여 선견지명과 천리혜안의 예지로 고구려의 력사를 되찾아주시는 위대한분으로, 애국애족의 리념을 지니시고 민족의 력사를 더욱 빛내이시기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로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이렇게 하여 작품은 독자들에게 커다란 사상정서적 감흥과 여운을 줄수 있게 된것이다.

하여 사람들은 민족에 대한 숭고한 사랑으로 조국 력사를 세계만방에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로고,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새롭게 돌이켜보며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에 심장을 불태운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이룩해놓으신 불멸의 업적과 그이의 위대성에 대하여 더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창작실천에 적극 구현하여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로서 우리 작가들이 시대앞에 지닌 숭고한 혁명적 의리이며 량심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설가의 탐구의 세계에 욕심을 보탠다.

우리는 생활을 더 진지하게 파고들어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했으면, 오성국이나 박로인을 비롯한 인물들의 생활 세계를 파고들어 수령님을 더 진실하게 형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물론 이는 어버이수령님의 품모의 위대성, 업적의 위대함이 우리 독자들에게 주는 끝없는 욕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깊이 연구학습하여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노래를 부른다

김 진

내 태어나 말을 익힐 때
나의 어머니 배워준 첫 노래
내 또한 아이들에게 배워준 첫 노래
《**김일성** 장군의 노래》

어떻게 알았으랴
기쁠 때 부르면 그 노래
더 큰 기쁨으로 가슴부풀게 하고
힘들 때 부르면
새 힘 안겨주던 그 노래
오늘엔 아, 오늘엔
눈물부터 먼저 솟아
눈물속에 부르는 노래될줄을,

노래를 부른다
눈물을 삼키며 노래를 부른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

입술을 감쌀며 불려도
불려도 눈물은 끝이 없고
피눈물의 열사흘 낮과 밤이
다시 흘러 열세번도 더 지났건만
그리움에 목메여 부르는 이 노래

만경대 갈림길에 이어
폭격에 부모 잃은 아이들을 찾아주시며
불빛없는 공장구내 밤길에 이어
비내리는 청산리의 새벽길 헤치시며
아버이 걸으신 사랑의 자옥자옥을 못잊어
오늘도 부르고부르는 노래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아, 짓눌려 설음 많던 우리 인민에게
나라를 찾아주시고

새 삶의 노래 안겨주시고
존엄높은 사회주의조국의 시조 열어주시
인민의 어버이, 민족의 태양!

그 품에서
이국의 쇠돌짐꾼 아들이었던 나도
빛나는 삶을 지냈고
그 노래 부르며
왕진가방 든 나의 안해 출근길에 오르고
아들딸모두가 기사로 교육자로 자랐거니

기쁨과 행복의 상징
그 노래 어찌 머리 흰 나라고 아니 부르며
손주 손녀인들 아니 부르랴
불러 그리는 정 끝이 있으랴

노래를 부른다
아버이 수령님의 생전의 뜻 받들어
위대한 **김정일** 동지 더 높이 모시려
내 나라, 내 조국 더 부강하게 하려
피눈물속에 다진 맹세
영원히 지켜갈 신념으로 부른다

더 높이 부르리
눈물만이 아닌
그리운 정만이 아닌
언제나 마음속에 모시고 받드는
그 일편단심으로,

수령님 가셨다고
꿈에나마 믿지 않아
더 가까이 모시고 더 가까이 뵈고싶어
부르고부르는 노래
세월의 끝까지
조선이 부르며
인류가 부르며 갈
불멸의 이 노래!

크나큰 믿음속에 빛나는 삶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세봉동지에게 안겨주신
높은 신임과 뜨거운 사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당시대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자랑차고 빛나는 시대입니다. 그런것만큼 응당 뛰어난 작가, 뛰어난 작품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작가와 작품은 나라의 지성과 재능을 가능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당의 혁명력사는 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크나큰 신임과 사랑의 서사시로 엮여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적문학예술을 자랑찬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고 작가들을 한품에 안으시어 혁명적이고 능력있는 작가로 키워주시였으며 그들이 훌륭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떠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사랑 속에서 자기 삶을 꽃피운 천세봉동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작가들이 누리는 수령복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가를 보여주는 감동깊은 이야기들가운데 하나로 된다.

×

시대와 력사에는 항상 그 시대에 사는 작가들의 목소리가 울리기마련이다. 력사적사변과 시대적움직임 속에는 극적인 인간생활이 있어 작가의 심장을 강하게 자극하는 법이다. 작가는 그것을 외면하지도 않으며 또 그럴 권리도 없다.

1962년 여름 천세봉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회의, 모임, 보고, 토론, 결론, 사업포치와 총화사업... 이것이 그의 사업의 전부로는 될수 없었다.

사업을 시작한 처음부터 천세봉동지는 동맹위원장은 행정사업에 파묻혀 바빠 돌아갈것이 아니라 창작적모범으로 동맹사업을 이끌어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지금까지 덕지강이 흐르는 고향에서 창작생활을 하던 그가 그곳을 떠나 평양와서 1년만에 쓴것이 장편소설 《고난의 력사》(1부)였다.

그는 이 장편소설을 통하여 당대의 시대적화폭을

펼쳐보이면서 무림이라는 소년의 성장과 우리 농민들이 걸어온 력사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1963년 그해 립동을 앞두고 날씨는 예상외로 퍼그나 추웠다. 이때 천세봉동지는 장편소설 《고난의 력사》(1부) 집필을 끝내였고 작품이 완성되었다는것을 출판사에 알리었다.

바로 이날 오후 천세봉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를 찾으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수령님께서 나를 부르시다니?)

너무도 뜻밖이어서 심장은 몹시 뛰었다. 마음을 진정키 어려웠다.

얼마나 만나뵙고싶던 어버이수령님이신가. 그의 품속에서 지난날 천덕꾸러기의 때를 씻고 사람이 되었고 로동당원이 되었다. 또 것처럼 소원이었던 작가로 자라났다.

천세봉동지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기가 창작생활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걸어온 지난년간을 돌이켜보았다. 그것은 참으로 궁지에 넘친 절음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자신은 흥분과 희열 속에서 줄창 달리고 달리였으며 쉬임없이 쓰고 또 썼던것이다.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것이 1947년 8월 9일부터 9월초에 이르는 기간 평양에서 진행된 문학예술축전이었다.

이 축전에서 그의 단편소설 《새로운 맥박》은 토지개혁후 우리 나라 농촌의 변모된 모습을 새형의 농민형상을 통하여 진실하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입선하였다. 그때 자신은 얼마나 기뻐하였던가.

그때로부터 그는 창작생활에 확고히 들어섰으니 3년동안에 20여편의 단편소설을 창작발표하였던것이다.

미제가 도발한 전쟁으로 하여 그는 삶과 죽음, 사랑과 증오, 기쁨과 괴로움이 무시로 교차되는 극적인 생활을 수없이 체험하게 되었다. 그것으로하여 그는 산 체험을 통하여 알고있는 전쟁생활에 대하여 쓰게 되었다.

전쟁이라는 이 사변은 인간으로서 작가로서의 그의 체험을 비상히 크고 깊이있게 하여주었으며 계급적인 성장과정을 촉진시켰다.

천세봉동지는 고향마을 뒤산 후미진곳에 방공호

검 집필실을 꾸리고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가렬치절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이 완성되어 출판사에 발송되었다.

또한 여기서 중편소설 《흰구름 피는 땅》이 창작되었다.

그는 흠뻑새속에 더 깊이 파문혀 생활하여나갔다.

그는 생활 그자체가 자기의 혈육과 같이 될 때에야만 자신이 든 붓은 그 생활을 옹호하여 열정을 쏟아부을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창작하였다. 이 과정에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1부)이 창작되었다....

흘러간 지난날을 회고할수록 천세봉동지의 마음속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대해같은 은덕이 깊이 흘러들어와서 벅차기만 하였다. 그의 눈앞으로는 덕지강이며 부래산 그리고 바로 얼마전까지 생활하였던 그 농촌고향마을이 또다시 정겹게 우렁이 떠올랐다.

천세봉동지는 당중앙위원회 대기실에 가서도 앉아있지 않고 그저 서성거리기만 하였다. 거기에는 희곡작가와 문화상도 와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뵙고싶던 한생의 숙원이 풀린 감격으로 하여 그의 마음은 몹시 설레이었다.

얼마후 저편쪽 출입문이 확 열리더니 만면에 밝은 웃음을 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어서시었다. 천세봉동지는 그만 눈물이 펴 돌아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게로 다가오시어 천세봉동무는 지상으로서는 잘 알고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고 하시면서 건강이 나쁘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슨 병인가고 물으시었다.

위가 나쁘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위병에는 음식조리를 잘하는것이 첫째가는 치료방법이라고 하시며 그의 얼굴을 다시 살펴보시었다. 이어 그이께서 음식조리를 잘할데 대하여 어찌나 소탈하고도 다정하게 이야기하시는지 천세봉동지는 것처럼 흠모하던 위대한 수령님앞에 앉았다는 생각도 가뭇 잊어버리고 말았다.

얼마후 그들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지금 영화나 연극이 별로 좋은것이 없는데 결함의 근본원인은 혁명적인 소설대작이 없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아가서는 세계혁명을 하여야 하는 우리의 혁명임무수행에서 소설, 연극, 영화가 노는 중요한 인식교양적 역

할과 의의에 대하여 명백히 가르쳐주시었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신께서 중학 시절에 읽으신 고리끼의 《어머니》, 파제예브의 《피멸》, 장광자의 《압록강가에서》 같은 작품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 나라에 대작이 부족하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특히 혁명전통주제의 대작을 쓰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여러번 강조하시었다.

두시간 가까이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말씀은 계속되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원형과 전형화문제, 대작이 담아야 할 역사적화폭문제, 혁명적락관주의에 대한 문제 등 일련의 사상미학적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접견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천세봉동지의 손을 굳게 잡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건강에 주의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받아안고 당중앙위원회 청사를 나서는 천세봉동지는 말할수 없는 감격과 흥분 속에 휩싸였다.

(혁명전통의 거창한 흐름을 폭넓고 깊이있게 대작으로 형상화하여야 한다.)

그는 창작적열정에 끝없이 불타올랐다.

×

1960년대 후반기는 천세봉동지의 문학창작에서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고 말할수 있다. 그때까지 그의 문학은 농민주인공을 전형화하는 문학이였다. 그러나 그는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혁명투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새로운 문학창작을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혁명전통주제의 대작창작으로 방향 전환을 한것이였다.

그러나 그 첫 작품에서 천세봉동지는 큰 실패를 하였으니 그것이 장편소설 《안개흐르는 새 언덕》이였다.

체험의 빈곤과 자료의 부족을 동시에 느끼며 붓대를 멈추고 모대기기도 하면서 허구를 애써 짜낸 끝에 드디어 상하권으로 된 장편소설을 출판에 회부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66년 1월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어느 휴양소의 응접실에서 그를 만나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

의 손을 잡으시고 건강이 어떠냐고 물으시었다. 이제는 몸이 펴 좋아졌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아버이 수령님께서서는 할일이 많은데 건강해야 한다고 하시며 의자에 앉으라고 말씀하시었다.

그가 혁명투사의 생애를 그린 상하권의 장편소설을 써서 출판에 넘겼다는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못내 대견해하시며 출판되어나오면 자신께서 꼭 읽으시겠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장편소설도 하나 써내고 몸도 좋아진듯싶으니 자신께서는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창작을 하는 일이 수월한 일이 아니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에서 혁명문학을 창조하는 문제가 중요하기때문에 동무들을 불렀다고 하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혁명문학을 하자면 혁명가를 알고 혁명의 간고성과 그 우여곡절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혁명소설을 쓰는데 도움이 될 혁명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께서 겪으신 일들을 이야기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사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매우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계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휴식을 결정하고 얼마간만이라도 쉬도록 하였는데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이 안고온 중요한 문제들에 일일이 결론하시였을뿐 아니라 천세봉동지와 당력사연구소 일군들을 부르시어 이처럼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것이였다.

그날로부터 17일간,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하루 세네시간씩 어떤 날은 다섯여섯시간씩 틈을 내시어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더듬으시며 말씀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소설창작에서는 반드시 혁명가의 세계관형성과정을 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여야만 작품자체의 사상성도 높아지고 예술성도 깊어진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오중흥동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가란 보통사람들이 발전해서 혁명가로 되는것이라고 하시며 바로 이런 사람들의 발전과정을 소설로 쓰면 좋은 소설로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작가는 혁명가를 깊이 알고 그것을 체험으로 느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었다.

천세봉동지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올랐다.

이해 겨울날씨는 혹한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매일 아침 산보를 하시면서 많은것을 생각하시였고 감회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것이

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하시는 고난의 행군에 대한 말씀은 천세봉동지로 하여금 실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그의 머리속에는 세찬 눈보라를 헤쳐나가며 적을 때려부시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이 우렁이 그대로 눈앞에 떠올라서 강한 창작적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혁명가란 인간성이 가장 풍부한 사람들이며 진정한 사람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사람이 인간성이 없다면 무슨 사람이랄수 있겠는가 하고 하시면서 혁명가란 누구보다도 인간성이 제일 많고 풍부한 사람들이였다고 하시였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있는 동지애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천세봉동지의 가슴에 힘있게 울려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반 《민생단》 투쟁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이야기들과 마안산에서 벌여졌던 혈투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들려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하시는 귀중한 말씀은 천세봉동지의 가슴을 파고들며 의미심장하고도 절절하게 울려왔다.

마지막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이란 인간을 그리는 일인데 어차피 인간을 그려야 하겠지만 어떤 인간을 그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진정한 혁명가를 그려야 조선혁명에 이바지할수 있는 혁명문학을 창조할수 있을것이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받고 돌아온 천세봉동지는 줄곧 흥분에 잠겨있었다. 그 어떤 장엄한 생활을 몸으로 체험하고 나온듯한 느낌이였다. 한편 그는 자기가 창작한 작품을 두고 우울한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출판에 넘겼던 장편소설 《안개흐르는 새 언덕》이 상하권책으로 되어나오자 그러한 생각은 더 심하여졌다. 출판된 책을 받아놓은 그는 기쁘기도 하고 불안스럽기도 하였다.

(이 책이 아버이수령님께 만족을 드릴수 있게 창작되었는가!)

그러던 어느날 한 일군이 전화로 만나자고 하여 천세봉동지는 그 일군에게로 갔다. 그의 책상우에는 천세봉동지가 쓴 장편소설 《안개흐르는 새 언덕》이 놓여있었다.

그 일군은 방금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왔다고 하면서 천세봉동지에게 자리를 권하였다. 그의 얼굴은 몹시 흐려져있었다. 그러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천세봉동무가 이렇게 작품을 쓸 동무로는 믿지 않았는데 생각하던바와는 달랐다고 하시며 작품의 결함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던것이다.

천세봉동지는 그만 머리를 떨어뜨렸다. 눈앞의 모든것이 뒤흔들거리였다.

그 일군의 말은 계속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여기에 그려진 혁명가를 어떻게 조선의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중에는 이런 활패가 한사람도 없었다고 하시며 이 작품에서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외곡되고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이 잘못 반영되였다는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보통사람들이 혁명화되어가는 세계관형성과정을 그리라고 하였는데 왜 이렇게 타고난 혁명가를 그렸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중산계급은 그렇게 모독했는지 매우 안타까와하시였다고 하였다.

이때 천세봉동지의 머리를 치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으니 그것은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내놓은 로선이 무엇이었던가 하는것이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시기부터 모든 애국적 반일력량을 단합시키는 통일전선정책을 실시하신 것이였고 그 로선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는것이였다.

얼마후 그 일군의 방에서 나온 천세봉동지는 머리를 떨군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리에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으니 그것은 몇해전 모란봉극장 휴게실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던 일이었다. 그때 장편소설 《대하는 흐른다》가 연극으로 각색되어 극장무대에서 공연되고있었다.

연극을 친히 보아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참 좋은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계급투쟁은 이렇게 날카로와야 한다고 더없이 만족해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즐겁게 웃으시며 한 운명으로 결합되지 못한 마영기와 배명희의 장래를 어떻게 하겠는가고 물으시면서 그를 정겹게 바라보시였다. 천세봉동지가 미처 대답을 드리지 못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의미깊은 미소를 지으시며 마영기는 마영기대로 발전시키고 명희는 명희대로 발전시키는것이 어떤가고 하시였다.

천세봉동지가 두손을 마주쥐고 몹시 좋아하는것

을 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황서방이야 2부에서 38선을 넘어 돌아오겠지 하시면서 크게 웃으시였다.

참으로 분에 넘치는 이 말씀속에는 작가를 아끼는 뜨거운 사랑과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고무가 담겨져있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천세봉동지는 이날밤 가슴을 틀어쥐고 앉아서 새웠다.

그후 천세봉동지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작품의 결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말씀을 전달받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작가가 나쁜 사람이여서 우리 혁명을 모독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그렇게 쓴것은 아니며 당 정책과 로선을 연구하지 않고 혁명의 원리를 모르며 또 자신을 혁명화하지 못했기때문에 이런 작품을 쓴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천세봉동지가 후에 안 일이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장편소설 《안개흐르는 새 언덕》을 각색한 영화를 두차례나 보시면서 고칠 방도를 생각하시였다. 그러시다가 천세봉동지가 작품의 결함을 접수하고 개작할 용의를 가지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천세봉이 대가는 대가다, 빈둥출신의 작가가 다르다고 몹시 기뻐하시였다는것이다.

천세봉동지는 자신의 창작생활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할수록 혁명가를 그리는 작가는 혁명투사의 사상정신세계를 깊이 알고 붓을 들어야 한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천세봉동지가 범한 결함은 일부 작가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이기도 하였다.

모든 작가들은 자기의 창작활동을 냉정하게 돌이켜보았고 비판을 벌렸다.

한창 회의를 진행하고있을 때 작가와 작품을 아끼라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뜻깊은 교시가 전달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장편소설 〈안개흐르는 새 언덕〉과 영화문학 〈어둠을 뚫고〉를 쓴 작가들은 다 당에서 키워왔고 또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비판하고 교양하여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빨리 고치고 일을 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천세봉동지는 말할수 없는 걱정으로 하여 가슴을 들먹이였다. 자신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인생을 되찾게 되였으며 작가가 되고 전설처럼 들어오던 그이의 몸가까이에서 지도를 받으며 글을

쓰고있는 그 행복감이 더더욱 가슴 사무치게 안겨 왔다.

행복이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데 있으랴 싶어 마음을 진정치 못했다.

그러던 1987년 여름 어느날 천세봉동지는 천만 뜻밖에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만나뵙게 되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천세봉동지를 보시고 왜 그렇게 수척해졌는가 하고 하시면서 장편소설 《안개흐르는 새 언덕》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도록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절대로 의기소침하거나 힘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하시였다.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은 이제부터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천세봉동지는 눈물이 고인 눈을 들어 그이를 우러러 바라보았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힘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활개를 펴고 일해보자고 고무격려하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모시게 된것은 우리 문학에서 다시없는 영광이었으며 붓을 든 모든 작가들의 크나큰 영예이고 공지였다.

우리 나라의 문단은 새로운 양양의 길로 힘차게 출발음쳐 내달리게 되었으며 충성의 열도를 안고 쉬임없이 뚫어번지게 되었다.

이 영광의 길에서 천세봉동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문학건설사상을 더욱 철저히 인식하게 되었으며 충성의 한길을 힘차고도 활기있게 걸어나갈수 있었다.

천세봉동지가 받아안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하는 과정에 우리는 그가 자기의 창작생활을 회고하면서 남긴 글을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여져있었다.

《너무도 많은 〈빛〉이 나에게 남아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영기와 배명희를 아직 그냥두고있습니다. 서울로 간 황서방을 아직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또 무림이를 인생길에 출발시킨채 그의 장래를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독자들에게 진 〈빛〉입니다. 또 나 자신이 창작계획과 욕망을 다 실현시키지 못한 마음속의 빛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청산리이야기도 쓰고싶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시게 된 때까지의 이야기를 꼭 쓰고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모자라고 연소시킬 육체도 없는것이 오늘의 나이고보면 나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지금 나는 고향으로 가고싶습니다. 거기서 다시 태어나 내가 작품에서 달래강, 금사강, 비룡강이라고 부른 덕지강가에서 그리고 마을앞으로 흐르는 석개울에서 개버들가지를 들추며 버들치도 잡고 부채산꼭대기에 올라가 저 멀리 바다도 보고싶었습니다. 그 옛고장, 그 아득한 시절이 아니라 오늘의 내 고향, 내 청춘이 거기서 다시 시작된다면 나는 나의 한생을 보람차게 해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위하여 더 많은 글을 마음껏 쓰고 또 쓸것입니다.

사실 나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믿음과 사랑 속에서 한생을 보낸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혁명전사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하여 가슴을 찡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그 품에서 개화하는 우리 문학운동에는 재능있고 명성높은 새 작가들이 더 많이 등장하리라것을 믿입니다. 나는 그들이 부럽습니다.…」

천세봉동지가 남긴 이 글을 보면서 우리는 혁명전사들이 받아안은 당과 수령이 베푸는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다하자면 참으로 끝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문학이라는 수월치 않은 세계에서 한생을 살아온 천세봉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각별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속에서 성장한 작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가르쳐주신것처럼 수령의 옳은 지도를 받는 작가와 작품은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한다.

우리 인민의 운명이시고 민족만대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높은 신임과 크나큰 사랑속에서 문학창작으로 한생을 보내여온 천세봉동지의 삶은 영원하며 찬란히 빛나는것이다.

본사기자 리상복

산수 좋은곳에 잠시라도 외 1편

김 영

우리 당 중앙위원회에
집행되지 못하고있는
당정치국 결정서가 있노라

내 지금토록 당표를 지니고
무수한 세월 관철 못하는
우리 당 결정서

당이 결심하면
만사 다 성취되고
수백만 당원들 손을 들어 결정하면
천하도 움직였건만
이 결정만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휴양을 보장할데 대하여
...

인민의 뜻이면
그 많은 당결정 세워 다 집행하시면서
최고사령관 명령도 주시며
어이하어 **김정일**동지이시여
인민의 이 의사는 밀어놓으시나이까

아노라
온 생 인민을 받드시기에
위대한 그 심장을 다 태우시는걸
인민때문에 눈물도 많으시고

인민때문에 기쁨도 있으신
그 인덕의 바다여!

내 아노라
인민의 총복
이는 그분의 호흡
그분의 열망
그분의 철학이거니
내 일을 더 하련다
인민을 위한 많은 일을
그것만이 당결정을 집행하는 길
그이의 휴양을 보장하는것이거늘

아, 수령님을 잃은 우리
경애하는 그이만은 부디 아껴 모시고파
온밤 잠못 이루는데
오늘도 그이 타신 인민행 밤렬차여
삼가 고요속에 달리라
산수 좋은곳에 잠시라도 멈춰서라

당원들이여
동시대사람들이여
그대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한다 하라
그리고 큰 공훈을 세웠다 하라
허나 잊지 마시라

우리 집행 못하고있는
당결정서가 있음을!

인생의 마루

여기에
인간이 어떻게 살라고
해설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는 살줄을 알아서
고이 백발을 엮고간 사람이 없다
여기엔 살줄을 몰라서
짧게 산 그런 인생도 없더라

빼앗긴 나라를 찾자고
자유를 찾자고
이름도 모를 초야
광막한 천지에
열혈의 청춘을 뿌리였나니

여기에
그처럼 바라던 해방된 조국에

시신이 되어온 렬사는 얼마드뇨
한점의 혈육, 뼈 한조각 못남기고
이름만 온 렬사는 또 얼마이더냐

우리 사는 오늘
후손들이 살 먼먼 래일까지 위해
천신만고한 투사들
허나 오늘을 못보고 떠나간
주작봉의 렬사들
우리 혁명의 1세여

태양을 받들어
사상을 지켜
절개를 지켜
충의를 지키고 간 항일의 영웅전사들!

그대들 군상을 우러르노라면
고난의 행군 헤쳐가던 그날의 대오
잠시 여기에 멈춰선듯
오늘도 장군님노래 부르며
당의 위업 받들어 기발되어 나가거니

오, 주작봉마루
충신의 대오여

한단 또 한단 총계를 오르며
내 살아온 생, 살아갈 생을 두고
생각에 젖는구나
자기의 수령, 자기 당에
충의를 다한 인생이란 이렇게 아름다운가
인간 아름다움의 절정-주작봉
한생을 두고 우리 올라야 할
인생의 마루여!

오 오-
수수천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의 진리를 묵묵히 새겨주는
혁명렬사릉
인생의 영원한 교단이어!

여기에
인간이 어떻게 살라고
해설하는 사람이 없다

가 사

혁명의 총대로 결사옹위하리라

안근배

혁명의 총대를 틀어잡을 때
가슴에 새긴것 무엇이던가
김정일장군님 결사옹위할
병사의 불타는 맹세였네
아 혁명의 총대 더 굳게 틀어잡고
장군님을 옹위하는 결사대 되리라

혁명의 사령부 지켜온 총대
오늘은 우리가 이어받았네
김정일장군님 결사옹위해

순간도 이 총대 놓지 않으리
아 혁명의 총대 더 굳게 틀어잡고
장군님을 옹위하는 결사대 되리라

장군님 위하여 총대가 있고
총잡은 병사의 영광도 있네
김정일장군님 결사옹위해
청춘도 생명도 바쳐가리라
아 혁명의 총대 더 굳게 틀어잡고
장군님을 옹위하는 결사대 되리라

기쁨중의 기쁨

영광과 랑만으로 충만된 혁명가들의 생활이 그러 한 것처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나날에도 기쁨과 행복스러운 일이 많다.

하지만 이런 기쁨, 저런 기쁨 하여도 그이께서 제일 크게 느끼시는 기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족해하실 때이다.

1967년 4월 21일이였다.

이날 어느 한 기업소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고 밤늦어 댁으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에 들어서기바쁘게 일군들에게 전화를 거시였다.

여러 일군들에게 현지지도과정에 보고 느끼신 문제들을 놓고 하나하나 분석하시며 사업실태를 료해도 하시고 과업도 주시느라고 수령님께서는 이밤따라 유별히 오래도록 통화를 하시였다.

10분, 20분... 시간이 퍼그나 지나도록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송수화기를 놓을줄 모르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하는 일군이 방밖에서 수령님께서 전화를 마치실 때를 이제나저제나 하고 기다리고있는데 친애하는 그이께서 조용히 다가오시였다.

《수령님께서 밤이 깊었는데 쉬지 않으시고 전화를 계속하고계십니다.

전화로 말씀을 시작하신지 벌써 30분이나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낮은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약간 열려있는 문사이로 방안을 들여다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통화를 시작하신 때로부터 시간을 재해보시다가 현지도로 피로하신 수령님께서 너무 오래도록 사업하시는것 같아 이렇게 복도에 나오시여 근심스러운 눈길로 방안을 들여다보시는것이였다.

방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전히 송수화기를 들고계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송수화기를 자주 이손저손에 바꾸어드시며 말씀을 하시고 몇자씩 받아적기도 하시였는데 그러시는것이 여간만 불편스러워보이지 않았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에게 수령님께서 얼마나 피로하시면 저렇게 불편스럽게 송수화기를 자주 바꾸어드시며 전화를 하시겠는가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였다.

《동무는 여기에 있다가 수령님께서 전화를 끝내시면 밤이 깊었는데 빨리 주무시는것이 좋겠다

고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는 자신의 방으로 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화는 그때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서야 끝났다.

다음날 아침이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 일군을 부르시더니 어느 한 방으로 데리고가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방에 놓여있는 전화기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였다.

《이리 와서 송수화기를 들어보시오.》

《?!...》

일군은 잠시 멍멍했다가 영문을 모른채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어떻습니까. 송수화기가 무겁지 않습니까?》

일군은 송수화기가 좀 묵직한듯했지만 그보다 가벼운 전화기를 본 일이 없어서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 전화기는 수령님의 방에 있는 전화기와 꼭 같은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이 무거운 송수화기를 드시고 오랜시간 전화를 하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수령님방에 있는 전화기를 가볍고 보기 좋은것으로 당장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였구나!)

그 순간 일군이 받아안은 충격은 참으로 컸다.

일군이 뭐라 말할수 없는 격동에 휩싸여있는데 그이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수령님을 모시는데서 이런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왜 깊은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있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하시며 당장 대책을 취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이리하여 전화기는 그날로 가벼운것으로 교체되였다.

그날저녁 댁으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방에 뜻밖에도 새 전화기가 놓여있는것을 보시고 밝은 안색을 지으시며 손수 송수화기를 들어 무게를 가늠해보시더니 감속해서 쓰기 좋겠다고 여간만 만족해하지 않으시였다.

그러시면서 새 전화기가 어떻게 생겼는가고 곁에 있던 일군에게 물으시였다.

일군이 전화기가 교체되게 된 사연을 말씀드리자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잠시후 방안을 나온 일군은 복도를 지나가다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는곳에 들렀다.

《...수령님께서 새 전화기를 써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궁금하신듯 서둘러 물어보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더없이 기뻐하시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격동된 심정을 누르지 못하시며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 새로 놓은 전화기를 써보시고 송수화기가 가볍고 말도 잘 들려 좋다고 하시면서 매우 만족해하시었다니 나도 기쁩니다.》

그러시고는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은 수령님의 전사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때보다 더 기쁜때가 어디 있겠는가고 하시며 말이라도 있으면 한 천리 내달려보겠는데 말이 없으니 뽕수육이라도 해야 후더운 가슴을 진정할것 같다고 하시었다.

얼마나 기쁨이 크시면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까지 표현하시겠는가.

경애하는 그이께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기쁨은 곧 자신의 기쁨이며 기쁨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두고는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며 어찌다 빗다른 음식이 생겨도 드시지 못하신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닭고기이야기》가 그 하나의 실례이다.

1968년 10월 1일 저녁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생활하는 한 일군은 이날 그이의 저녁상에 훈제한 닭고기를 올려놓으려고 하였다.

늘 검소한 식사를 하시는 그이께 어찌다 한번 대접해드리려는 별식이였다.

하지만 이 기미를 아신 그이께서는 그것을 들지 못하겠다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천닭공장을 현지도하시고 돌아오시면서 인민들에게 닭고기와 닭알을 넉넉히 공급하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심려하시었다고, 수령님께서 특히 평안남도에서 탄광, 광산, 제강소를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고기와 알을 풍족하게 보내주지 못하는것을 생각하면 잠도 안오고 밥맛도 없다고 말씀하시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수령님께서 평안남도안의 로동계급이 닭알과 닭고기를 넉넉히 먹게 되기전에는 자신께서도 닭고기를 잡수시지 않겠다고 하시었는데 내가 어떻게 닭고기를 먹겠는가고, 이제부터 닭공

장에 자주 나가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끌어주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었다.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전에는 닭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입에 넣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그이께서는 식탁에 닭고기를 비롯하여 색다른것을 일체 올리지 못하게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다음날부터 품을 들여 전국의 여러 닭공장들과 오리공장들의 사업을 보살피시었다.

그이께서는 친히 개천닭공장을 찾으시고 먹이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었고 성천, 강서 지구 닭공장과 은산지구 오리공장 건설을 빨리 끝내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도 몸소 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의 보살핌에 의하여 평안남도안의 닭공장들과 오리공장들에서는 1969년 정초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점심시간이었다.

점심상에 마주앉으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상에 오른 닭고기훈제를 보시고 한 일군에게 오늘따라 웬 닭고기인가고 물으시었다.

그 일군은 상에 닭고기를 올리게 된 사연을 자조지중 말씀드렸다.

우리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을 먹이시기 위해 전국의 이르는곳마다에 현대적인 닭공장들과 오리공장들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즈음 매도별, 공장별로 하루 고기 및 알 생산량을 일보로 직접 보고받으시며 생산을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계시었다.

그러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 아침 일군들을 부르시고는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방금 받으신 일보에 의하면 평안남도안의 닭공장과 오리공장들에서 마침내 알생산을 정상수준으로 끌어올렸던것이다.

로동계급이 많은 평안남도에서 고기와 알이 제대로 나오게 되었으니 한시름 덜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다가 한 일군을 가까이 부르시었다.

그러시고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성함을 외우시며 그가 나의 근심을 덜어주려고 평안남도안의 여러 닭공장과 오리공장들의 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해 수태 애를 썼는데 오늘같이 기쁜 날에 나도 오래간만에 닭고기맛을 보겠으니 그의 상에도 잊지 말고 닭고기를 올리라고 이르시었던것이다.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께서는 것처럼 기뻐하시니 자신께서도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닭고기를 맛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오랜간만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드시였다.

경애하는 그이는 일상생활이 바로 이러한분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거나 걱정하시는 문제를 풀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며 그 길에서 자신의 최대의 기쁨과 보람을 찾으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다 좋은 옷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소원을 헤아리시고 옷을 마련하시여 전국의 수백만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한낱한시에 공급하도록 하신 이야기며, 새옷을 입은 아이들을 보시고 내 일생에 오늘과 같이 기쁜날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더없이 기뻐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시며 그이께서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

쁜 날이라고 하셨다는 이야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제사업을 두고 심려하실 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70일전투》를 발기하시고 몸소 진두에서 지휘하시여 사회주의대전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심으로써 수령님께 만족을 드리시고 거기에서 한없는 기쁨을 느끼신 이야기며, 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현대적인 살림집과 최상급의 문화보건후생시설들을 안겨주지 못한것을 두고 마음쓰실 때 그이께서 락원거리와 문수거리, 창광거리, 평양산원과 창광원, 빙상관과 인민대학습당 등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게 하시여 수령님께 더없는 기쁨을 드리시고 거기에서 삶의 보람과 최대의 희열을 느끼시였다는 이야기...

이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그이께서 느끼시는 가장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신 기쁨속에서 찾으시는 기쁨!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대의 기쁨, 기쁨중의 기쁨인것이다.

조 선

아이자이아 쿼오 모리슨

보라
조선을 보라
오 평양을 보라
그러면 알게 되리
나라의 방방곡곡에 깃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업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빛나는 자욱을
보라
조선보다
평양보다 더 아름답고 경치좋은곳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으랴

오랜 력사의 땅
평양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웅장화려하게 변모되어

처음 보는 사람들 놀라게 하네

보라
조선을 보라
매력적인 나라
유산으로 빛나는 나라
아름다운 인민의 나라
찬란한 문화의 나라
정녕 이런 나라 더는 없으랴

오,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사계절의 나라
구름처럼 찾아오는 사람들 마음속에
잊을수 없는 추억을 주는 나라
성대한 명절이 가득찬 나라
조선은 배움의 나라여라
놀리 살고싶은 정다운 나라여라

(필자는 가나시인임)

나의 심장, 나의 총대 외 1 편

림종근

갈대숲 설레이는 최전연초소
전호가에 총잡고 섰노라니
군복깃을 흔들며 불어오는 한줄기 바람결도
높뛰는 이 가슴에 새겨주누나
장군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라신
아버이수령님의 그 유혼

밀려오는 온갖 광풍
백두산바람으로 밀어내시며
주체의 궤도우로 혁명을 전진시켜
조국번영의 전성기를 안아오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

그이의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내 천길물속 만길불속을 주저하랴
장군님 만세 높이
죽음도 웃으며 맞받아 뚫고나갈
신념의 굳은 맹세로
끓는 피는 더욱 끓어라

선렬들의 붉은 피가
병사의 이 가슴에 흘러든다
그네들의 뜨거운 숨결이
내 심장의 박동을 더해주며
충성의 한길로 나를 떠밀어준다

아, 우리의 **김정일** 장군님
정녕 그이를 옹호보위하기 위해
나의 목숨이 있고 총대가 있는게 아니냐
그이께서 이끄시는

당과 조국, 혁명을 보위하기 위해
이 땅에 병사가 있는게 아니냐

그렇다
아버이수령님의 유혼을 받들어
이 한몸이 그대로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져도 끄떡없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어
장군님을 영원히
결사옹호보위하려니

내 높낮은 산발을 주름잡으며
훈련의 더운 땀을 흘리여도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실
충성의 한마음을 이 땅에 새기고

초소의 한밤을 지새울 때도
장군님의 안녕을 지켜선 나의 눈동자
태양을 옹위하여 도는 위성과 같이
폭풍이 밀려오고 번개가 날뛰여도
언제나 맑게만 빛나리라

머리위에 불비가 쏟아지고
가슴에 칼날이 날아들어도
김정일 장군님을 보위하여 선
나의 심장, 나의 총대 흔들릴소냐
아, 장군님 위해 총폭탄이 될
병사의 신념 변함이 없으리라
영원히 영원히...

고향땅을 지나며

렬차여 좀 천천히 천천히...
차창밖 저기 양지마을이
나의 어린 시절이 덩구는 고향이다
30년전에 떠났던 산천 다시 보니
반가움에 눈물이 앞선다

근무의 한밤에도 훈련의 한낮에도

눈에 삼삼하던 마을이여 들어여
아, 가방 들고 훌쩍 뛰어내려
아이때처럼 풀승구리를 헤치고
해종일 내가에서 물장구도 치고싶다

기나긴 복무의 나날 언제나
이 가슴속에 찾아와 힘을 더해주던

우리 말, 우리 글을 익힌 정다운 모교여
이 땅, 이 체도의 고마움도 알았고
미국놈 폭격에 숨진 아버지를 부르며
분노의 증오도 키운 고향산천이여

진정 조국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그것을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고향이여 너는 내 심장깊이 심어주었기에
내 어디 가도 너를 못잊고
네 품에서 익힌 사투리
지금도 말끝마다 튀어나오는게 아닌가

진정 고향은
삶과 행복을 주고 미래를 꽃피워주는
조국의 품 장군님의 품이기에
이 나라 전사들 너를 위해

청춘의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웠고
묘비엔 피흘린 고지와 함께
나서자란 고향의 주소 새기는게 아닌가

고향이여 너는 우물집 막내를
조국의 아들 장군님의 전사로 키워
걸음걸음 위훈의 언덕으로 떠밀어주었지만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준것이 없거니
에-이 가슴의 훈장이라도 꼭 떼어
너에게 모두 달아주고싶다

내 즐거운 추억에 잠겨있는 사이에
아쉽게도 고향땅은 저 멀리로 사라졌으나
한생을 장군님의 전사로 충성다하라
뜨겁게 속삭이며 따라오고 마주온다
이 마음속에 더욱 가깝게 다가온다
아, 죽어도 못잊을 고향이여

네가 부럽구나 병사여

박호범

네가 부럽구나 병사여
락동강 피의 격랑을 넘어온 나건만
오늘은 병사여 네가 부러웁구나
한겨울에도 철철
통라도 모래기슭에 땀을 뿌리는
그 젊음이
가슴에 넘치는 그 끓는 피가

누구든 병사시절을 시작할 때면
조국앞에 용맹하리라
나 죽어 조국을 살리는 그런 때가 오면
조국산야에 젊음을 뿌리리라는
이 나라 누구나의 그 각오
오늘은 병사여 네가
백열전의 용사마냥 온 강변에 펼쳐가고있구나

너를 보니 병사여
자고 일면 초소로 떠나는 막내를 곁에 눕히고
한밤중에도 일어나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나는 이 나라의 평범한 아버지 전쟁을 치른 로병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여서 인정의 눈물도 많은가
너의 눈섭에 불린 성에초차
내 입김으로 녹여주고싶구나

내 오늘도 조국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그런것이 있다면
그것은 1211고지를 지켜냈다는 그것
병사여 그대는 대동강 아름다운 기슭에
다리를 건설했다는 그것
청춘의 날에 두어깨로 떠받들어올린 다리우로
조국의 력사가 굽이쳐 흘러간다는 그것

내 젊은 날에 피젖은 손에 거머쥔 시가의 총창
오늘은 그 붓에 너의 땀을 찍나니
병사여 너와 나 소리합쳐 노래하자
조국수호도 피와 땀으로 이루어지지만
조국의 기념비건설도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노래하자 피도 젊은 날의 피가
제일 붉고 제일 불타고 제일 값있다는것을

정일봉에 별들이 새겨진 이야기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여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충성의 마음은 용암처럼 뜨겁고 백두산의 흰눈처럼 깨끗하고 순결한것이다.

정일봉벽에 아로새긴 불멸의 글발은 그이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원히 따르려는 우리 인민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정화이다.

해발 1,700여메터나 되는 높은 산의 중간에다 《정일봉》이라는 글발을 어떻게 새겼을가? 보면 볼수록 신기한 생각이 든다.

더우기 《정일봉》 글발에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와 보는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하니 그것 또한 신비롭기만 하다.

하늘의 못벌을 따다가 박았을가? 천궁의 옥돌을 가져다 글을 새겼을가?

이 글발은 새겨진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속에서는 여러가지 전설들이 창조되어 전해지고있다.

어느해인가 아메리카에 사는 한 해외동포로인은 백두산밀영을 돌아보고나서 안내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지나해에 조국에 왔다간 나의 한 친구가 백두산밀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일봉〉에 새겨진 저 글자와 관련한 흥미있는 전설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와보니 너무도 황홀하고 숭엄하여 그 전설이 사실처럼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해외동포로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천하제일봉인 《정일봉》에 불멸의 글발이 새겨지기 몇해전 어느 여름에 있는 일이라고 한다. 세상이 좁다하게 돌아치던 《태풍13호》가 백두산밀영근방에 잘못 접어들었다가 갑자기 나타난 구름한테 물리어 사라져버린 그 다음날이었다.

언제나 조용하던 하늘나라 천궁은 급기야 호출장을 받고오는 천관들로 벽적 뚫었다.

《무슨 일이 생겼대우?》

늦잠을 자다가 아침도 못먹고 나온 눈비를 다스린다는 뚱뚱보 천관이 불부은 소리로 날씬하게 생긴 안개를 말은 천관에게 물었다.

뒤미처 따라들어오던 밤과 낮을 다스린다는 빛을

말은 천관도 동감이라든듯이 안개말은 천관을 바라보았다.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그중 젊었으나 소문잡기로 천궁에서 손꼽히는 안개를 말은 천관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모여앉은 천관들은 저마다 제 생각을 내놓으며 갑자기 모이게 된 까닭을 알아맞춰보려고 법석 떠들어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람을 말은 천관만은 이들의 이야기에 끼여들지 않고 머리를 수그린채 한쪽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좌우간 이렇게 갑자기 호출장이 내린것을 보면 분명히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것만은 사실이었다.

천관들이 의문을 풀지 못한채 제자리를 차지하자 한밤을 꼬박 새웠는지 눈이 벌개진 하늘나라 왕은 전에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급히 걸어나왔다.

천관들이 머리를 조아렸건만 하늘나라왕은 그만 하라는 말도 없이 제혼자 옥좌에 털썩 주저앉더니 다짜고짜로 바람을 말은 천관을 불렀다.

《바람을 말은 천관, 그대의 수하장수 〈태풍13〉이 어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하는고?》

성이 난 눈으로 쏘아보며 울렀다메는 왕앞에서 바람을 말은 천관의 얼굴은 대변에 새까매졌다.

《알고있소이다. 태평양상에 자리잡고있던 〈태풍13〉 장수가 제멋대로 떠돌아다니다가 광명성성지에 큰 손상을 입힐뻔했소이다.》

바람을 말은 천관의 대답을 듣고서야 갑자기 모이게 된 까닭을 알게 된 천궁의 천관들은 저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래 그대는 그 죄를 어떻게 다스렸는고?》

왕이 다시금 다우쳐들자 바람을 말은 천관은 얼굴을 반쯤 들어 눈치를 살피다가 조심히 대답하였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태풍13〉 장수가 저지른 행동은 용서받을수 없이 큰 죄이옵니다.

인간세상에 내려가 행동을 삼가함이 없었으니 이는 가히 자신의 수양이 얕음을 말해주는것이온즉 저의 잘못인줄로 아옵니다. 그러나 이번에 〈태풍13〉 장수가 큰일을 저지를뻔한것은 그가 아직까지 광명성성지를 톱톡히 모르고있는데서 온것이옵니다

다. 그래서…》

《뭘, 뭘라고? 아직까지 광명성성지를 모르고있었다고?》

바람을 맡은 천관의 천만뜻밖의 대답에 깜짝 놀란 왕은 저도 모르게 버럭 고함을 질렀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을고.

오늘의 인간세상을 밝히는 광명성이기에 우리가 그 성지를 천상천하 제일강산에 정한것인데 천궁의 장수라는게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고있다니 이게 어디 될 말이나.

그래가지고야 어떻게 우리가 인간세상을 위해 일할수 있겠는고?!…》

왕의 고함소리에 천궁의 천관들은 저마다 머리를 깊숙이 숙이었다.

한것은 자기 수하에도 아직 광명성성지를 똑바로 모르고있는 장수들이 더러 있었기때문이었다.

《저희들이 정말 잘못하였소이다.》

천궁의 천관들이 입을 모아 잘못을 빌자 왕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한탄조로 말하였다.

《잘못으로 따지면 그대들보다 내 잘못이 더 크다.

내 일찌기 그대들에게 오늘의 인간세상에 광명성이 있어 빛이 있고 광명성의 뜻대로 세상만물이 움직인다는것을 똑똑히 가르쳐주었다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왕의 말이 끝나자 모든 천관들은 일제히 《황송하옵니다.》 하며 머리를 숙이었다.

《이제와서 잘못이나 따져 무얼 하겠느냐? 우리가 광명성성지를 천상천하 제일강산에 점지한이래 해마다 그곳에 먼저 봄우뢰를 터치게 하고 오색령룡한 무지개를 걸어놓아 만물이 소생하는 봄소식을 제일선참 알리지 않았느냐. 어찌 그뿐이겠는고? 백두광명성성지가 것처럼 귀하길래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들과 진귀한 새들을 다 불러들이어 인간세상의 일만경치를 한데 묶어놓았던것이다.

그런데도 광명성성지를 가려볼줄 모르니 앞으로 그 <태풍13> 과 같은 장수가 또 생길지 누가 알겠느냐?

어떻게 하면 언제 어디에서도 광명성성지를 쉽게 가려볼수 있게 하여 다시는 그런 망동이 없도록 하겠는고… 이게 실로 큰 근심이로다.》

왕의 긴 한숨소리가 궁안에 울리자 <태풍13>의 잘못을 다스리려던 천관들의 모임은 저절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광명성성지를 똑똑히 볼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토의로 넘어갔다.

천관들은 저저마다 눈을 슴벅이며 생각을 공굴리듯하였으나 선뜻 떠오르는 묘안이 없었다.

이러는 가운데 그래도 제일먼저 일어난것은 그중

나이가 많아 천관들의 좌상노릇을 하고있는 빛을 맡은 천관이였다.

《원래 광명성성지를 온 세상에 뚜렷이 밝히는것은 세상만물에 빛을 주는 소신의 임무입니다.

만약 상감께서 이 중임을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천상천하 대의에 어긋나지 않게 해보겠소이다.》

해와 달을 거느리고 낮과 밤을 다스리는 빛을 맡은 천관이 깊은 자책을 느끼며 말하자 왕은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래 그대에겐 무슨 수가 있는고?》

빛을 맡은 천관은 심중한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대답을 올렸다.

《저희들은 세상에 달의 그림자를 던지여 낮을 밤처럼 만들수 있나이다.

이것을 인간세상에서는 일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천궁의 왕은 다우쳐물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재간을 가지고 광명성성지 주변을 어둡게 만들면 온 천하가 쉽게 성지를 알아볼수 있을줄로 압니다.》

그제야 짐작이 가는지 왕은 얼굴에 주름살을 펴면서 다시 물었다.

《그것참 그럴듯하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수 있겠는고?…》

왕의 만족한 얼굴에서 용기를 얻은 빛을 맡은 천관은 손가락을 폈다뽀얏다 하더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지금은 일식과 월식이 금방 지나갔으므로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빛을 맡은 천관의 말에 왕은 펄쩍 뛰었다.

《뭣이? 이제 또 일년을 기다려야 한다구? 절대 그럴수 없노라. 이제 생각해보니 그 일식이라는데 한순간에 지나지 않거늘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아무때건 성지를 가려볼수 있겠느냐.》

듣고보니 왕의 말이 백번 옳았다.

그리하여 빛을 맡은 천관은 얼굴에 부끄러움을 띄우고 그자리에 앉고말았다.

그러자 물을 맡은 천관이 조용히 일어났다.

《그래, 그대에겐 무슨 수가 있는고?》

왕은 조바심을 감추지 못하고 급히 물었다.

《저의 생각은 일곱명의 무지개장수를 광명성성지에 보내어 런 삼일동안 칠색무지개를 띄워볼가합니다. 그러면 세상천하가 이제 당장 광명성성지를 가려볼게 아닙니까.》

그렇듯한 생각이 들어 왕은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있더니 다시금 물었다.

《음, 그대의 생각대로 하면 이제 당장이라도 광명성성지를 온 천하에 밝힐듯하다.

그런데 그 무지개장수가 광명성성지우에 계속 떠 있을수 있는고?》

왕의 말에 물을 말은 천관은 자신이 없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니올시다. 빛을 말은 천관과 계절을 말은 천관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 무지개장수들의 재간이 눈에 띄울수 있소이다.

그러므로 겨울 한철과 밤에는 거의 불가능하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머리를 저었다.

《그것도 안되겠노라.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밤이건 낮이건 겨울이건 여름이건 그 어디에서도 광명성성지를 가려볼수 있게 하자는것이다.》

이렇게 되어 물을 말은 천관도 들어가버리고 말았다.

다음차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장수를 거느리고있는 계절을 말은 천관이였다.

계절을 말은 천관을 대하는 왕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지금까지 광명성성지가 인간세상에 빛을 뿌리게 한데는 계절을 말은 천관의 공로가 크다.

그대가 광명성이 솟아오른 그때부터 해마다 때이른 봄을 불러왔기때문에 성지가 이 세상 제일강산으로 더욱 빛나게 되었노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 그대에게 어떤 묘술이 없는고?...》

성미가 느리기는 하지만 언제나 침착하게 생각하여 묘안을 내놓곤하던 계절을 말은 천관이였는데 이번에는 신통한 수가 없는 모양이였다.

《상감께서 그렇게 믿어주시니 황송하기 그지없사오나 소신에게 슬기가 부족하여 상감의 뜻을 받들 똑바른 묘안이 없사와 천만번 죄스럽소이다.》

커다란 기대를 가졌던 계절을 말은 천관에게서 이렇다할 대답을 못들은 왕의 입에서는 탄식소리가 절로 흘러나왔다.

《아! 과연 광명성성지를 온 세상에 뚜렷이 밝혀낼 묘술이 우리에게엔 없단 말인가?...》

온 궁성에 어두운 그늘을 몰아오는듯한 왕의 한숨소리는 좌중이 또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기게 하였다.

이때였다.

언제나 조용하면서도 속궁리가 깊어 천관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하늘의 별들을 다스리는 은하를 말은 천관이 사뿐 일어났다.

왕의 눈에는 벌써 믿음의 빛이 어리였다.

《그래, 그대는 이번에 무슨 신통한 수를 내놓을테고?...》

은하를 말은 천관은 머리를 들어 자세를 바로잡더니 자못 침착한 어조로 말하였다.

《상감께서도 아시겠지만 백두광명성의 성지를 안고있는 봉우리가 장수의 기상을 세상에 뽐치고 있지 않소이까.

소신의 생각에는 그 봉우리에 밤에도 낮에도 빛을 뿌리는 별을 얹히면 어떻가 하옵니다.

그러면 인간세상은 물론 우리 천궁의 장수들도 광명성성지를 쉬이 찾아볼수 있을것이옵니다.》

《뭘, 별을?》

왕은 물론 앉아있던 천관들도 모두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야말로 신통한 생각이였던것이다.

하지만 왕의 머리속에는 다시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다.

《그것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별이야 밤을 밝히지 낮에도 빛을 낼수야 없지 않느냐?》

은하를 말은 천관은 그 물음에도 거침없는 대답을 준비하고있었다.

《웁소이다. 제가 거느리는 무수한 별들은 다 밤을 밝히는것이옵니다.

그러나 천궁에 있는 백옥을 다듬어 거울을 만들어 봉우리에 얹히게 되면 밤에는 물론 낮에도 빛을 뿌리는 별로 될줄 아나이다.》

이것은 몇백만년이 흘러가도 광명성성지가 온세상에 영원한 빛을 뿌리게 할수 있는 신통한 묘안이였다.

왕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무릎을 탁 쳤다.

《실로 그렇구나. 이제야 우리 천궁이 광명성을 위해 큰일을 하게 되는가보다.》

흥분에 들떠 안절부절 못하던 왕은 깊은 생각에 잠겨있더니 확신을 가지고 말하였다.

《만들바에는 하나가 아니라 두개의 별을 만들어 얹혀야 한다. 그러되 첫번째 별에는 백두광명성의 슬기와 기상이 어리게 하고 두번째 별에는 언제나 광명성만을 따르려는 세상사람들의 깨끗한 마음이 담겨지게 해야 한다.》

성지를 억만년 빛내려는 왕의 속깊은 마음에 크게 감동된 천관들은 저마다 깊숙이 머리를 숙이였다.

이날부터 온 천궁이 별을 만드는데 달라붙었다.

은하를 말은 천관은 우주를 다 뒤지다싶이하여 가장 크고 아름다운 옥돌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하늘의 명화공들을 다 불러들여 옥돌위에 깊은 뜻이 담긴 서로 다른 별을 그리게 하였고 이름난 석공들이 달라붙어 따내게 하였다.

정성들여 다듬은 별들을 옥계수의 맑은 물로 씻고 또 씻으니 그야말로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이 반짝이는 별이 되였다.

드디어 광명성성지에 별을 앉히는 영광의 시각이 왔다.

온 천궁이 떨쳐나고 장중한 풍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날랜 구름장수들이 나서자 힘센 바람장수들이 그들을 광명성성지로 떠밀어갔다.

바로 이때였다.

광명성성지에 별을 앉힐 자리를 잡으려고 먼저 내려갔던 안개를 맡은 천관이 바람에 옷자락을 세차게 날리며 급히 올라와 하늘나라 왕앞에 배알하였다.

《삼감마마!》

안개를 맡은 천관은 숨이 턱에 닿아 미처 말을 잇지 못하였다.

《무슨 일이나? 어서 말을 해라.》

왕의 재촉을 받고서도 그는 한참이나 숨을 돌리고 나서야 말을 이었다.

《삼감마마, 저 광명성성지에는 벌써 우리가 만든 별보다 더 아름답고 황홀한 흰옥돌로 다듬은 세계의 별이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사옵니다.》

《뭐라구? 세계의 별이 빛난다구? 그게 어떻게 된 일이나? 좀 자세히 얘길 해라.》

하늘나라왕은 안개를 맡은 천관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 어안이 벙벙해졌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누가 벌써 광명성성지에 별을 내리게 했단말인가! 안개를 맡은 천관은 차근차근 그 사연을 아뢰었다.

《맑은 아침의 나라 사람들은 백두광명성을 우러러 높이 받드는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에서 제일

은 옥돌로 세계의 별을 만들어 봉우리에 박아넣었습니다.》

그 별들에서는 《정일봉》이라는 금빛글자가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사옵니다.》

《아차! 우리가 한발 늦었구나.··· 그러나 기쁜 일이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든 별들보다 더 아름다운 별이 세계씩이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일이나? 홍보석으로 〈정일봉〉이라는 글자까지 새겼다니 얼마나 뜻이 깊은고··· 맑은 아침의 나라 사람들은 참으로 충성스럽고 효성스럽도다. 인간세상에 행복을 가져다준 백두광명성의 성지를 더욱 빛내이는것은 당연한거고.》

하늘나라왕은 연신 머리를 끄덕이였다.

왕이 한손을 들어 가로저으니 구름이 서둘러 헤쳐지며 땅세상이 환히 드러났다.

광명성성지에서는 세계의 별이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아- 이제는 광명성성지가 영원히 자기의 빛을 뿌리게 되었구나.》

백두광명성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려는 맑은 아침의 나라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에 하늘나라왕은 크게 감심했다.

천관들과 장수들도 기쁨에 넘쳐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다.

《애들아, 어서 풍악을 울려라.》

하늘나라왕의 령이 떨어지자 아름다운 풍악소리 가 구름발을 헤치며 장엄하게 울리였다.

하늘나라에서는 선녀들의 춤과 노래소리가 오래동안 그칠줄 몰랐다.

가사

장군님 명령을 받아안을 때

허승암

명령 명령 명령을 받아안을 때
마음은 결전의 언덕에 먼저 나섰네
그러나 우리의 장군님 명령
창조와 건설을 위해 내렸네
인민의 행복을 위해 내렸네

명령 명령 명령을 받아안을 때
병사는 결사의 맹세로 가슴불탔네
조국을 지키던 그 마음 안고

창조와 건설도 다 맡아하리
그 맹세 다지며 가슴불탔네

명령 명령 명령을 받아안을 때
병사는 승리의 앞날을 내다보았네
우리의 신념은 드림이 없네
장군님 명령을 받드는 길에
승리의 기발은 높이 날리리

영원의 5년

-두 세계의 경계선에서-

한웅빈

...여기서는 하늘도 달도 제모양을 잃었다. 하늘은 손바닥만한 통풍구에서 사각형으로 굳어졌고 달은 철창에 걸려 가로세로 찢기웠다.

그의 몸 역시 갈가리 찢기고 부서졌다. 30여년을 두고 매일같이 반복되어온 파괴와 분쇄의 과정. 열백번이었던가, 백천번이었던가. 지금 이 특별사의 독감방에서 숨쉬고있는것은 리인모라는 인간이 아니라 찢기고 부서진 리인모의 어느 한 조각일뿐인지도 모른다. 《소여물질의 고유한 속성을 그대로 잃지 않고있는 가장 작은 최후의 알갱이를 분자라고 한다.》라고 가장 고통스런 시각에도 특별사 콩크리트바닥에 물을 찍어 미적분학문제를 풀곤하던 한 동지는 말했었다.

속성을 잃지 않은 최후의 알갱이. 허나 인간의 육체에는 최후의 알갱이라는것이 없는것이 아닐가. 30여년을 두고 더는 파괴될수 없이 찢기고 부서져온 육체이지만 그 조각조각들은 여전히 30여년전과 다름없이 사색하고있으며 고통과 분노로 치를 떨고 《전향하라!》는 말에 《절대로!》라고 소리높이 대답하고있다. 이 사색과 분노, 고통과 항거로써 리인모는 오늘도 자신의 내부에 30여년전과 다름없는 리인모가 살아있으며 존재하고있음을 느낀다. 매일 매 시각 확인한다...

바삭-바삭- 점점 포렛해지는 소리에 리인모는 현실로 돌아왔다. 언제 기여나왔는지 쥐란놈이 앞에 와있었다. 그놈은 리인모의 앞에 놓여있는 종이장을 요리조리 건드려보고있었다. 하더니 《이건 도대체 뭐라는거요?》하듯이 록두알같은 눈으로 쳐다본다. 하루에도 여라문번씩 기여나오곤하는 놈이어서 이곳 물계에는 행-halte지만 종이장만은 생면부지의 물건이어서 신기해보이는 모양이다. 하긴 그놈으로서는 방금전 교도관이 고문장에서 리인모를 끌어다 메치며 《여기 〈전향한다〉고 너자만 쓰면 치료도 해주고 내보내줘!》하고 뿌려놓은 종이장임을 알리가 없다.

그놈은 여간 평리한놈이 아니어서 교도관이나 띄봉이따위들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아무리 떠들고 날치여도 감방을 돌아치며 제 볼장을 다보았다. 그러나 리인모만은 여간 경계하는것이 아니어서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냅다 도망쳐 굴속에 숨어버리곤했다. 그래서 리인모는 때로는 저놈이 아마 마포형무소에서 내가 국에 들어가있는 자기 동족을 먹어치운 사실을 알고있는 모양이라고도 생각해본다. 생각타인지 그놈이 올방자를 틀듯이 뒤다

리를 깔고앉아 수염투성이 얼굴로 쳐다볼때면 마치 《무서운 세상이요. 서공이 쥐고기를 먹다니!》하고 개탄하는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원래부터 쥐를 무서워하던 그였다. 동지들은 그에게 쥐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하여 서공이라는 별명까지 붙였었다. 그런 그가 마포형무소에서는 국에 들어가있는 쥐를 뜯어먹었다.

그러나 이 독감방에서 유일한 동거자는 쥐밖에 없었다. 때로는 그놈이 기다려지기도 했다. 주먹만한 몸통이어서나마 약동하는 생명을 보고싶었다. 그런데도 그놈은 그가 눈길만 움직여도 도망쳐버린다.

《이놈아, 욕심나면 어서 가져가라.》

하고 리인모는 종이장결을 땀도는 그놈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러자 그놈은 불에라도 덴듯이 훌쩍 뛰여오르더니 구멍으로 속 빠져들어가버렸다. 별수 없는놈이다... 바닥에는 네모난 종이장만 남았다. 리인모는 그것을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손바닥보다도 크지 못한 종이장이다. 허나 그우에는 낮과 밤처럼 상반되는 두 세계가 비껴있다.

여기에 내개의 글자만 써놓으면 이 종이장은 《천일야화》의 신비한 주문처럼 그를 푸른 하늘이 가없는 둥근천정으로 드리워있는 세계에 안내해줄것이다. 태양을 한껏 안고 눈부시게 번쩍거리는 맑은 시내물, 연록색 잎새들로 단장하고 새소리, 바람소리로 충만된 대지, 이슬냄새 풀냄새로 숨쉬는 대기, 개짖는 소리가 쏠나무라는 내내속에 떠도는 마을길... 헤여진지 30년이 되는 세계였다!

허나 아무 글도 쓰지 않는다면 (여기서 종이장은 오직 그 내개의 글자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또다시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래일만이 첩첩히 이어질것이다.

《전향할래, 안할래? 말해! 말해-!!》

공간을 가로세로 찢어발기는 몽둥이들, 서투른 백정의 도살장, 피로 세계지도를 그리는 콩크리트바닥. 이남땅의 수도물을 짱그리 쏟아붓는듯한 물, 물! 열리터짜리 배불뚝이 주전자에서 코에로 쏟아지는것은 물이 아니였다. 숨길을 짓누르는 쇠몽치였다. 천근바위였다. 칠혹같은 어둠이였다. 이제는 물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활시위처럼 팽팽해지고 코와 폐장은 질식의 고통에 대한 예감으로 경직되어 버린다.

어제 한 동지는 고열에 들떠 《물! 물!》하고 헛소리를 하다가 끌려나갔다.

《물을 찾았으니 실컷 먹어봐라!》

그 동지는 교문장에서 의식을 잃었고 종시 숨지 고말았다.

《전향한다고 한마디 내깔리면 고만일텐데 아까운 목숨만 뿌렸지. 돈드는 일도 아닌데...》

하고 교도관들은 들으라는듯 떠들었다.

그것이 오늘은 나에게 닥쳐올수도 있다. 리인모는 자신에게 말했다. 준비하고있으라. 죽음이 추호도 놀라울것 없고 너무도 예상사로 되어버린 세계이지만 준비되어있어야 한다. 죽음도 무기이다. 마지막 무기이다.

《이새끼들은 살았어, 죽었어? 짹소리도 안해.》

새로 온 교도관녀석이 철창앞을 오락가락하며 뇌까린다. 먼저 있던놈은 어찌된 셈인지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 어느놈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이 신출내기는 첫걸음부터 실적을 올려보려는지 별로 싸부랑 대며 진정을 못한다.

《악질들야. 독종 빨갱이라니께.》

다른 녀석이 제법 《고참》다운 대답을 준다.

빨갱이, 그 한마디에 리인모의 생각은 순간에 천리만리를 날아 기억에도 아슬푸레한 소년시절의 땅, 돌밭고 물소리 소란한 파발천기슭에 깃을 내린다.

《요 빨갱이새끼, 고추가루물 먹어봐야 알겠어?》

고추가루물주전자를 들고 악에 받쳐 다가들던 왜놈경찰의 줌상스런 상판이 떠오른다.

그때로부터 스무해, 지리산에서 체포되어 형무소에 끌려갔을 때 검사와 간수의 입에서 나온 첫말이 《빨갱이새끼》였다. 스무해전으로 돌아가 왜놈경찰의 앞에 서있는듯했었다.

그때로부터 다시 서른여해, 그러나 왜놈들이 교부가 되었던 그 《이름》은 불가침의것인듯 그대로 남아있는것이다. 억양과 표정, 자세까지도 왜놈그대로이다. 설사 교도관들의 입에서 일본말이 쏟아져나온대도 놀라울것 같지 않다. 이 철창가에서는 시간이 완전히 정제되어버린것 같다. 혹시는 철창안에 앉아있는 그자신이 아직 열네살 어린 소년인것은 아닐가. 반세기 넘는 세월이 흘러간것은 꿈속에서일뿐이고...

《저자식 또 물먹으러 가는가베?》

신출내기가 재미있는것이라도 발견한듯 신이 나서 떠들어댄다. 《고참》이 맞장구를 친다.

《저런것들때때 시내에선 더 물소동이란 말야. 가뜰이나 수도물이 쥐오줌물처럼 쫄쫄하는 판인데...》

두놈은 제판으로 자기들의 기지에 만족한듯 두마리 하늘소처럼 꺾길거린다.

젊은이가 물고문장으로 끌려가고있었다. 독감방에 전방되기전에 리인모는 그와 함께 있던적도 있었다.

《허호길입니다. 선생님, 많이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터지고 찢긴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띄려고

애쓰던 젊은이었다. 정의감에 불타는 심장과 명민한 머리, 눈은 항상 정기에 넘쳐있었다.

《아까운 젊은이요. 많은 일을 할 사람인데...》

《바로 그래서 잡아넣은게 아니겠소?》

하고 나이든 비전향장기수들은 말했다.

《선생님, 전 향이라는게 뭡니까? 난 인젠 지조도 하나 없고 물결가는데로 동서남북 모르는 부평초다 이거 아닙니까? 인생을 내깔리는거죠. 예?》

고문받고 돌아와 신음소리대신 분노에 떨며 부르짖을 때는 와락 꺾어아주고싶었었다...

그가 물고문장으로 끌려가고있었다. 칠혹같은 어둠속으로 끌려가고있었다.

《선생님, 전 선생님의 일생사를 알고싶은데요.》

하고 말한적도 있는 젊은이다.

《화석같은 늙은이 이야기에 무슨 들을것이 있겠소? 풍산에서 시작되어 지리산에서 끝난 일생인데.》 하고 이야기를 피했던것이 후회된다...

전디여내라. 굽히지 말라! 리인모는 그의 뒤모습을 바라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한생이 다 저물도록 간혀있어도 후회없는 이 철창이다. 내 너에게 죄다 말해주마. 이 철창이 무엇인가를. 왜 이 산 인간의 무덤에 내 한생을 다 물어버리면서도 철창의 열쇠로 되는 《전향한다》는 한마디만은 뇌리에서 영영 지워버렸는가를...

...나는 1917년에 태어났다. 이 나라 북변의 풍산 땅에서. 평범한 소년이였다. 딸도 없는 집안의 유복자로 태어나 엉성기도 있고 버릇도 좀 없는...

리인모의 눈길은 허호길이 사라진 복도에서 담벽으로 옮겨진다. 수십년세월이 스며있는 얼룩진 담벽. 저 얼룩들은 이곳에서 찢겨지고 부서져버린 비명의 인생들이 그려놓은 《벽화》이다. 상형문자들이다. 상형문자로 쓴 수난에 찬 이 나라 근대사의 글줄들이다.

...나라 잃은 설음보다 배고픈 설음을 더 느끼던 소년이였다...

리인모는 이미 보이지 않는 허호길을 마음으로 따라가며 이야기한다. ...반세기도 더 되는 세월의 이끼에 묻혔다도 아스라한 기억속에서 심혼을 흔들 어깨우며 울리는 파발리의 총소리. 그 총소리에서부터 나의 생은 시작되었다. 1930년의 그 총소리가 아니었으면 나의 생은 화전이랑에 묻힌 감자처럼 무위한 세월을 영위하며 흘러가버렸을것이다...

《이자식은 몇살이나 됐나?》

신식구롱앞에서 《고참》에게 묻는 신출내기의 말소리가 생각을 흐트러놓는다.

《스무살, 아니 서른살도 넘었을거야.》

여기서 몇살인가는 감옥나이를 가리키는것이다.

《서른살? 어유! 기절치겠네. 빵깡에서 일생을 죄 때려치우는셈 안야? 저게 사람이야? 돌이지!》

《누가 아니라? 그래서 악질 빨갱이지. 돌이면 이끼라도 돌게?》

그래, 나는 악질 빨갱이다. 리인모는 얼룩진 담벽만을 바라보며 대답한다. 일생이 아니라 생을 열번 다시 산대도 변함없을 공산주의자다...

독감방에서 수인의 유일한 상대자는 담벽뿐이다. 그는 쥐처럼 도망치지도 않으며 소리들처럼 고발할 줄도 모른다. 얼마나 많은 눈길들이 이 담벽을 더듬고 또 더듬었으랴... 리인모의 눈길도 무표정한 담벽을 더듬는다. 침묵속에서 침묵밖에 모르는 담벽을 보고 또 본다.

그러자 비명에 떠나간 령혼들이 그려놓은 《벽화》는 여느때처럼 그의 한생이 토막토막 비끼는 화폭들로 변한다. 그 거칠은 벽이 지나간 한생이 비끼는 《거울》로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랴. 숨결까지 감시하는 교도관들도 그 《추억의 거울》만은 흐려놓지 못한다. 담벽은 천태만상의 생활을 담고있는 화폭이다. 단순한 흰빛에 프리즘을 갖다대면 령롱한 칠색무지개빛으로 분광되듯이 이 무표정한 담벽은 수인의 눈길이 닿으면 천태만상의 화폭을 담은 산거울로 변한다...

리인모는 담벽에서 물소리 소란한 돌 많은 파발천과 사람들로 붐비던 《오빠시》의 경찰관 주재소를 보았다. 그 총소리는 오늘의 리인모가 태어나게 한 조종과도 같았다. 그때부터 그의 생애는 풍산땅의 강물처럼 격류속에서 흘러갔다. 《적색독서회》사건, 류치장생활, 장백으로, 룡정으로, 다시 풍산으로, 다음은 서울로, 도표로, 다시 서울, 풍산으로... 그것은 **김일성** 장군님의 항일유격대를 찾아갈 일념을 등불삼으며 걷고걸은 먼먼길이었다. 허나 종시 찾아가지 못했다. 반대로 장군님께서 찾아와주시었다.

아. 1945년 8월 15일! 목메인듯 울리던 계곡의 물소리, 불타는 8월의 태양을 향해 솟아오르던 개마땅의 장엄한 산발들...

《만세!》, 《**김일성** 장군님 만세!》, 《조선독립 만세!》 그날의 만세 함성이 귀가를 울리자 리인모는 부지중 눈을 감았다. 그날로부터 5년간의 회상은 모든 일들이 동시에 있었던듯 한꺼번에 와-물려들어 갈피를 잃게 한다. 추억의 토막들은 모두 자기 얼굴을 가지고있고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있다. 서로 다투어 비집고나오며 목소리를 높인다.

누가, 어느 목소리가 먼저냐? 너냐? 너냐? 가장 아름다운것, 가장 다정한것, 가장 귀중한것, 어느것부터 더위잡아야 하는가? 어느것이건 잡으면 모두 보석처럼 빛나고 놓을수 없는, 길이길이 애무하고 싶은것들뿐이다. 들쭉이 흐트러진 언덕에서 어느 꽃부터 골라잡아야 할지 몰라 숨가빠 돌아치는 어린 소녀로 된듯한 마음... 벌써 수천수백번도 더 더듬고 또 더듬어온 추억이건만 이때에 이르면 번마다 일시에 떠올라 부지중 눈을 감곤한다.

《이제는 더 숨어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어머니가 눈물짓는데 《인모동지!》 하며 붉게 물

든 처녀의 얼굴이 살췐이 쳐들리며 다가온다. 《순임이!》 허나 그 얼굴과 따뜻한 미소를 나눌 겨를도 없이 다른 얼굴, 다른 목소리들이 다투어 찾으려 밀려든다. 조용한 방에서 밖에 나서자 일시에 찾고 부르는 술한 사람들에겐 확 에워싸인것 같다. 누구부터 만나주어야 할가.

크지 않은 방에 모여앉아 풍산군의 첫 당조직을 못던 다섯명의 동지들인가. 토지개혁으로 풍산땅을 메주밭듯하고 다닐 때 어느 산간마을에서인지 모임장으로 뛰어들었던 더벅머리 젊은인가. 그는 방금전에 해설사업을 마치고 떠나온 마을에서 왔었다. ...추억의 눈은 잠시 그에게서 머무른다.

《왜 그 마을에서 할 땐 안참가하고 몇십리 떨어진 여기 와서 들을라고 하오?》

《우리 마을에서 할 땐 아버지가 참가했지오다. 아버지가 돌아오자 옷을 당장 달래서 입고 쫓아왔는데, 귀가 활 띄우는 소릴 한다가에...》

옷이라곤 한벌밖에 없는 집이었다. 길손이 찾아들면 박정해서가 아니라 몸에 걸친 옷이 없어 문을 열어주지 못하던 풍산사람들이었다.

홍남에 나와 일할 때 그 젊은이가 찾아왔었다. 멧쟁이 양복을 해입었고 하이칼라 머리에 뽀마도까지 번쩍번쩍하게 발랐다. 그때 흐뭇한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말했든가.

《기름독에 빠졌다 나온것처럼 그게 뭔가?》

성미도 참...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 어머니는 그 젊은이가 더운물을 달래서 머리를 말끔히 빨고서야 풍산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는것이였다. ... 괜히 그랬어. 괜히. 그렇잖아도 양복이 몸에 붙지 않아 서슴거리며 들어섰던걸... 괜히 그랬어. 데루스런 소릴 해서 창피만 졌으니... 그래서 추억의 눈도 그에게서는 훌훌이 떠나지 못한다. 《중구만. 응? 멋있어!》 담벽에 어리는 그에게 조용히 말해본다. 이제라도 때늦게라도 해주고싶은 말이다. 누구나 모두 기뻐하고 가슴부풀게 해주었을것을... 너무 흐뭇한 나머지 그런 엇뚜러진 소리를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때는 성미가 왜 그모양이었을가...

어느 하루는 집에 들어가앉아있는데 뒤늦게 들어오는 안해의 머리가 이상스럽게 부풀어오른것처럼 커보였다. 암만해도 이상하여 벗어놓았던 안경을 다시 끼고보니, 이런 변이라구야! 칠칠하던 머리칼이 몽땅 용수철처럼 꼬불꼬불해졌다. 파마를 한것이였다. 안해는 방에 들어와서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있었다. 그때 뭐라고 했든가.

《어머니, 거 인두 좀 달궜주오다.》

《어째 그러니?》

《저 꼬불꼬불해진 머릴 쪽 펴주어야겠소.》

안해는 얼굴이 빨갱게 되어 방구석으로 파고들기만 할뿐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왜 그렇게 숨소? 아주 보기 좋은데! 고와졌구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소!》

허나 이것 역시 이제 와서 해보는 말이다. 그때 그렇게 말해주었다라면 젊은 안해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안해가 조용히 부르곤하던 노래가 떠오른다. 딸애는 그 노래를 안해의 몸안에서 들었을것이다.

...

실실이 드리운 시내가버들
플퍼리 불어불어 새 나라 노래하세

...

노래를 타고 추억은 더 뒤로 미끄러져간다.

《아, 잠깐! 신랑신부, 이쪽으로 옮겨서오!》

머들썩한 목소리들. 그만하고 샤타를 눌러도 좋은만 계속 성화다. 머리로 못쳐드는 신부더러 한 걸음 옮겨서라고 야단이다.

《에라, 신랑부터 끌어가야지!》

여러손이 닝큼 들다싶이 한걸음 옆에 옮겨세웠다. 그제야 신부는 신랑옆으로 발뼉발뼉 옮겨선다.

《아무렴! 바늘 가는데 실 안갈라구?》

터져오르는 웃음소리. 사진을 찍고나서야 왜 그렇게 옮겨서라고 성화시켰는지를 알았다. 처마끝에 걸려있는 공화국기발이 사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였던것이다. 하여 신랑신부는 목을 길게 뽑고 서있는 한쌍의 학이나 달이 걸려있는 청송병풍이 아니라 람홍색의 공화국기발을 배경으로 결혼사진을 찍었다.

《이 기발아래서 검은 머리 파뿌리되도록 복락을 누릴지어다!》

이 기발, 공화국기발, 공화국선포의 날이었었다. 집집마다에서 공화국기발이 날리고 길에서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울리고있었다.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새 기발 높이여 삼천만은 나섰다

...

아, 공화국기발, 우리의 기발, 집집마다에는 **김일성** 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시였고 공화국기발을 내걸었었다.

그것이 우리의 조국, 내 조국이였다. 아무리 뛰여다니고 밤을 지새워도 힘든줄을 몰랐던 나날...

다시한번 그 시절로 돌아가 밤을 지새우며 일하고 달려다녀보았으면!...

《야-! 그제 정좌야?》

짱- 하고 터지는 악청이 추억을 산산이 깨뜨린다. 추억의 조각들은 순간에 얼룩진 벽과 천정, 바닥으로 흩어져 사라진다.

쩔그렁- 교도관이 문을 따고 들어선다. 획- 하고 몽둥이가 허공을 찌른다. 뒤에서 족제비같은 소지

의 얼굴이 빠끔히 들여다본다. 그놈이 여우꼬리같은 비자루를 쌀쌀 끌며 지나더니 체대로 앉아있지 않다고 고해바친것이다. 몽둥이는 그냥 날린다.

리인모는 눈과 입을 꼭 닫아버린다. 나는 돌이다. 나는 침묵이다. 그 무엇도 이 침묵을 깨뜨릴수는 없을것이다.

《이새끼! 맘대로 앉고프면 전향하란말야!》

물먹이기이던 몽둥이질이던 귀결점은 이것 하나뿐이다. 얼마나 단순한가! 여기서는 모든것이 단순하다.

쩔그렁- 문을 닫던 그놈은 소지와 눈을 마주치더니 이웃감방으로 화살처럼 달려든다.

《야-! 넌 뭘 기웃거리?》

획- 하고 공기찢기는 소리. 철썩하고 살가죽터지는 소리. 그러나 비명소리는 없다. 신음소리도 없다. 으스스하게 다문 입과 숯덩이처럼 타는 눈동자를 감추었을 짝 감은 두눈이 보이는것 같다. 여기서는 침묵이 말을 대신한다. 침묵은 의지이다. 항거이다. 불굴의 심장이 울리는 소리없는 함성이다...

교도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

《개새끼들!》

침묵. 신음소리도 없는 침묵. 들리는것은 혈금씨 금하는 교도관의 숨소리뿐이다. 지치고 노그라진것은 그놈 혼자뿐이다. 한바탕 얻어맞은 개처럼 느른해졌다. 침묵은 혈썩거리는 그에게 퍼부어지는 고소이다. 껄껄대는 호걸웃음보다 더 크게 터져오르는 웃음이다. 온 특별사가 침묵으로 그놈에게 고소를 퍼붓고있다.

《개새끼들!》

이렇게 흘러간다. 여기서의 시간은...

리인모는 다시 담벽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러자 산산이 깨어져 흩어졌던 추억의 파편들은 거친 담벽으로 서서히 모여들어 다시 하나의 화폭을 이룬다.

생생히 되살아나는 화폭들을 마음의 눈은 경이에 차서 지켜본다. 마치 그의 내부에는 두사람이 있는것 같다. 사색하고 행동하는 리인모와 그 리인모를 관찰하는 또하나의 리인모가...

정신이란 이처럼 강인한것인가. 육체는 갈가리 찢기고 부스러져 살과 뼈조각을 담은 자루처럼 되었으나 정신은 그대로 있다. 찢기우지도 상처를 입지도 않았다. 아, 정신아. 상처를 모르는 너의 역센 나래를 더 넓게, 더 힘차게 펼쳐다오...

《부장동무, 그런 법이 어데 있습니까?》

《그런 법이라니? 어째서?》

《집에서 해산한걸 모릅니까? 보름이 지나도록 들어가지도 않았으니... 아직 이름도 짓지 못하고있다오다.》

《...》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도 바빴다. 일에 몰려

시간을 낼수 없었다. 순조롭게 해산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을 놓았었다.

금속제 탑과 관들의 도시같은 흥남비료공장에 한 번 들어서면 아무리 돌고돌아도 끝이 없었다. 공장의 둘레는 40리가 아니라 400리는 되는듯했다. 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있었다. 2개년인민경제계획의 첫해전투가 고조를 이루고있었다. 끝없는 일감이 기다리고있었다. 누구나 모두 그렇게 일하던 때였다.

《부장동무, 혹시 딸이래서 그러능기 아니오?》

부부장의 공격에 그는 당황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지 않을가. 안해는 얼마나 섭섭해할가. 혹시 울고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딸애는 이제 자라서는 《우리 아버지 낄 날 낄았을 때 기뻐하지 않았대. 딸이라구. 보름이 지나도록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다잖니?》 할수도 있다.

아니, 이것은 지금에야 하게 되는 생각이다. 그때에는 그저 웃음으로 대답했고 아이에게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새삼스레 놀랐을뿐이었다. 그 만큼 당황함도 컸다.

부부장은 그가 당황해할수록 흥겨워했다. 그러기를 바랐던듯 실컷 심술궂은 소리를 하고서야 선심이라도 쓰듯 말했다.

《걱정마오다. 내가 이름을 지어주고 왔소다.》

《그게 정말이요?》

《부장동무 어머니가 당장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달려가더랑이.》

《그래 이름을 뭐라고 지었소?》

《공짜가 있소다? 내 이름 한자를 슬쩍 끼워넣어 현옥이라고 했습니다.》

《현옥이? 이름이 좋구만! 멋있소! 부부장동무, 고맙소. 정말 고맙다이!》

부부장의 이름은 현철이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전선으로 나갔었다. 그는 어떻게 되었을가...

현옥이, 폭격소리에 놀래여 울다가도 아버지가 다독거리주면 쪼꼬만 손으로 아버지의 손가락을 꼭 쥐고 조용해지던 딸애. 그애는 후에 아버지가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않았을가. 딸애가 그 일을 두고 아버지에게 얼마나 훌륭한 동지들이 있었는가를 먼저 생각해주었으면...

딸아, 내 오늘은 너에게 한가지 비밀을 이야기하마. 네가 태어났을 때는 집에 들어가지 못한 이 아버지가 동지들의 가정에서 그런 경사가 났을 때는 찾아가곤했다는 비밀을. 네 이름을 지어준 그 사람도 같았다. 그 역시 자식이 태어났을 때는 나와 다름없는 《지각생》이었다. 그런 《지각생》이 어찌 한돌만이었겠느냐. 그 시절 우리는 그렇게 일했다....

리인모는 물고문장에서 《전향서》와 싸우고있을 허효길을 마음의 눈으로 찾아본다.

허동지, 우리는 그렇게 일했소. 그렇게 자라난 사

람들이요. 장군님을 모시고 산 해방후 5년이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만들었소. 그런 사람들이 사는곳이 내 고향이요. 내 집이요...

...진달래빛 노을에 유리창이 물들던 빨간 벽돌집. 그 자그마한 프락으로 순간만이라도 다시 들어가 볼수 있다면! 공장의 고동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열차의 기적소리가 씩없이 먼 앞날에로 부르는듯하던 집.

마을옆으로는 함흥을 거쳐 평양으로 가는 철길이 있어 밤낮없이 기적소리와 물동적인 차바퀴소리를 울려주었고 기관차의 석탄연기냄새가 희미하게 서려있었다. 빨간 벽돌집들의 사이를 빠져나오면 비료공장뿐만아니라 제련소, 룡성기계공장 노동자들이 떠들썩하게 출퇴근하는 대도로가 있었다. 로들에서 나오는 적갈색 슬라그블로크로 포장한 길. 유사이전부터 대기중에 불가결의 원소로 있었을듯 느껴지는 암모니아냄새, 그 길, 그 대기에 정들었다. 어린 현옥이도 기적소리와 고동소리에는 깨어나는 적이 없었다. 자장가와도 같았다.

다시한번 그 소리를 들으며 그 대기를 폐장이 터지게 들이키며 오돌토돌한 블로크포장길을 걸어볼수 있었으면! 점심밥팩을 옆에 끼고 도로를 메우는 출근대렬에 밀려가다 걸음을 늦추지 않고 작은 피창만 열어놓은 소비조합의 간이매대에서 담배 한갑을 사들고 한대 척 뽑아 피워물어보았으면!

아, 추억! 가슴이 저미는듯 아프다. 불행한 때에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하는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것 같다. 만일 그런 행복한 추억이 없다면 오늘이 이처럼 고통스러운것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그를 집요하게 현실로 끌어내린다. 쥐란놈이 또 기여나온 모양이다. 아무래도 종이장에 대한 미련을 버릴수 없는게다. 하기는 이곳에서만 산놈이니 종이장이라는걸 알리가 없다. 그놈에겐 여기가 세상의 전부일것이다.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만 살았을테니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죽을것이다. 지옥에서 태어나 지옥에서 살고 지옥에서 죽으면 그놈에게는 지옥이 전세제일수밖에 없다.

《글쎄 애새끼가 돈을 내라는걸 안주었다가 칼에 맞고 끌락했지 뭐야.》

《애새끼 몇살이나 됐게?》

신고참 두 교도관의 수군거리는 소리다. 오늘부터 갑자기 보이지 않는 교도관에 대한 이야기임에 분명했다. 그 소리는 바스락대는 쥐소리때문에 말꼬리가 흐려지군한다. 그러나 바스락소리는 두 교도관의 이야기를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귀가 눈으로 되어선지 두 소리는 화음이라도 이룬듯하다. 《열다섯살이라던가.》

《어유! 열다섯살에 강도면 세상에 강도 아니고

도적놈 아닌놈 어딴어?》

바스락- 바스락-

《누가 아니래. 요점은 길 나서면 만나는놈마다 죄 강도, 도적놈으루만 봐는판이니.》

《다 돈때문야. 돈만 많으면...》

《세상이란 원관이 그런거야.》

세상이란게 원래 그런것이다? 리인모는 저절로 떠오르는 쓰거운 미소를 느낀다. 네놈들에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란 그런것이 아님을 나는 잘 안다. 나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본 사람이다...

그러자 상념은 다시금 추억의 나래를 펼친다. 얼룩진 담벽은 다시 생으로 약동하며 기쁨과 그리움, 한희에 떨고 울며 웃기 시작한다.

장하고나 우리들은 힘찬 근로자

새 세기를 창조하는...

이것이 혹시는 황홀했던 꿈속의 선물은 아니었던가.

노래도 이제는 토막토막으로밖에 기억되지 않는다. 마지막이 어떠했던지... 노래의 마지막대신 떠오르는것은 사람바다를 이루었던 홍남비료공장 로동자들의 군중대회장이다. 열기오른 입마다에서 터져나오는 흰 입김이 군중의 머리우에 구름처럼 서렸다.

《동무들! 저는 우리가 김일성장군님을 공장에 모셨던 로동계급답게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해방다섯푼이 되는 올해 8월 15일까지 앞당겨 완수하자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료공장 로동계급의 이름으로 온 나라 로동계급에게 호소하자는것을 제기합니다!》

체소한 로동자였다. 해방후 5년도 지워버리지 못한 오랜 유해로동의 흔적인 창백한 빛이 인박힌 얼굴, 작업반장이였다. 이름이 영래였던가. 아니, 영래는 지리산빨찌산에서 전사한 동지의 이름이다. 다른 이름이였다. 그 반장을 알게 된것은 문맹퇴치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직장마다에 성인학교가 활발하게 열리던 때였다.

글장님된 애달픔을 한탄만 하지 말고

일하고난 틈을 타서 배우고 또 배우자

...

그런데 성인학교에서 제일 모범적인 결석생이 바로 그 반장이였다. 아무리 말해줘도 마이동풍이라는것이였다. 《로동자는 일하는 사람이야. 일 잘하는게 영웅이란 말이야.》 하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던지. 그래서 작업반에 찾아가서 만나보았다.

《내 듣기엔 반장동무가 당원이 되겠다고 한다는데 글도 모르고야 어떻게 당원이 되겠소?》

그날저녁에도 반장은 성인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대신 시당으로 찾아왔다. 서론도 없이 직방 물을부터 들이댔다.

《선전부장동무. 한가지 물겠소다. 글을 모르면 당원이 될수 없다는기 사실이요?》

《당원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장군님과 당을 위해 일하도록 교양하고 이끌어주어야 하오. 그런데 글을 모르고야 그렇게 할수 있소? 그래, 이걸 읽을수 있소? 이걸 모르고는 당원이 될수 없는데 글을 모르고야 무슨 용빼는수가 있소?》

《그기 무스기오다?》

《당규약이요.》

반장은 자그마한 당규약책을 체소한 몸에 비해서는 어방없이 큰 손으로 조심스레 이리저리 뒤척여 보더니 불쑥 말했다.

《이걸 날 주오다. 난 이걸루 글을 배우겠소.》

《뭐요? 당규약으로 어떻게 글을 배운다는거요?》

《우선 이 뚜껑에 있는 글부터 읽어주오다. 그러면 내 외워가지고 맞춰보며 글자를 익히겠당이. 이 책안에 있을 글자야 다 있겠지비?》

《글쎄 거의 있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요.》

《됐소다. 난 여기 글만 알면 되오. 우리 장군님당에 대한 글인데 여기 없는 글자는 알고싶지도 않소다. 그기 무슨 조선글이오?》

어찌 고집이 센지 요지부동이었다. 별수없이 뚜껑에 있는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구호부터 읽어주었다. 그는 몇번 입으로 외워보더니 자신만만해서 나갔다.

그런데 몇시간후 밤이 깊어 퇴근하려니 뜻밖에도 그 반장이 길가에서 기다리고있는것이였다.

《아니? 어째 아직 여기 있소?》

《암만해도 선전부장동무가 똑바로 가르쳐준것같지 않소다.》

하고 그는 뚜껑에 있는 열두개의 글자를 몽툰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으며 읽어나갔다.

《전...세...제...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보오다. 다 읽었는데 뒤에 한게가 남잖소?》

그는 뒤에 붙은 감탄부호를 손가락으로 짚어보였다. 감탄부호때문에 여직껏 머리를 썩이며 떠나지 못하고있은것이였다. 웃기에는 그의 얼굴이 너무도 심각했다. 설명을 듣고난 그는 감탄부호를 세개는 불일만큼 크게 감탄했다.

《그렇구만! 단결하라- 아- 이런거겠소? 하! 고물방울같은놈때문에... 잘 가오다.》

그는 며칠사이에 당규약을 통채로 외웠고 글자를 짚어가며 익혔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글을 글자가 주먹만한 성인학교 교과서로써가 아니라 당규약의 깨알같은 글자를 통하여 배웠다. 고집도 췌고 의심도 많았다. 공장구내에서 만났을 때 그는 합성탑에 써놓은 구호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게 <새> 자가 옳소다?》

《옳소. 〈새 민주조선〉이란 글자요.》
《새 민주조선… 그럼 저 새라는건 어떻게 쓰오다?
날아다니는것들 말이오.》

《갈소.》
《그기 무슨 소리오? 어떻게 날아다니는 새하구
새 조선이라는 새가 갈을수 있소다?》

《소리는 같지 않소? 뜻은 다르지만.》
《소리가 같다고 글자가 갈을수가 있소? 뜻이 다
르는데? 예? 무슨기란지… 에이 모르겠소. 암만해두
부장동무가 날 놀려먹는것 같당이.》

그의 말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듯하다. 전향한
다고 쓰기 싫으면 잘못했다고만이라도 쓰라고 하는
교도관들에게 그 말을 해주고싶다. 말은 소리가 아
니라 뜻이 문제다. 북쪽땅에서는 40년전에 벌써 갓
우리글을 배우기 시작한 로동자도 그것을 알고있
었다.

그가 바로 군중대회때는 종이장에 쓴 토론문을
썩- 썩- 내리읽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을
가. 그가 그 시절의 이 선전부장을 기억하고 있을가.
여러 얼굴들이 떠오른다. 《비료를 많이 내는게
제일이시비!》 하던 얼굴도 떠오른다.

그것은 증산전쟁때에 있는 일이었다. 그때 공장
관리부에서는 월생산을 두고 작업반별 경쟁을 조직
했다. 굉장한 상금을 건 경쟁이었다. 이 사실을 뒤
늦게야 알게 된 시당에서는 로동자들의 열의를 돈
으로 불러일으키려는 옳지 못한 처사라고 관리부를
호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미 선포한것이어서 변
동시킬수는 없었다.

경쟁은 매우 치열했으나 류다른것이었다. 경쟁에
참가한 작업반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1등을
향해 내달렸다. 그중에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한 작
업반의 기세는 무서울 정도였다. 경쟁그래프를 보
는 그들의 눈에서는 불이 이글거렸다. 그들의 1등
은 확정된것이나 같았다. 몇달로임에 해당하는 막
대한 상금은 의심할바없이 그들의것이였다. 그 상
금이 그들의 기세에 더 부채질해주는것일수도 있었
다.

그런데 1등은 천만의외에도 다른 작업반에 차례
졌다. 더욱 놀라운것은 앞섰던 작업반에서 도와주
어 그들이 1등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떻
든 비료만 많이 나오면 제일 아니겠소? 장군님께서
도 우리가 상금을 많이 탔다는 소식보다 우리 공장
이 비료를 많이 냈다는 소식을 더 기뻐하실게오
다.》

하고 1등을 《넘겨준》 작업반장은 말했다.
《우리 작업반이 어떤 작업반인지 아시오다? 장군
님께서 우리 공장에 오시였을 때 바로 우리 작업반
이 일하는걸 직접 보아주시였댔소다.》

돈의 노예였고 한푼의 돈을 위해 서로 증오하고
피흘리는 일도 레상사였던것이 불과 5년전이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바치는 인생들이였다.

피와 살을 가진 기계였고 두발로 걷고 말하는 짐
승이나 다름바없었다. 다모토리 한잔에 저물어가던
인생들이였다....

두 교도관의 이야기와 다름바없는 세상이였다.
오늘 그들의 이야기에서 리인모는 아득한 그 시절
을 방불히 보았다. 그곳에서는 1950년에 이미 지나
간 옛날로 되어버린 과거가 이 땅에서는 아직 현실
로 되어있었다. 과거와 오늘이 동의어로 되어버렸
다.

만능의 대자연은 짐승을 인간으로 진화시키는데
수천만년일지 수억년일지 모르는 시간을 필요로 했
다. 그러나 청소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단
5년동안에 북쪽땅을 반수반인의 세상으로부터 인
간의 세상으로 변혁시켰다. 이것이 바로 혁명이였
다! 왜놈을 때려부신것보다 더 놀라운 혁명이였다!

장군님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 장군님께서 세
우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가 바로 그 조선
로동당의 한 당원이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의 한 공민이였다는것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일인
가!

모든 사람들이 당과 공화국을 한사람같이 따르던
1950년... 5월의 어느날 15억원의 인민경제발전채
권을 발행한다는 내각결정이 나왔었다. 공채예매기
간은 6개월이였다. 그런데 내각결정이 나온지 한주
일 지났을 때 재정성에서는 예정보다 10억원초과
한 25억여원의 공채가 팔렸으므로 예매를 중지한
다는 보도를 냈다. 시당선전부에서 해설사업을 준
비하는 사이에 예매는 다 끝나버렸다.

경쟁에서 1등한 작업반은 상금전액으로 공채를
샀다. 장마당에 소를 사러 왔던 한 농민은 내각결정
을 듣고는 소 살 돈으로 몽땅 공채를 사가지고 돌
아갔다.

《우리를 더 잘살게 하자고 내는 채권인데 소가
다 뭐겠소? 장군님께서 우리 농민들이 바친 애국미
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대학을 세워주셨잖소? 그
저 장군님께서 하란대로 하면 소만 생기겠소? 룡이
라도 생기잖을라우!》

밤에 집에 들어가니 아래목에서 잠든 현옥의 포
단옆에는 공채가 한뭉음 놓여있었다. 어머니와 안
해가 토론하고 집에 있던 돈으로 몽땅 공채를 샀다
는것이였다. 그 돈이란 음악을 좋아하는 안해에게
풍금이라도 사줄가 하여 저축한 돈이였다. 어머니
는 말했다.

《나라에서 내는 채권인데 뭘 아끼겠냐? 나라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풍금아니라 더 큰것도 생길게
다.》

나라란 곧 장군님이였다. 그리고 우리였다. 나였
다. 아, 나의 조국, 나의 나라!...

《이제 우리 현옥이가 다 컸을 땐 어떻게 달라질
가요?》

안해의 말이였다.

《그때에?》

상상하기도 빠근했다. 불과 5년사이에 이렇게 변했으니 이제 그런 5년이 세번네번 쌓이면 어떻게 변할까. 그때면 이 리인모도 지금의 리인모가 아닐 것이며 어머니와 안해도 지금의 어머니나 안해가 아닐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것이다.

《좋겠지! 더! 더!》

큰소리에 놀라 깨어난 딸애가 울음을 터뜨렸다.

《오- 오- 우리 현옥이 겠나?》

노래처럼 울리는 안해의 음성을 타고 은방울소리처럼 쟁쟁하던 딸애의 울음소리. 마을열 천기리쪽의 철길에서는 평양행 열차의 기적소리가 길게길게 울리고있었고 내호쪽의 비료공장에서는 밤교대고동소리가 부드럽게 울리고있었다.

만일 두살잡이 딸애가 그때 생각할줄 알았다면 왜 자기가 우는데 어른들은 소리높이 웃는지 이상스럽게 여겼을것이다. 딸애의 울음소리는 꿈의 래일로 향해가는 가정이라는 작은 배의 행복의 기적소리였다...

아, 해방후 5년! 그것은 단 하루였던듯 느껴진다. 밤이란 없었던듯싶다. 사실 그것은 단 하루동안의 일이 아니었던가. 그 추억을 더듬을 때면 오늘을 잊는다. 오늘은 없는것 같다. 오늘은 순간의 악몽이며 그 5년은 생의 전부였던듯싶다.

근 70년가까이 살아왔지만 단 석줄로 쓸수 있는 한평생. 《1917년 출생. 1945년까지 일제식민지하생활》,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활》, 《1951년부터 현재까지 미제식민지하에서 감옥생활》

인간다운 생활은 불과 5년이였다. 5년, 너무도 짧았다. 한순간이였다. 허나 그 5년은 파내고파내도 마를줄 모르는 추억의 샘이였다. 80여년세월 이 감방에 몸뚱이만한 쇠덩어리를 놓아두어도 그 세월이면 녹슬고 침식되어 부스러지고말았을것이다.

이 《세계》에서 그 긴 세월을 리인모라는 산 인간으로 변함없이 남아있을수 있는것은 바로 그 5년이 있음으로 해서였다. 소년시절부터 그려오던 **김일성** 장군님의 품속에서 살았던 5년이였다. 찢기고 터진 몸에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성에 덮인 감방에 알몸으로 앉아있을 때에도 그 5년간을 더듬으면 피는 다시 끓어오르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군했다. 5년. 그것은 나의 생애의 전부와도 같았다. 이제는 70이 불원한 나이, 한생을 다 살았다, 나의 생애는 끝났다 하고 리인모는 생각한다. 그 5년은 나의 생애에서 영원의 5년이였다. 한생이 그 5년을 위하여 있었다. 그런 5년이 그리워 근 30년을 숨어살고 쫓겨다녔고 바로 그 5년을 버릴수 없어 30여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5년, 영원의 5년... 이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을 살았다고 말할수 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추억할수 있는 행복한 시절이 있다는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가! 아, 나의 한생의 전부인 5년이 깃든 고향, 그 땅을 다시 한번이라도 볼수만 있다면!...

《선생님...》

하는 철창밖에서의 부름에 담벽은 한순간에 무료정한 콘크리트로 되돌아간다.

철창밖에 허효길이가 서있었다. 그를 보는 순간 까닭없이 가슴이 쿵 찢리운듯 저려든다. 정기라군 찾아볼수 없이 흐려진 눈, 숨진 닭의 쪽지처럼 축 늘어진 두팔, 늙은이처럼 구부정해진 잔등... 철창밖에 서있는것은 허효길이 아니였다. 마치 그의 망령을 보는듯했다.

《야! 모두 돌아왔으라! 전향식이다!》

교도관이 철창을 차며 소리지른다. 아, 리인모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한순간에 아득히 멀어진 허효길을 바라보기만 했다. 철창밖에 서있는것은 정녕 망령이였다.

《선생님, 전...》

허효길은 더 말을 못하고 눈물만 찼찼 흘리며 서있다. 여늬날처럼 찢기지도 터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더 비참한 모습이다. 그도 역시 자기를 보는 비전향수들의 눈에서 자신이 망령으로 변했음을 느꼈으리라.

리인모는 이미 그가 아니라 그의 뒤에 서있는 교도관들을 보고있었다. 께진 팔자루처럼 웃음으로 헤- 벌어진 입들... 네놈들이 종시 이 젊은이를 불구로 만들고 말았구나. 갈가리 찢기고 꺾이운 정신, 자신이 역겨워졌을 뉘, 더는 밝은 태양을 땃땃한 미소로 쳐다볼수 있는 눈도, 치욕없이 다른 사람을 마주볼수 있는 눈도 없다. 이제부터 긴긴 세월 그의 정신은 쥐처럼 보이지 않는 구멍만을 찾게 될것이다.

눈물의 전향식, 이는 한 젊은 뉘의 장례식이였다.

그는 더는 이 철창안으로 돌아올수 없을것이다. 그는 이제 죽은 사람이였다. 차마 마주볼수 없어 리인모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는 그 순간 아침해빛아래 어둠을 밀어내며 찬란히 떠오르는 들판처럼 환히 진면모를 드러내놓는 진리의 세계를 눈앞에 보았다. 이 철창은 결코 자유와 부자유의 장벽이 아니였다. 정신적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였다. 죽은 정신은 넘어설수 없는 경계선이였다. 이 철창안은 참으로 약동하는 정신, 꺾일줄 모르는 불굴의 정신만이 자리잡을수 있는곳이였다. 그리고 끝모를 광활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리인모는 자기의 주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들, 끊임없이 더 아름다와지고 훌륭해질 인간들을 보고있었다. 아무리 추억을 달리고 상상을 나래쳐도 끝없이 가없이 펼쳐만지는 빛나는 태양의 대지, 래일의 기슭을 보고있었다. 그것은 모두 그의것이였다. 그와 함께 태어났고 그와 함

게 살아왔으며 그의 사후에도 영원할 세계였다. 그는 언제까지나 그 세계의 한부분일 것이었다.

허나 철창밖에는 불안과 공포에 떠는 세계의 인간들만이 있었다. 악으로 빚은 교도관들, 이리같은 떠봉이들, 여우같은 소지들 그리고 태양을 쳐다볼 수 있는 눈을 잃은 정신적불구자들... 모든 사람을 불구자로 만들려고 존재하는 사악과 인간증오의 세계였다... 이 철창은 두 세계의 경계선이였다!... 자기를 인식한 노예는 더는 노예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이 철창안이 더는 나에게서 부자유의 세계가 아니다. 나의 온 생애, 미래의 생까지도 련결되어있는 삶과 투쟁의 세계이다.

《자- 자- 호텔로 가자지.》

교도관들이 떠미는대로 일반 사동쪽으로 허수아비처럼 밀려가던 허효길은 다시 한번 돌아보더니 통곡을 터뜨린다.

《선생님! 절... 절... 용서하십시오!...》

리인모는 주먹을 떨었다. 용서하지 않을테다. 절대로, 절대로! 그처럼 사랑스럽던 너를, 아름답던 너를, 우리 미래의 한부분이었던 너를 영원한 불구로 만들어버린 저놈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테다. 이 땅의 마지막 한사람까지 자기들같은 정신적불구자로 만들려고 하는 저놈들을 영원히 증오하고 저주할테다!

《울지 말라!》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부르짖음이었다. 눈물로 투쟁의 과거를 조상하지 말라. 눈물로는 이 경계선을 녹일수 없다. 아, 너에게도 나의 5년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이 철창안에서 숨쉬고있는 넓은 세계를 볼수 있었을것을! 여기에는 길이길이 애무하고싶은 영원의 5년이 있고 지구라고 부르는 이 행성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뜨겁고 가장 선량하고 가장 완강하고 억센 사람들과의 《상봉》이 있다...

뿌적- 뿌적- 콩크리트바닥을 부스르는 소리를 내며 교도관의 군화가 철창으로 다가온다. 그와 함께 바스락대는 쥐소리가 다시 선명해진다.

리인모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눈아래에는 종이장도 쥐도 없었다. 울통불통하고 습기찬 콩크리트바닥만 있을뿐이다. 어찌된 일인가. 종이장도 쥐도 그의 상념속에서만 존재했던것이란 말인가. 혹은 고통에 지친 육체의 한순간 동요가 눈앞에서 종이장을 보고있었던것이었는가.

《울지 말라?!》

쩔그렁- 철창이 열린다.

《어따대고 소리질이야?》

군화가 들어오며 무릎을 꿇 지리밟는다.

《이새끼!》

서른이나 갓 지났을 녀석이 로인을 보고 《이새끼》다. 허나 그럴수도 있다. 이 리인모는 아직 1950년에 있다. 네놈보다 더 젊었다. 나는 1950

년에 산다!

아픔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미 찢길대로 찢기고 부서질대로 부서져 더 상처입을곳도 없다. 다만 날아드는 군화발에 온몸은 천조각만조각으로 갈가리 찢겨져 천길심연에 휘뿌러지는듯 눈앞이 캄캄해질 뿐이다.

《전향서는 쥐구멍에 틀어박고 울지 말라? 물자갈을 물려도 떠드는가 어데 보자!》

그제야 리인모는 눈앞에 솟아있는 군화너머에서 쥐구멍으로 반나마 끌려들어간 종이장을 보았다. 종이장뒤에서 록두알같은 눈알이 반들거리며 내다본다. 군화가 날치는데도 놀란 빛이란 없다. 하긴 저놈은 태어나서부터 군화를 보아왔을것이다. 세상이란 이런것인거다 하고있겠지. 불쌍한 생명이다. 저 군화도 그놈과 다를바 없다. 이런 세상밖엔 모르는 생령이니말이다. 말그대로 쥐같은 인생이다. 두 소리가 화음을 이룬듯 느껴지던것이 우연치 않았다. 이자의 지껄임속에 쥐의 바스락소리가 있었고 쥐의 바스락거림속에 이자의 인생이 있었다.

실로 화음을 이루는 두 존재이다.

《나와-!》

철창을 짚고 몸을 일으킨다. 찢기고 부서진 몸, 뼈와 살은 금시 무너져내릴것 같지만 다시 이어지고 모다붙어 인간의 형체를 이룬다. 바닥에 내던져진 자기의 그림자를 리인모는 놀람에 차서 내려다본다.

오, 육체의 강인함이여!

허나 정신은 그보다 더 강하다.

《이새끼! 오늘은 아예 천당에 갈줄 알아!》

천당이 아니라 지옥이라도 내 가리라. 나는 인간으로 살아보았다. 비록 단 5년이였지만 그 5년이 나에게 영원이였다. 아쉬움없는 영원이였다!

한걸음 두걸음... 물이 물려온다. 철책같은 어둠이 소리치며 사품치며 물려온다.

벌써 가슴에 천근무게가 실린듯 숨이 막혀온다.

그러나 계속 걷는다. 울테면 오라. 나는 인간이였다. 인간으로 살았다. 그리고 인간으로 죽을것이다.

창세기의 대홍수가 밀려온대도 내 노아의 방주에는 오르지 않으리라. 북으로만 가리라. 백두산이 솟아있는 북쪽으로!

아, 보고싶은 북녘하늘이여...

명제해설

《극적인 이야기는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이 깨어지고 예상이 뒤집혀지는 충격적인데서 생겨난다.》

김정일

극문학을 다양하게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극적인것에 대한 리해를 폭넓게 가지는것이다.

지난날에는 갈등을 극적인것의 전부로 리해하였다. 물론 갈등을 설정하고 이야기를 엮어나가는것은 극적인것을 형상하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그러나 단순히 긍정과 부정 사이의 대립과 투쟁만이 극적인것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만일 극적인것에 대한 리해를 이렇게 갈등에 국한시켜 좁게 가질 때에는 긍정이 기본으로 된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는데서 지장을 받을뿐아니라 나아가서 일련의 편향까지 나타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극적인것에 대한 리해를 폭넓게 가질데 대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극적인것의 미학적 본질과 특징을 새롭게 밝혀주시었다. 극적인것의 미학적 본질과 특징을 정확히 밝히자면 세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극적인 이야기가 어디서 생겨나는가, 극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극적인 이야기가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는가 하는것이다.

극적인 이야기는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이 깨어지고 예상이 뒤집혀지는 충격적인데서 생겨나며, 일정한 곡절을 가지고있으며, 긴장감과 흥분을 불러일으킨다. 충격적인 이야기, 곡절있는 이야기, 긴장감있는 이야기가 바로 극적인 이야기로 된다.

극적인 이야기가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이 깨어지고 예상이 뒤집혀지는 충격적인데서 생겨난다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명제는 바로 극적인 이야기의 미학적본질을 밝히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첫번째 특징을 천명한것이다.

극적인 이야기가 어디서 생겨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이 깨어지는데서 나타난다.

여기서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이라는 말을 잘 리해하여야 한다. 이 말을 그저 보통의 레사로운 생활의 흐름이라는 말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치열하고 격동적인 생활의 흐름도 정상적일수 있다. 레하면 가렬한 전투마당이나 들끓는 건설장에서의 생활은 가렬하고 들끓는 가운데 흘러가는 매일매일의 생활 그 자체가 정상적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이란것은 아무런 새로운 문제가 없이 이전과 다름없이 진행되는 생활의 흐름이라는 뜻으로 리해하여야 한다. 어제도 바빴는데 오늘도 바빴다. 힘은 들지만 일은 예정대로 되어간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가렬하고 들끓는 양상을 띠고있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인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이 깨어진다고할 때 그것은 예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어 지금까지 진행되어오던 생활이 자기 궤도에서 벗어나 주인공의 의도와는 달리 흐르게 된다는것을 말한다.

극적인 이야기는 다음으로 예상이 뒤집혀지는데서 나타난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언제나 극의 발전에 대하여 일정한 예상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독자들이 가지게 되는 예상은 자연스럽고 믿어지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런데 그 예상이 뒤집혀지는것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독자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다른 필연적인 요인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예상이 뒤집혀지자면 그럴만한 전제를 충분히 깔아놓고있다가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속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본래의 흐름이 깨어지는 계기에서 불현듯 로출시켜 예상밖의 결과가 나타나게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이 깨어지고 예상이 뒤집혀질 때 독자는 큰 충격을 받는다. 바로 이것이 극적인것의 발생이다.

극적인것의 발생요인을 이렇게 본 주체적문예리론의 독창성은 어디에 있는가.

극적인것을 갈등만이 아니라 갈등이 없는 생활속에서도 찾을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밝혀준데 있다.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을 깨뜨리는 새로운 문제는 꼭 긍정, 부정의 갈등관계에서만 생겨나는것이 아니다. 갈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활의 정상흐름을 깨뜨리는 의의있는 인간문제는 얼마든지 제기될수 있다. 텔레비죤연속극 《백금산》에서 시당학교로 떠나는 정희에게 주인공이 준 편지를 승용차안에서 읽는 대목이 있다. 우리 류혁이의 심장이 터지는것을 보지 않겠거든 다시 우리 소대에 돌아오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알게 될 때 독자들의 예상은 완전히 뒤집혀지고 정희와 함께 큰 충격을 받는다. 소대장과 정희 사이에 갈등이 있는가? 없다. 정희가 그때까지 류혁의 사랑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것이 그의 잘못이며 따라서 그 어떤 갈등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는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해서 그들사이의 관계는 더 순결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운것이다.

이처럼 극적인 이야기에 관한 주체적문예리론이 새로 밝혀짐으로써 주체사실주의문학은 극적인것에 대한 폭넓은 리해를 가지고 극적인것의 탐구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수 있게 되었다.

세월은 흘러가도

리진권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5권의 마지막페이지를 덮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벌써 두번째로 읽는 회고록이었다.

아버이수령님이 사무치게 그리워지고 슬픔으로 가슴이 미여지다가도 회고록만 읽으면 수령님을 뵈는 듯한 느낌과 함께 그이의 다정한 음성을 듣는 듯하여 마음이 사뭇 가벼워진다. 그러나 나의 회고록 학습은 단순히 마음의 안정이나 슬픔만을 가시기 위한것이 아니다. 회고록을 읽을 때마다 수령님께서서는 결코 우리 결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생각과 함께 때 문장들마다에서 그 심원한 진리와 웅심깊은 생활철학을 한두가지씩 새롭게 받아안게 되기때문이다. 하긴 이 세상에서 돌도 없는 위인의 전기를 어떻게 한두번 읽는것으로 그에 담겨있는 철리를 다 소화할수 있겠는가.

이번에도 나는 회고록을 또다시 읽으면서 수령님께서 회고하신 혁명전사들이 모두 몇명이나 되는가를 알기 위해 한사람한사람 이름을 적어나갔다. 그런데 오늘 회고록 5권까지 다 읽고 수령님께서 회고하신 셀수 없이 많은 혁명전우들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정말 사실로 믿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천문학적수자이다. 하늘도 시간을 두고 변하고 사람도 일생을 두고 변한다는데 어쩌면 수령님께서서는 60여년의 세월이 흘러간 오늘까지도 먼저 간 사람의 이름과 나이, 육성과 습관, 취미에 이르기까지 그 술한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계실수 있단 말인가. 지어 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나날 뉘집에서 언제 어느때 마늘 짬지며 고추장을 맛나게 잡수신 일까지 기억하고계시기도 하신다.

천척간에도 발길이 떠지면 정이 멀어진다는데 수령님께서서는 70년전 일까지도 잊지 않고계시니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그저 천재라는 두 글자로만 표현할수 있으랴.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인정은 시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시간의 힘앞에서는 모든것이 퇴색하고 조락해버리지만 인정 하나만은 매장시켜버리지 못한

다. 진실하게 맺어진 우정이나 사랑에는 로쇠라는것도 있을수 없고 변질이라는것도 있을수 없다.》

나는 수령님의 이 뜨거운 혁명적의리심을 어느날 밤 주작봉마루의 혁명렬사릉에 가보고서야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날밤 나는 렬사릉앞에 펼쳐진 수도의 낮익은 거리와 지형지물들을 하나하나 정겹게 바라보며 승업한 감정에 사로잡혀있었다. 그런데 얼핏 불빛이 유난히 밝은 금수산의사당이 눈에 안겨오자 나의 가슴은 전류가 흐르는듯 찌르르해났다.

수령님을 모시고있던 행복한 날들에는 렬사릉에서 금수산의사당을 바라보며 수령님을 그리군하였는데 그이께서 우리 결을 떠나신 오늘에 와서 그곳을 바라보니 우리 가슴 끝없이 미여져오는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아버이수령님을 잃은 애석한 마음이 너무도 큰때문일것이다.

금수산의사당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선 나의 심정이 헤아려졌던지 이곳의 강사가 걸으로 다가오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렬사릉은 아버이수령님의 집무실과 한시도 떼여놓을수 없는곳입니다. 눈비 쏟아지는 날이나 자정이 넘은 밤이면 늘 수령님께서 여기 렬사릉을 바라보시며 전우들을 회고하시곤하셨답니다. 지금도 금수산의사당의 불빛은 창가를 바라볼 때면 아버이수령님께서 금시라도 일어나시여 이곳을 바라보시는것만 같은 심정입니다.》

진정 그랬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혁명렬사들의 위훈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바로 여기 대성산주작봉마루에 혁명렬사릉건립을 발기하시고 투사들의 옛모습은 그대로 살리도록 매 전사들의 얼굴모습이며 취미, 생각까지도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렬사릉건립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었다.

일찌기 수령님께서서는 로야령의 험한 칼벼랑과 수없이 뻗어간 천교령의 밀림, 이름모를 무인지경과 산등성이들에서 피흘리며 쓰러진 전우들과 영결하면서 지금은 타향만리 언땅에 그대들을 두고간다면 해방의 날이 오면 고향땅 뒤통산에 업고가 그대들

의 령전에 묘비를 세우고 상석을 깔고 돌레에는 꽃을 심어 년년이 그대들을 조상하리라고 결심을 다지시였다.

그날에 다시진 그 맹세대로 그들의 유골을 하나하나 찾으시여 수도 평양이 한눈에 굽어보이는 명당자리에 그들의 반신상을 안치해주신 어버이수령님!

그러시고는 명절때나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는 길로 미흡한 점들이 없는가고 알아보시기도 하시고 몸소 기르신 저택의 나무들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들에 분포되어있는 나무의 이름까지 찍어가시며 떠올려심도록 하시였다.

하여 오늘 렬사릉주변에는 항일의 나날들에 다시신 맹세대로 사시장철 푸르른 소나무와 전나무들이 설레이고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하며 고운 새들이 날아와 노래부르고있는것이다.

실로 어버이수령님께서 혁명렬사릉에 바쳐오신 로고에는 먼저 간 혁명렬사들에 대한 수령님의 가장 높고 깨끗한 의리와 고결한 동지애, 변함없는 순정이 고스란히 비껴있다.

언뜻 나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 남기신 한구절의 글말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우정은 산사람이 죽은 사람을 잊지 않을 때 그 우정은 공고하고 진실하고 영원한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그 우정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자주 추억하고 그들의 업적을 널리 소개하며 그들이 남기고간 후대들을 잘 돌보고 그들이 남긴 유지를 잘 지키는데서 계속된다고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우정관, 의리관은 국제주의전사 장울화와 노비첸코, 전 도이첼란드민주주의공화국 내각수상이었던 옷토 그로테불가족 4대에 걸쳐 돌려주신 사랑 그리고 수많은 외국인사들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불가족 4대에 걸쳐 돌려주신 사랑 그리고 수많은 외국인사들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고 깊은 우리 수령님의 도량은 이처럼 언어도 혈통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도 뛰어넘는 위대한것이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을 한번 만나뵈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와 같이 그이를 못잊어하며 그이를 따르는 길에서 모든것을 다하는것이 아니라.

진정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의리는 하늘이 변하고 지구가 변한다 해도 로쇠와 변질을 모으며 대륙과 대양을 넘어 그 어디서나 고스란히 꽃

피는것이다. 한번 사귀면 영원한 우정을 나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의리, 그것은 정녕 죽은 사람을 절대로 죽었다고 보지 않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살아있다고 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보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시고 그들의 유언을 지키고 그 자녀들의 모습에서 먼저 간 전사들의 모습을 그리시고 추억도 하시며 끊임없이 보살펴주시는 여기에 우리 수령님의 고상한 우정, 고귀한 의리의 영원성이 있는것이다. 하기에 그 품속에서는 당과 조국을 위해 한목숨 바친 사람도 영원한 모습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오고 행정지역으로 그 이름 빛나며 사로청원이 당원으로, 남반부의 청년학도가 명예대학생으로 졸업증을 수여받게 되는것이 아니라.

그밤 혁명렬사릉에서 바라보는 수도의 야경은 황홀하기 그지없었다. 주체사상탑의 불타오르는 화불, 고려호텔의 깜박이는 불빛, 5월1일경기장, **김일성** 종합대학의 층높은 교사와 멀리 바라보이는 조선혁명박물관과 개선문... 그야말로 렬사릉에서는 평양의 이름난 지형지물과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이 한눈에 굽어보인다. 여기서 투사들은 보았을것이다. 5월1일경기장에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개막을 알리며 타오르는 봉화도 보았을것이며 더우기 만수대언덕에서 울리던 7월의 호곡소리도, 100리연도우에 그칠줄 모르던 곡성도 들었으리라.

그러나 투사들도 위대한 어버이이신 수령님께서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믿으며 래일을 락관속에 지켜보리라...

우리 인민들은 수도 평양의 거리거리와 지방의 여러 도, 시, 군들에 새로 모셔진 태양같이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조선의 앞날을 축복하시는 인자하신 어버이의 영상을 뵈으며 어버이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안고사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세월은 흘러도 영원불변한 의리를 지니시고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한생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그이께서 남기신 유언을 끝까지 관철해갈것이다.

그리고 우리 수령님과 꼭같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충심으로 받들며 세세년년 조선의 이름을 떨쳐갈것이다.

그렇다! 우리 수령님의 불변의 의리를 따르는 인민의 마음은 무궁한 세월속에 경애하는 그이를 받들며 영원하리라.

고결한 충정

엄휘철

△ 때: 1950년 여름
△ 곳: 금강계선의 어느 한 도하장
△ 나오는 사람들
김 책: 전선사령관
부 관: 상좌
참모장: 소장
정명수: 대위
라혜경: 담당군의 (명수의 애인)
허경철: 연락병
통신참모: 중좌
중대장: 대위
기 타: 습격조장
간호원1, 2
전사1, 2, 3

서 장

△ 포연서린 고지들이 흐름막을 타고흐른다.
총포탄 작렬하는 소리 요란하다.

설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 이야기는 조국해방전쟁이 가렬치절하던 1950년 여름 금강계선의 어느 한 도하장에서부터 시작된다.》

△ 포연서린 금강기슭에서 흐름막이 벗으며 제명이 새겨진다.

고결한 충정

제 1 장

△ 무대: 금강도하장.
통나무와 적들이 버리고간 잔해로 쌓아올린 방탄벽이 나무들속에 구축되어있다. 여기저기에 파괴된 적들의 탱크, 자동차 잔해들이 널려있다. 그 한옆에 바위, 나무들사이로 금강너머 요새화된 적진지들이 보인다.

△ 막이 오르면 마치질소리, 툽질소리, 자동차 발동소리 요란하다.

소리- 《하나, 둘...》

《영차, 영차, 여영차-》
《여, 폐목, 기슭에 붙으라-!》
《탱크, 폐목에 오르라-》

△ 전사1. 통나무를 메고 지나간다.
2. 통신선을 늘이며 달려간다.
3. 포탄상자를 메고 지나간다.
△ 배낭을 멘 명수 팔소매로 이마의 땀을 씻으며 나온다.
명수: 모두들 금강도하준비로 욱욕 하누나.
내가 전연으로 나오길 정말 잘했어. 빨리 부대를 맡겨달라고 해야지.
△ 전쟁분위기에 맞지 않는 인형함을 안은 허경철 두리번거리며 나온다.명수: 여 상등병.
경철: 아 대위동지, 말쑥 물읍시다.
명수: 동무 군대야 장돌뱅이야 영? 금강도하가 눈앞에 다가온 시각에 이걸 뭐냐말이야.
경철: 아 이것말입니까?(동문서답하며) 전선사령관 동지 못봤습니까?

명수: 누구라구?
경철: 전선사령관동지 말입니다. 제 연락병입니다.
명수: 뭐 전선사령관동지가 여기 나왔단 말이요?
경철: 여기 어디 계시겠는데...
명수: 그렇단 말이지. 전선사령관동지는 내 심정을 알아줄거야. 됐어.(나가려다가) 여 연락병, 동무가 그따위나 들고다니면 전선사령부 위신이 뭐가 돼, 응?
경철: 예? 아 이걸 전선사령관동지가 구해오라고 한겁니다.

명수: 뭐 전선사령관동지가?
경철: 예.
명수: 아니 이 친구가 점점... 그래 남진의 길에 오른 대련합부대를 지휘하는 전선사령관이 인형?

경철: 모르면 다 이렇다니까.(나간다.)

명수: 하, 저 친구봐라-

△ 자동차 멧는 소리.

△ 소리- 《차렷. 전선사령관동지, 부대는...》
《쉬엿하오.》

△ 군관들 나와선다. 뒤따라 전선사령관 김책, 참모장 나온다.

참모장: 여기가 4사 18련대 도하구역입니다. 지대가 평탄하고 물이 얇은 여물목이어서 도하장으로서 제일 적합합니다.

앞에는 적 1개 사단과 두개의 공병대대가 항공대의 지원밑에 완강히 방어하고있습니다.

김책: 음, 그렇다-!

참모장: 계획대로 도하를 단행하자면 이 지대에 고사무력을 증강해야겠습니다.

김책: 고사무력?

참모장: 예, 적들은 이 계선에 두개의 폭격기사단을 배치해놓고 통나무만 물에 떠도 가차없이 폭격을 해댑니다. 게다가 오산비행장과 항공모함에서 날아드는 적기까지 합하면 말그대로 갈가마귀떼를 련상시킵니다. 김책: 음(사이) 여기에 전개된 우리의 고사무력은 얼마나 되오?

참모장: 적기를 제압하기엔 너무나도 적은 수자입니다.

김책: 음...

△ 통신참모 들어온다.

통신참모: 전선사령관동지.

김책: 뭐요?

통신참모: 공병대대가 복구했던 다리가 적기의 폭격에 또 끊어졌다는 통신이 왔습니다.

김책 }
참모장 } 뭣이?

참모장: 그럼 기계화 보병사단은?

통신참모: 일시 그자리에... 전선사령관동지. 공병대대에서는 고사무력을 요구합니다.

김책: 고사무력?

통신참모: 예, 적기들을 제압하고 다리를 복구해야 했는데 고사무력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참모장: 보십시오. 어디서나 고사포, 고사포를 요구합니다.

김책: 음.

참모장: 저... 공병대대에 고사포를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책: 그럼 여기 4사는...

참모장: (안타까와하며) 이것 참...

김책: (생각에 잠겼다가) 통신참모, 공병대대에 수증다리를 건설하라고 하오. 수증다리...

통신참모: 수증다리말입니까?

김책: 음, 오늘밤 12시까지 무조건 끝내라고 하오.

통신참모: 알았습니다.

김책: 참, 평양에 간 부관한테서는 아직 소식이 없소?

통신참모: 예, 아직...

김책: 알겠소.

통신참모: 돌아가겠습니다.(나간다.)

△ 명수 나온다.

명수: 원장동지.

김책: 아니 이게 누구야, 정명수.

명수: 건강하십니까?

김책: 응. 보위성에 배치받았다던 동무가 어떻게 여기에...

명수: 거야 평양학원 졸업생이 아닙니까. 장군님께서 건국의 어려운 나날 오늘을 내다보시고 키운 우리들인데 후방에서야 어떻게...

김책: 음, 그래서 여기로 나왔단 말이지. 좋아, 잘 왔어. 여기에 동무와 같은 포병출신이 필요해.

명수: 그렇습니까?!

김책: 음, 잘 왔어.

명수: 전선사령관동지, 그럼 저에게 고사포를 맡겨 주십시오.

김책: 고사포?

명수: 예, 여기에 와보니 사방에서 고사포, 고사포 하더구만요. 제 본때를 보이겠습니다.

김책: 좋아, 한몫 해야 하구말구. 곧 임무를 줄테니 대기하고있소.

명수: 정말입니까?

김책: 음.

명수: 야, 원장동지가 제일이구나.(김책을 번쩍 들 어안고 빙그르르 돌린다.)

참모장: (당황하여)여 대위, 대위,...

명수: (내려놓는다.)

참모장: 이 동무가 점점...

김책: 놔두오. 이 친구는 평양학원시절에 장군님앞에서도 나를 배지기 떴댔어. 꼭 유격대중대장을 하던 아버지를 닮았거든.

참모장: (웃는다.)

김책: 명수, 대기하고있소. 곧 임무를 주겠소.

명수: 알았습니다.(나가려 하는데.)

김책: 참 혜경이와 다뤘다며?

명수: 예-예? 아니 전선사령관동지가 그걸 어떻게...

김책: 뭐 군복을 입지 않으면 결별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지?

명수: 아 지금이야 누구나 다 군복을 입지 않습니까.

김책: 그렇다구 다 전선으로 나오면 후방은 누가... 엉? 더구나 혜경이는 최고사령관동지 주치의사인 박사의 딸이 아닌가. 그러니 아버지의 대를 딸이 이어야지 누가 잇겠나. 만나면 사죄하라구. 혜경이가 지금 여기에 와있어.

명수: 예-예? 여기 말입니까?

김책: 음...

명수: (기쁨에 넘쳐)알았습니다.(나간다.)

김책: 참모장, 각 부대에 배속된 고사포들을 이 여울목계선에 집결시켜 강력한 반항공무력을 형성하십시오.

참모장: 알았습니다.(나간다.)

△ 경찰 함을 들고나온다.

경찰: 전선사령관동지, 연락병 허경찰,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김책:** 빠르군. 전선사령부 제비가 달라.

경찰: 아침에 말씀하시던 완구를...

김책: 어디 보시오.

경찰: (함을 내준다.)

김책: (반아보고 유심히 살피다가 함에서 인형을 꺼내본다.)안되겠소.

경찰: 예? 야 제일 크고 좋은건데...

김책: 음, 수고는 했는데 안되겠소. 인형이라니... (사이) 가만, 전세계를 한눈에 굽어볼수는 그런게 없을가?

경찰: 전세계를 말입니까?

김책: 음.

경찰: 알겠습니다. 제 꼭 구해보겠습니다.

김책: 그래주오. 가만... 동무 운게 아니요?

경찰: 예? 저... 아 아닙니다...

김책: 눈물자리가 있는데두?

경찰: 예? 저 사실 방금 전선사령관동지를 찾아 여울목에 나갔다가 제 친구가 숨지는걸...

김책: 친구가?

경찰: 예, 여울목에 폭탄을 퍼붓는 적기와 보병총을 들고 싸우다가 그만... 그 친구는 마지막숨을 몰아쉬면서 고사포, 고사포 하고는... 전선사령관동지, 우리에게 고사포가 더 없습니까?

김책: 고사포...(무거운 생각에 잠긴다.)

경찰: 미안합니다. 제 너무 안타까워서...

김책: 왜 안타깝지 않겠나. 어서 가보라구.

경찰: 돌아가겠습니다.(나간다.)

김책: (혼자소리로)금강도하의 승패는 고사무력에 달려있다. 최고사령부에 고사무력을 요구하자.

△ 자동차 멎는 소리에 이어 부관 들어온다.

부관: 전선사령관동지, 부관 김관호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김책: 수고했소. 기다렸소. 그래 우리 집에 들려왔겠지?

부관: 예, 아주머니를 만나보았습니다.

김책: 그렇소?

부관: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최고사령관동지 자체분께서는 건강히 잘 있다고 합니다.

김책: 어리신 《우리 장군》이 잘 있단 말이지.

부관: 예.

김책: 음(몹시 기뻐하며) 그래 요새 무얼하고 지내다오?

부관: 최고사령부 작전대결에 나오시여 군사적인 지략과 담력을 키우고계신답니다.

김책: 최고사령부 작전대결에? 《우리 장군》이 말이지?

부관: 예.

김책: 아, 파시 《우리 장군》은 나라의 큰 장군감이요. 나라의 큰 장군감!

부관: 그렇습니다.

△ 북으로 날아가는 적기의 동음.

김책: 가만... 요즘 평양하늘형편은 어떻소.

부관: 하루에도 10여차례씩이나 적기의 맹폭격을...

김책: 뭐? 아니 그럼 최고사령부에도 적기가?

부관: 그렇습니다.

김책: 그런데도... 그런데도 《우리 장군》이 최고사령부를 떠나지 않는단 말이요?

부관: 그렇습니다. 자체분께서는 최고사령관동지는 개인의 몸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몸이라고 하면서 장군님의 안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계십니다.

지어 최고사령관동지의 식찬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김책: (혼자소리로)아- 나라와 민족의 몸... 얼마나 지극한 효성인가. 김정숙동무가 늘 그러시더니 그 지성을 그대로 이었구나.(거닐면서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데 난 무슨 생각을 했던가.

최고사령부에 고사무력을 달라구? 아- 그토록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해 마음쓰시는 자체분앞에 내 무슨 근심을 끼칠번했는가.

아- 나도 아직 멀었구나, 멀구 멀었어.

△ 참모장 나온다.

참모장: 전선사령관동지, 명령대로 고사무력을 여울목계선에 집결시켰습니다.

김책: 참모장동무.

참모장: 예.

김책: 집결된 고사포들중에서 한개련대를 떼낼수 없을가?

참모장: 한개련대를 말입니까?

김책: 음.

참모장: 저... 예비대로 쓰시렵니까?

김책: 아니, 내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러오.

참모장: 우리의 주타격지점이야 여기 도하장이 아닙니까.

김책: 고사포 없이도 도하를 보장할 무슨 방법이 없을가?

참모장: 전선사령관동지두 참, 아 지금같은 정황에

선 교사포가 많아야 한다는거야 초보적인 군사상식이 아닙니까.

김책: 청소한 우리가 세계 《최강》을 사랑하는 미제와 맞서 싸워이기는건 상식을 초월하는게 아닌가?

참모장: 글쎄 그건 그렇지만 한개 런대를 땀다는것은...

김책: 불가능하단 말이지.

△ 통신참모 나온다.

통신참모: 전선사령관동지, 금강계선으로 이동해오던 땅크려단이 적기의 공습에 대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있다고 합니다. 땅크려단장은 교사무력을 요구합니다.

김책: 교사무력? 땅크려단장이 말ियो?

통신참모: 그렇습니다.

참모장: 보십시오. 놈들의 항공우세를 타개하고 금강을 넘자면 결정적으로 교사무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김책: (잠시 고심하다가)땅크려단장에게 대도로를 버리고 수림으로 질러오라고 하오.

참모장 }
통신참모 } 에-에?

김책: 그렇게 되면 폭격에도 안전하고 길도 단축하고... 음?

참모장: 수림속에는 길이 없습니다.

김책: 땅크려단장은 꼭 해낼게요. 그렇게 답전을 치시오.

통신참모: 알았습니다. (나간다.)

김책: 교사포, 교사포... (거린다.) 참모장의 말은 옳다. 그렇다면 교사포를 땔수 없단 말인가? 아니, 부관.

부관: 옳.

김책: 교사포진지에 나가봅시다. (나간다.)

제 2 장

△ 무대: 교사포진지.

나무들이 들어찬 수림속에 교사포진지가 자리잡았다. 지척에 금강이 보이고 강건너 적진지들이 보인다.

△ 2장이 펼쳐지면 진지굴설작업을 다그치는 포병들의 말소리 들려온다.
포중대장 달려나온다.

중대장: (밖에 대고) 여- 1포- 위장을 다시 하오- 소리: 알았습니다.

중대장: 여 3포장, 포를 앞으로 바짝 끌어붙이오. 소리: 알았습니다.

중대장: (혼자소리로) 제길, 쉬파리떼같은

적기들을 제압하고 금강도하를 보장하자면 교사포가 많아야겠는데...

(다시 밖에 대고) 여 1포- 위장을 빨리하오.

△ 간호원1, 2 위생가방을 메고 물통을 들고나온다.

간호원1: 중대장동지, 수고하십니다.

중대장: 아니, 간호원동무들이 어떻게...

간호원1: 예방치로 나왔습니다.

간호원2: 중대장동지, 술일차입니다.

중대장: 아니 뭐 술일차?

간호원2: 포병들의 눈이 밝아야 적기들을 광광...

중대장: 고맙소. 자 동무들, 쉬고 하지요. (밖에 대고 소리친다.)

간호원2: 쉬고 하자요.

△ 전사들 나온다. 간호원들과 인사가 오고간뒤 술일차를 마신다.

△ 중대장 물통을 든채 생각에 잠겨있다.

간호원1: 아니 중대장동지, 그런데 뭘 그렇게 심중히 생각하고계십니까?**중대장:** 아 아무것도 아니요. 교사포때문에...

간호원1: 교사포요?

중대장: 음, 전선사령관동지가 이 교사포때문에 몹시 고심하더구만. 어제밤에도 포진지에 나오셨댔소.

모두: 그래요?!

간호원2: 왜 그러실가요?

중대장: 적기들은 증강되지, 교사포는 부족하지, 그런데 사방에서는 교사포를 달라고 하지. 그러니 전선사령관동지가 얼마나 속라겠소. 에이 무슨 방도가 있긴 있어야겠는데...

△ 모두 생각에 잠긴다. 이때 김책, 참모장뒤에 나와선다.

간호원1: 참, 중대장동지, 동무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중대장: 어떻게 말ियो?

간호원1: 이 교사포진지주변에다가 허위교사포진지를 만들면 어떨까요?**모두:** 허위교사포진지?

간호원1: 예, 그렇게 되면 적기들이 진짜 교사포진지인줄 알고 덤벼들게 아닙니까.

간호원2: 그때 진짜포로 땀다 갈기자는거지요?

간호원1: 맞았어요.

전사1: 아 그렇게 되면 놈들은 쓸데없이 폭탄을 허비하고 우리는 교사포들을 적기들의 공습으로부터 보호하고...

전사2: 적들에게는 우리의 교사무력이 증강된것처럼 공포를 주고.

전사3: 아 그러니까 거 조발에 허수아비를 세우는 것과 같이 한단 말이지.

△ 모두 웃는다.

전사4: 아바이,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김책: (나오며) 되겠소.
 중대장: 아니? 전선사령관동지, 중대는...
 김책: 쉬엿하오.
 중대장: 알았습니다. 쉬엿.
 김책: 간호원동무들이 아주 중요한 생각을 했소. 그러니까 허위고사포진지를 만들어놓고 적기들을 속여넘긴단 말이지?
 모두: 그렇습니다.
 부관: 그것참 묘한 생각입니다.
 김책: 중대장 생각은 어때?
 중대장: 멋진 방법입니다. 당장 허위진지를 만들겠습니다.
 모두: 만들겠습니다.
 김책: 가만, 그런데말이요. 내가 적비행사라면 결코 이 포진지에만 매달리지 않겠소.
 모두: 예-에?
 김책: 생각해보오. 우린 금강을 건느는게 목적이고 적들은 그걸 막자고 발악하고. 그러니 놈들은 고사포보다 여기 금강도하장에 눈독을 들일거란 말이야.
 간호원2: 그러니까 허위고사포진지는 필요없겠구만요.
 김책: 아니, 놈들의 이목을 다른데로 돌리자는 생각, 이게 중요한거야. 자 가까이들 오오.
 △ 모두 김책을 둘러싼다.
 김책: 우린 바로 여기 이 여울로 도하를 강행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적기가 덮치지 못하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전사3: 적기가 아예 뜨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김책: 어떻게?
 전사3: 아 그거야... 저...
 △ 모두 웃는다.
 중대장: 적들의 이목을 다른데로 돌려야 합니다.
 김책: 이목을? 어떻게-
 전사2: 허위도하장을 하나 만듭시다.
 김책: 허위도하장?
 중대장: 예, 적기가 이 허위도하장을 때리게 하고는 우린 이 여울로 감쪽같이 도하할...
 김책: 바로 그제야.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는 동성서격의 전술, 장군님 전법이란 말이야. 어때, 허위도하.
 모두: 좋습니다.
 김책: 간호원동무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냈소.
 간호원1: 허위도하전술이야 전선사령관동지가...
 김책: 아니 허위라는 착상을 한건 바로 동무거든. 사내대장부보다 나아-
 △ 모두 즐겁게 웃는다.
 전사2: 전선사령관동지, 이 즐거운 시각을 거저 보

내겠습니까?
 김책: 거저라니, 중대장,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응?
 모두: 좋습니다.
 △ 《적기가》의 선율에 맞추어 흥겨운 춤판이 벌어진다. 김책 그들과 어울려 춤을 춘다. 춤이 고조된다.
 △ 적기의 폭음소리에 춤이 멎는다.
 중대장: 전선사령관동지, 허위도하장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책: 음.
 중대장: 자 동무들, 날따라 앞으랴!
 △ 모두 나간다.
 김책: 부관, 참모장을 찾아오시오.
 부관: 알았습니다. (나간다.)
 김책: (혼자소리) 언제나 전사들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이 천만번 지당하구나!
 △ 라혜경 나온다.
 혜경: 전선사령관동지.
 김책: 아 혜경이.
 혜경: 얼굴색이 좋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김책: 난 일없소, 일없어.
 혜경: 그러다 쓰러지면 전선은 누가 지휘합니까. 어제밤에도 포진지에서 꼬박 새우시고...
 김책: 글썄 일없다니까. 전방치료대에 나가주오. 오늘 폭격에 전사들이 좀 상했더구만.
 혜경: 저야 전선사령관동지 담당군의가 아닙니까.
 김책: 야전군의들의 일손이 딸리더구만.
 혜경: 그래도...
 김책: 어서... (나간다.)
 혜경: 야, 전선사령관동지 어찌면... (나간다.)
 △ 포탄상자를 멘 명수 나오다가 혜경을 발견한다.
 명수: 가만, (포탄상자를 내려놓으며) 거 혜경동무 아니요?
 혜경: (돌아서며) 어머, 명수동무.
 명수: (혜경의 옷차림을 살펴) 혜경동무, 그 군복이 아주 잘 어울리누만. 멋있어.
 혜경: (새침하여) 그래 지금은 마음에 드는가요?
 명수: 마음에 드오. 마음에 든다니까, 하하하. 사죄하오. 그렇지 않아도 전선사령관동지가...
 혜경: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하는 사죄군요.
 명수: 혜경이...
 혜경: 지금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세요?
 명수: 저 아직 부대를 받지 못했소.
 혜경: 예-에? 아니 그때 저한테 큰소리를 칠 때 갈아신 당장 영웅이 될것 같더니 어떻게 된 일이세요?
 명수: 큰소리? 하하하, 내 그 큰소리때문에 동무도 군복을 입은게 아니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

이지.

혜경: 저에게 군복을 입힌건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이예요.

명수: 최고사령관동지?

혜경: 예, 어느날 주치의사인 저의 아버지를 부르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금 전선사령관동무가 남진의 길에 올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저를 담당군의로 보내자고 하셨대요. 그리고 몸소 이 군복까지...

명수: (목이 메여) 혜경이, 우리 잘 싸우자구.

혜경: (사이) 호호호. 명수동무, 그때 왜 그렇게 성을 내셨어요?

명수: 그때? 하하하. 혜경이, 지금 우리 조국이 얼마나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소. 이런 때 우리 피끓는 청춘들이 한몫을 해야 할게 아니요? 난 그 길에 우리가 나란히 섰으면 했던거요.

혜경: 저라고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저에겐 아버지처럼 유능한 의사가 되어 장군님의 건강을 잘 받아들이야 할 임무가 있었어요. 이건 전쟁전에 전선사령관동지가 저에게 준 임무였어요.

명수: 내 미쳐... 하하하. 멋대가리없이 우들먹거리는데 명수라니. 그래서 동무도 날 좋아하는 거구 응?

혜경: 어마나, 누가 들겠어요.

명수: 들으면 뭐라고? 전쟁은 사랑의 절정이라는 시도 있는데.

혜경: 하긴 그래요. 전쟁은 인간들의 가슴에 간직된 아름다운 감정을 고도로 승화시켜요. 사랑도, 의리도, 애정도...

명수: 그럼, 그래서 전쟁이 인간들을 키운다고도 하지 않소.(이마의 땀을 씻는다.)

혜경: 아이 그 땀! (위생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준다.)

명수: 이건 손수건 아니요? (펼쳐보고) 승리!

혜경: 명수동무, 우리 승리의 그날까지 잘 싸우자요.

명수: 혜경이! (손을 잡는다.)

△ 보자기에 싼 물건을 든 경철 나온다.

경철: 저 군의동지.

혜경: 어머. (당황해 한다.)

명수: 뭐요?

경철: 아 저 어서 계속... (뒤걸음친다.)

혜경: 경철동무, 왜 그래요?

경철: 저... 전선사령관동지 못봤습니까?

혜경: 방금 저기로...

경철: 그렇습니까? 전 그럼... (나가려다.)

혜경: 가만... 경철동무, 그런데 그건 뭐예요?

경철: 아 이것 말입니까? 이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겁니다.

명수: 세상에서 제일 귀한것?

혜경: 뭐가?

경철: 알고싶지요?

혜경: 예, 어서

경철: 에이, 내 말한다. 아니 이걸... 절대비밀입니다. (나간다.)

명수: 하 참 재미있는 친구거든. 자 그럼. (포탄상자를 메고나간다.)

혜경: 수고하세요. (반대쪽으로 나간다.)

△ 김책, 중대장 나온다.

김책: 중대장.

중대장: 옛!

김책: 포진지들에 대한 위장을 잘해야겠소.

중대장: 알았습니다.

△ 참모장, 부관 나온다.

참모장: 전선사령관동지.

김책: 아 참모장, 방도를 찾았소. 고사포 한개 편대를 때낼수 있는 방도말이요

참모장: 예-에?

김책: 허위도하를 하자는거요.

참모장: 허위도하요?

김책: 음, 허위도하전술이 성공하면 우린 적기의 피해를 받지 않고도 금강을 넘을수 있소. 허위도하장에선 떠들썩하고 진짜 도하장에선 은밀성을 보장하면 응? 어떻소.

참모장: 아 그것 참 묘한 전술입니다. 될수 있겠습니까.

김책: 되겠소?

참모장: 예, 되겠습니다. 하하하.

김책: 참모장이 오래간만에 웃는구만 응?

참모장: 하 그 고사포때문에...

김책: 하하하, 허위도하준비에 착수하시오.

참모장: 알았습니다. 여울목에 고사포를 증강하고 도하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김책: 으음? 증강?

참모장: 예.

김책: 난 여기서 고사포를 떼자는건데?

참모장: 예-에? 허허허, 아 거 무슨 룡담을 그렇게...

김책: 아니 룡담이 아니요.

참모장: 아니 그럼...

김책: 떼넌시다.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땐 무장이 강해서 왜놈들을 이길줄 아오?

참모장: 글썄 그건 그렇지만...

김책: 그때나 지금이나 놈들과 싸우는건 우리가 아니요. 우리의 심장이 발동되면 난관을 타개할수 있소.

참모장: 전선사령관동지, 우리는 지금 세계 《최

강》을 사랑하는 미제와 현대전을 하고있습니다.

김책: 현대전에서도 그 주인은 우리요.

참모장: 놈들의 항공우세를 타개하지 않고서는 금강도가 불가능합니다.

김책: 힘들테지. 나도 힘드오. 하지만 우린... 지도를 보지요.

△ 부관 지도를 편다. 모두 지도에 집중한다.

김책: 증강된 적기들은 어디서 뜨오?

참모장: 여기 좌표 360, 이 지대입니다.

김책: 연유공급은?

참모장: 비행장으로부터 40키로미터 떨어진 여기이 골짜기입니다.

김책: 음, 그렇다. 담배 있소?

부관: 전선사령관동지, 담배는 안됩니다. 심장에 또...

김책: 주오. (담배를 피워문다. 몹시 기침을 한다. 거닐면서 생각하다가) 치기요.

참모장: 아니 어텔...

김책: 연유창, 그게 놈들의 먹줄이요.

참모장: 연유창이요?

김책: 음, 소왕청방어전투때에도 정황은 지금과 비슷했소. 그때 장군님께서서는 부대를 이끌고 나가 적후방을 들이치시어 적들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전투를 이기시었소.

장군님 전법대로 적후에 들어가 연유창을 날리면 응? 적어도 갈가마귀떼들이 하루는 움쩍 못할게 아닌가.

참모장: 글쎄 가상적으로 생각해볼 때는 가능한것 같지만 그것이 실전에서 얼마만한 효력을 내겠는지는...

김책: 아니, 될수 있소. 참모장.

참모장: 예.

김책: 허위도하준비와 함께 강력한 습격조를 파견하시오.

참모장: 알았습니다. (나간다.)

△ 경찰 보자기에 쓴 물건을 들고나온다.

경찰: 전선사령관동지.

김책: 아 려락병.

경찰: 저 이건 어떨지... (보자기를 본다. 지구의가 나온다.)

김책: 아니 이거 지구의가 아닌가? 엉?

경찰: 그렇습니다.

김책: (흥분하여 살피다가) 바로 이거야, 이거란말이야.

경찰: 합격입니까?

김책: 합격이요, 합격!

경찰: 야, 그런걸 난 또... 여기가 조선입니다.

김책: 그렇군. 이렇게 한손으로 지구를 척 짚고서면

온 세계가 한눈에 굽어보이누만. 음? 좋아, 참 좋단 말이야.

경찰: 야.

김책: 이걸 잘 보관하오.

경찰: 알았습니다. (나간다.)

김책: 가만... (다시 한번 만져보고) 먼지 한점 묻지 않게 잘, 알겠소?

경찰: 알았습니다. (나간다.)

김책: 부관.

부관: 옛.

김책: 금강계선에 전개된 전체 부대들에 명령하오.

각 부대들에서 고사포중대들을 떼내여 나에게 집결시키라고.

부관: 알았습니다. (나간다.)

김책: 연유창습격이 성공해야겠는데...

제3장

△ 천막으로 된 야전지휘소 입구.

좌측에 천막과 그 입구가 보인다. 우측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 나무들이 있다. 멀리 산발들이 보인다.

△ 통신병 급히 나와 야전지휘소로 들어간다.

△ 중대장 급히 들어온다. 부관이 나와 그를 맞이한다.

부관: 인원과 포들엔 이상이 없소?

중대장: 없습니다.

부관: 이제 곧 병기참모에게 가오. 포탄을 넘겨줄거요.

중대장: 알았습니다. 저 그런데 금강에서 우리 고사포들을 떼내어 어디로 보내는겁니까? 여물목에 배비 됩니까?

부관: 그건 나도 모르오.

중대장: 돌아가겠습니다. (나간다.)

△ 김책 야전지휘소에서 나온다.

김책: 정명수대위를 불렀소?

부관: 불렀습니다.

김책: 고사포들은 집결됐겠지?

부관: 그렇습니다.

김책: 곧 출발할수 있게 준비를 다그치오.

부관: 알았습니다. (나간다.)

△ 참모장 나온다.

참모장: 전선사령관동지.

김책: 아, 참모장.

참모장: 도대체 고사포들은 어디로 돌리는겁니까?

포병들을 떼내서 어디로 보내는가 말입니다.

김책: 음...

참모장: 전 지금까지 전선사령관동지와 의도를 존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거야 너무하지 않습니

까?

김책: 나도 몹시 힘들게 결심했소. 연유창습격과 허위도하가 성공하면 고사포는 필요없을거요.

참모장: 그걸 확고히 믿습니까?

김책: 믿소.

참모장: 전쟁이라는거야 만약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실패하면 우리는 포탄 한발 쏘보지 못하고 적기의 타격을...

김책: 만약? 아니 장군님께서 항일의 피바다속에서 빛내주신 군사전법은 언제나 백전백승이요. 감히 어디다 대고 만약이요 만약이...

참모장: 하지만 고사포가 없어야... 전선사령관동지, 도대체 그 포들은 어디에 필요해서 그러는 겁니까 예?

김책: 그 포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기본적인 임무, 가장 큰 임무수행에 돌려질거요. 참모장, 들어가지요.

△ 그들 야전지휘소로 들어가려는데 습격조장 나온다.

조장: 참모장동지.

김책: 습격조가 아닌가 엉?

참모장: 습격전이 어떻게 됐소. 엉?

조장: 적들의 연유창을 날려버렸습니다.

참모장 } **그래?**
김 책 }

조장: 예, 적들은 지금 대혼란상태에 빠져있습니다.

김책: 좋아. 수고했소. 참모장, 그래도 고사포야 엉? 하하하, 이젠 고사포가 없어도 금강은 먹은 거야. 하하하. 수고했소, 수고했소.

조장: 돌아가겠습니다. (나간다.)

김책: 부관!

부관: (지휘소에서 나와) 예!

김책: 명수동무가 오면 포련대를 접수하고 출발준비를 갖추라는 임무를 주시오...

부관: 알았습니다.

김책: 참모장, 들어갑시다!

△ 김책, 참모장 야전지휘소로 들어간다.

△ 정명수 급히 들어온다.

명수: 부관동지.

부관: 명수동무가 왔구만. 명수동무, 동무는 이제 곧 새로 조직된 고사포련대를 인계받으시오.

명수: 예?

부관: 오늘부터 동무가 그련대의 련대장이요.

명수: 제가... 제가 말입니까?

부관: 그렇소.

명수: (흥분하여) 그럼 우리 련대가 여울목에 배치되니까?

부관: 아니, 오늘중으로 《7지점》으로 들어가야

하오.

명수: 《7지점》이요? 아니 그럼 후방으로? 그게 사실입니까?

부관: 그렇소. 구체적인 임무는 전선사령관동지가 직접 줄거요.

명수: 아니, 난 못가겠습니다.

부관: 대위동무.

명수: 난 련대장이 아니라 보통전사로라도 여기서 싸우겠단 말입니다. 여기서.

△ 혜경 나온다.

부관: 이건 명령이요!

명수: 글썽 못가겠습니다. 그래 모두들 금강을 넘고 옥옥하는 이때에 후방으로 들어가랴구요?

부관: (엄하게) 명수동무.

명수: 아니, 전선사령관동지 어데 계시오. (지휘소로 간다.)

혜경: 명수동무, (막는다.)

명수: 비키오.

혜경: 이러면 안돼요. 동문 왜 한가지만을 생각해요. 예?

명수: 동문 그래 내가 후방으로 들어가는게 가슴아프지도 않소?

혜경: 일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되지 않아요.

명수: 그때면 전쟁이 끝난단 말이요. 전쟁이... 비키오.

혜경 } **명수동무!**
부관 }

△ 김책 색연필을 든채로 나온다. 뒤따라 참모장 나온다.

김책: 뭐요?

명수: 전선사령관동지, 전 이럴줄 몰랐습니다. 후방으로 들어가랴구요? 그래 전선사령관동지는 저를 후방에나 세우려고 품들여 키웠습니까? 예? 남만에서 쓰러진 제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섭섭해할겁니다.

김책: 아니, 동무 아버지는 기뻐할거야.

명수: 제가 후방으로 들어가는데두요?

김책: 음.

명수: 예?

△ 중대장, 전사들 달려들어온다.

중대장: 전선사령관동지, 우리가 후방으로 들어갑니까?

전사3: 그게 사실입니까?

모두: 전선사령관동지!

김책: 동무들, 명수동무. 전선사령부 명령을 하달하겠소.

△ 모두 자세를 바로한다.

김책: 련대장 정명수.

명수: 옛!

김책: 동무와 동무련대의 임무는 새로 조직된 고사포련대를 평양계선에 전개하고 최고사령관동지와 어리신 《우리 장군》이 계시는곳을 적기들의 공습으로부터 지켜내는것ियो.

모두: 예?!

김책: 우리 혁명의 수뇌부 최고사령부에 단 한대의 적기도 얼씬 못하게. 알겠소?

명수: 우리가, 우리가 말입니까?!

김책: 그렇소. 최고사령부를 철석같이 지켜내는 이것이 동무와 동무련대의 임무요!

전사3: 전선사령관동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사령부를 지키러 간단말입니까?

김책: 그렇소.

전사들: 만세! (서로 부둥켜안고 환호를 올린다.)

△ 감동적인 음악이 흐른다.

명수: 전선사령관동지, 그 말을... 그 말을 왜 이제야 합니까. 예?

김책: 장군님의 신변과 관련되는 문제는 심중하고 또 심중하게 대하는것, 이것은 유격대시절부터 몸에 밴 나의 습관이고 신념ियो.

명수: 전선사령관동지.

김책: 부관!

부관: 옛!

김책: 준비한걸 가져오우.

부관: 알았습니다. (나간다.)

김책: 명수, 우리가 이 전쟁을 왜 하나?

명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김책: 그럼 조국이지. 그럼 이 조국을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시는분은 누구신가?

최고사령관동지이시지. 최고사령관동지가 없는 조국, 이건 그야말로 빈 땅덩어리일뿐이야. 때문에 우리의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혁명의 수뇌부 최고사령관동지와 우리 혁명의 미래인 《우리 장군》을 지켜내는 민족대성전인것이야.

명수: 전선사령관동지!

△ 부관, 통신참모 향나무로 만든 함을 들고나온다.

김책: (함을 받아들고) 이 함에 들어있는 지구의와 식료품들은 내가 평양에 있는 어리신 《우리 장군》에게 보내려고 준비한 선물ियो.

모두: 예-예?

통신참모: 전선사령관동지, 그럼 어제밤 이 식료품을 검식하신것도 그래서...

김책: 그렇소. 미래의 《우리 장군》에게 올릴 식료품인것만큼 검식을 해본거요. 위생상태를 담보할수 없거든. 물론 나혼자 해볼수도 있었지만 난 나이가 있단말ियो. 그래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동무들과 다같이 해본거요.

모두: 야- (감동에 젖는다.)

명수: 전선사령관동지, 이 준엄한 싸움터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김책: 난 최고사령관동지의 임무를 받고 전선길에 나선 그 순간부터 한시도 《우리 장군》생각을 잊은적이 없소. 아버님은 늘 작전대결에 계시지, 어머니인 김정숙동지는 애석하게도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 그러니 깊은 밤 잠자리에 들 때도 그래 새벽에 잠을 깨서도 그 래 《우리 장군》이 얼마나 가슴아프라 하고 생각했었소.

그런데 《우리 장군》은 최고사령부 작전대결에 나오시여 앞날의 조선을 이끌고나갈 장군의 담력을 키우고계신단 말ियो. 내 그래서 전세계를 쥐락펴락하실 대장군의 슬기와 담력을 키우고계시는 《우리 장군》에게 다소나마 기쁨이 될가 해서 이 지구의를...

모두: 전선사령관동지!

김책: 《우리 장군》은 언제와도 조선의 큰 장군감ियो. 우리 민족이 창자 모시게 될 또 한분의 장군이란 말ियो. 아 **김정일**, 《우리 장군》이 보고싶소. 정말 보고싶어.

△ 방창이 흐른다.

준엄한 전선길 헤치던 전사
평양하늘 우러러 마음 달리네
어리신 《우리 장군》 못내 그리워
저 멀리 포연 뚫고 마음 달리네

김책: 명수, 우리가 금강도하의 이 어려운 조건에서 왜 고사포련대를 평양으로 떼보내는가. 그것은 최고사령부와 우리 혁명의 미래 《우리 장군》을 보위하는것이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는 성스러운 길이기때문ियो. 동문 이 영예로운 임무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한문의 고사포도 손상이 없이 평양계선에 전개하시오.

명수: 알았습니다.

김책: 혜경동무.

혜경: 예.

김책: 동무도 명수동무와 같이 평양으로 들어가오.

혜경: 전 최고사령관동지로부터 전선사령관동지의 건강을 돌보라는 임무를 받은 담당군의입니다.

김책: 나는 일없소. 《우리 장군》이 건강해야 조선의 미래가 담보되오.

우리모두의 마음을 대신하여 《우리 장군》을 잘 받들어주오.

혜경: 알았습니다.

김책: 그리고 이 식료품을 우리 집사람에게 전하면서 이 선물을 《우리 장군》에게 올리기전에 다시한번 검식을 하라고 하오.

혜경: 검식이야 이미 전선사령관동지가...

김책: 《우리 장군》을 모시는 사업에선 천번중 한번의 실수도 없어야 해.

혜경: 알았습니다.

김책: 혜경이, 명수, 평양에 가면 《우리 장군》 소식을 자주 나에게 전해주요. 그래야 내가 싸움도 잘하고 잠도 잘 자게 돼.

명수 } 알았습니다. 전선을 부탁드립니다.
혜경 }

김책: 평양을 부탁하오.

명수: 런대 차렷! 전선사령관동지, 우리 혁명의 수뇌부 최고사령부를 호위할 고사포런대는 평양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김책: 동무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최고사령관동지께 바치는 충성은 《우리 장군》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야 하오.
그것은 《우리 장군》이 앞날의 조선을 떠메고나갈 미래의 태양이기때문이요.
이걸 명심하기 바라오.

모두: 알았습니다.

김책: 출발하십시오.

명수: 런대 출발-

△ 출발음악과 함께 고사무력 떠나는 소리 요란하

다.

△ 김책 명수, 혜경에게 선물함을 안겨준다.

△ 떠나는 그들을 바래우는 김책의 모습 조명된다.

종 장

△ 배경에 붉은 노을이 퍼지며 해살이 비친다.

설화: 《아직 30대의 청년장군을 모시고 싸우던 1950년대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의 미래로 받아들여모신 전선사령관 김책동지의 고결한 충정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둔것인가.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아들여모시는 길에 보여주신 숭고한 모범에 그 뿌리를 둔것이였다.

그렇다, 전화의 그 나날들에 보여주신 어리신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효성이 이렇듯 위대한 충신들을 낳았던것이다.》

멀리 더 멀리

석광희

오른쪽엔 일렁이는 푸르른 바다
왼쪽엔 눈이 녹아 거뒀한 땅
꽃섬에서 술섬까지 십리가 넘는
동쪽길 걸으며 생각하노라

세월이 빠르던가
간석지건설이 빠르던가
개간의 첫삽 깊숙이 박은
그날의 그 기슭은 저 멀리 있고
간석지벌에 새로 생긴 농장마을엔
행복의 창문 층층이 빛나고있으니

커지는 기쁨처럼
늘어나는 땅
그 땅에 번쩍이는 보습을 대는
봄같이 뜨락뜨락따라 돌아눕는 흙밭
물씬 풍겨오는 냄새에 취하노라
몽클한 가슴 부여안고서

토지를 분여받던 날
떠나면 그것을 농칠것만 같아서
발머리에 든든히 박은 표말을 지켜
한밤을 새운 아버지는 생각했으리
나뉘주신 그 땅이면 더 바랄것 없고
자자손손 길이길이 잘살수 있다고

허나 어이 알았으랴
안겨주신 땅만으로는 아직도 모자라시여
아버이수령님 그때에 벌써
더 많은 땅을 안겨줄 은정
넓으신 그 가슴에 품고계실줄...

한정없는 그 사랑 안으시고
헤치신 갈밭 걸으신 진펄
험한 길에 찍어가신 자옥마다
오늘에 가꾸는 땅
영글어 머리숙인 나락이 있고

다시 오시여
망원경 들고 바라보시던
수평선 한끝까지
천이랑 만이랑 물결을 밀어내며
만풍의 벼바다 파도칠
새 땅이 또 태어나리니

수령님의 품에서 시작된 이 땅
얼마나 커지고 풍요해질것이나
동쪽과 동쪽을 넘어
멀리 더 멀리 넓어만지는
땅의 래일은!

지휘관

조수희

1

건설장에 찾아온 예술인들의 공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군인들의 흥취를 돋구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어깨를 들썩거렸다. 그러나 균형잡힌 몸에 진한 보위색 작업복을 날씬하게 입은 처녀는 관중들과 얼마쯤 떨어진 버드나무에 기대어 시름잡긴 눈길로 멍하니 바라보기만했다. 해월에 감실감실한 예쁘장한 얼굴, 반달눈섬밀의 새물새물 웃는 까만 눈을 보면 명랑한 성격같은데 지금은 흰 머리수건을 어깨에 걸치고 한쪽팔을 꼬깃꼬깃 주무르기만했다. 그의 눈길은 관중석 앞줄에 앉아있는 몸이 좀 뚱뚱한 편인 군관에게 가있었다. 이곳 청류다리(2단계)건설장의 주타격방향을 맡은 지휘관인 중좌 정명훈이다. 그는 등실한 얼굴에 웃음을 띠우고 군인들이 재청을 요구할 때면 함께 힘있게 박수를 쳤다.

《유미동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오?》

돌아보니 자기가 일하는 2호교각의 건설장 정치도원 순정수다.

《그저...》

유미는 바시시 웃었다. 자기의 속마음을 그가 훑쳐본것 같아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래서 슬며시 돌아서 작업장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지 한달도 못되었는데 룡라도를 가로지르는 청류다리 부문교각기초는 벌써 끝나고 기둥을 세우는 철근조립이 한창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군인들을 불러주신 뜻깊은 건설장이어서 여기에 흠 한삽, 땀 한방울이라도 바치고싶어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술한 지원자들이 찾아오고있다. 그야말로 군민이 한동아리로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전투장이다. 유미도 휴가기간을 이곳에서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처녀는 아래입술을 꼭 깨물었다. 아직 휴가기일이 열흘가까이 남았는데 이렇게 계속 마음고생을 하겠는가. 아니면 이제라도 작업장을 옮길까?

정명훈이 자기의 아저씨라는 비밀을 공개하며 떠나버릴 구실을 마련한다 해도 2호교각이 제일 힘든 작업장이라는데서 생각은 잊어버렸다.

물려드는 물사태, 진탕과 싸우며 교각을 세워야 하는 곳이다. 더우기 청류벽을 감돌며 뻗어나간 유보도의 콩크리트기초를 까내면서 힘겨운 전투를 벌리고있는 때 이곳을 떠나 다른데로 간다면 속이 편

해질수 없다. 불뿔은 화구를 앞에 놓고 다른곳으로 좌지를 옮기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유미는 호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할까?

문제는 아저씨때문이다. 아래실정은 알아보지도 않고 명령 하나만으로 내려먹이는것을(유미는 그렇게 느끼었다) 곁에서 보자니 안타깝고 원망스러웠다.

지금도 2호교각을 책임진 구분대장 백승렬은 감탕속의 콩크리트가 잘 까지지 않아 방도를 찾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아저씨는 태평스럽게 앉아 예술공연만 구경하고있다. 어쩌면 마음이 무사태평일까?

유미로서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었다. 찬바람이 회오리를 일으키며 그의 옷자락을 물어뜯을듯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처녀는 머리를 숙인채 그냥 걸기만 했다.

《중좌동지를 못봤소?》

말소리에 머리를 드니 구분대장 백승렬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문지르면서 눈을 껌벅거리었다.

《공연관람합니다.》

《공연관람?...》

백승렬은 잠시 그대로 선채 머뭇거리었다. 어서 만나야겠는데 구경을 한다니 감정을 깨칠수 없어 딱해하는 기색이었다. 유미는 수염도 미처 깎지 못한 그의 얼굴을 존경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언제 자고 언제 휴식을 하는지 알수 없는 그였다. 온종일 군인들과 똑같이 일을 했고 휴식시간에는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하여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그래서 피곤이 몰려 입술이 까실까실 말라들었고 눈에는 피발이 졌다. 유미는 무엇인가 그의 수고를 덜어주고 싶어 주머니에서 진달래문양이 새겨진 손수건을 꺼내었다.

《대위동지, 땀을 씻으십시오.》

백승렬은 깨끗한 수건과 유미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슬며시 손으로 밀었다.

《고맙소, 그런데 유미동무 구경을 안하오?》

《대위동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나야 어디 설 체면이 뻘소? 제일 떨어진판에!》

《다른데하구 어디 조건이 대비나 됩니까?》

유미는 진심으로 위로해주었다. 다른 구분대들보다 썩 뒤늦게 건설장에 진출한데다 강물속에, 그것도 무지개다리의 한쪽끝을 직접 의지하는 기본교각을 맡았기때문에 몇급절의 고난을 안고있는 그들이

다. 하지만 그는 언제한번 의견을 부리지 않았다. 아름답다는 군인들을 보면 누구든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며 자기가 먼저 어깨를 들이대군했다. 그러면서도 대원들을 위해 집에서 기른 닭과 계사니, 닭알들을 가져다 먹였고 더운 국과 밥을 먹이자고 애를 쓰면서 목욕탕도 잘 꾸려놓았다. 참말이지 그는 구분대장이기전에 한가정의 마음씨 좋은 아버지였다.

《좀 휴식도 하십시오.》

유미는 뜨거운 눈길로 마주보며 이야기했다.

《시간이 어디 기다려줘야지?》

안타까운듯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었다. 몇 모금 빨다가 아무래도 공연이 끝날 때까지 정명훈을 기다릴 수 없는지 스적스적 걸음을 옮겼다. 유미는 왜서인지 그의 의견을 정명훈이 잘 받아들일것 같지 않은 예감이 들면서 불안해졌다. 그래서 자기도 얼마후에 따라갔다.

《아무래도 콘크리트를 폭파해치워야겠습니다.》

공연장소에서 정명훈을 불러내었는지 현장지휘부결에서 백승렬이 이야기했다.

《그럼 폭파구멍은 어떻게 뚫겠소?》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겠으니 지휘부에 폭약신청만 해주십시오.》

《얼마나?》

《한 400키로그램은 있어야겠습니다.》

《세멘트기초 35미터를 까는데 무슨 폭약이 400키로그램이요. 동무네 두꺼비발파(구멍을 뚫지 않고 그냥 터뜨리는 발파)하자는게 아니요?》

정명훈은 노여운 목소리로 따지듯이 물었다.

《그럼 다른 방도가 없습니까.》

《동문 폭약이 하늘에서 떨어지는줄 아요? 왜, 온 나라가 관심하는 건설장에서 일한다구 그썬 랑비는 일없다는거요?》

《예?》

백승렬은 어처구니가 없는지 말을 못하고 정명훈을 바라보았다. 폭약구멍을 뚫어가지고 폭파를 해야겠는데 그러자면 정대를 버리기 위한 야장간이 없다고 걱정하던 그들이었다. 야장간을 세우기 위해 힘이 든것보다 하루이틀 써야 할 야장간을 설치하노라 아까운 시간을 랑비하는것이 안타까와 토론을 하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정명훈은 자기만 나라의 사정을 생각하는것처럼 말을 하는것이다.

《그럼 한 50키로그램이래두 먼저 주십시오.》

한번 이야기하면 좀처럼 변경시키지 않는 정명훈의 성미를 아는지라 백승렬은 한걸음 물러서면서 대폭 수량을 감소하였다.

《폭약 50키로그램때문에 공사지휘부에 신청서를 내라는거요?》

《그럼 어쩍니까?》

《금릉2동굴을 뚫는 작업장이 곁에 있지 않소? 그썬한건 자체로 하오, 자체로!!》

하면서 손을 내저었다.

공연이 끝났는지 군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정명훈은 할말을 다했다는듯이 돌아서 배우들이 있는곳으로 걸어갔다. 백승렬은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수긋한채 말뚝처럼 서있었다. 측은했다. 그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당장 아저씨에게 달려가 한마디 하고싶었다. 하지만 한명의 평범한 지원자로서 그렇게 할수 없었다. 그대로 참자니 속만 부글거렸다. 자체로 하라던 아저씨의 목소리만 귀전에서 계속 울렸다. 아래사람들이야 권한이 제한되어있는데다 한개 대상씩 말아가지고 군인들과 함께 밤낮으로 일을 하는데 참모부에 있는 아저씨가 직접 나서서 풀어주면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결국 자기는 체면을 지키면서 우에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것인데 그것으로 하여 아래사람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뛰어다닌다는것을 왜 모를까? 그러고도 이제 걸린 문제가 풀리면 자체로 했다고 우에 보고하겠는가?

유미는 아저씨에 대한 불만감이 점점 더 커지는것을 도저히 묵새길수 없었다.

2

겨울의 찬바람은 태양이 사라지자 제 세상을 만난듯 기승을 부렸다. 잠간사이에 젖은 땅과 물웅덩이를 얼켜어놓았다. 기온이 떨어지니 작업장 곳곳에 비치는 전등불도 랭기를 뿜는것 같았다.

유미는 솜옷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자체창고주변 나무아래에서 현장사무실출입문을 바라보았다. 아저씨를 조용히 만나자는것이다. 그런데 머리를 숙이고야 들어가는 작은 출입문으로 사람들이 그칠새없이 들락날락하였다.

그대로 가고말까? 그러나 정작 돌아서자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저씨가 잘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자기였다. 막내처제라고 끄찍이 귀애하는 아저씨다. 그래서 로력영웅칭호를 받았을 때는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가 축하해주었다. 우리 아저씨는 영웅이다. 조국이 알고 인민이 내세워준 영웅이다. 이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고 아저씨앞에 떳떳이 나설수 있게 살자고 남모르는 고심도 많이 하였다. 이곳에 지원나와서 뜻밖에 아저씨가 무지개다리구간을 비롯하여 주타격방향을 지휘한다는것을 알고 처녀가 감탕속에서 어떻게 일하느냐며 공사지휘부에서 만류하는것도 뿌리치고 2호교각전투장에 달려왔다. 만사람의 존경을 받는 아저씨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의 땀도 아낌없이 바치고싶었다. 마지막작업이 끝나는 날에는 정명훈이 우리 아저씨

라고 소리높이 자랑한후 돌아가고싶었다. 유미는 이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해산후유증으로 애타게 먹는 언니에게 집을 맡기고 부대앞에 제기되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몸을 아끼지 않는 아저씨인것이다. 그 정열과 그 노력이 작업장에서라고 다르게 될것인가?! 그런데 며칠간의 생활은 아저씨에 대한 기대가 자꾸 허물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지금에 와서는 아래사람들이 일을 잘하다보니 그를 책임지고있는 아저씨가 쉽게 높은 칭호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까지 들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어쨌든 오늘밤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속 시원히 알아보아야 한다.

유미는 한곳에 서서 기다리기만 할수 없어 야간 공사장에 뛰어들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누구도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한참 땀을 흘리며 모래와 자갈을 운반하다가 시체를 보니 자정이 가까와온다.

유미는 슬며시 작업장을 떠났다. 예전했던대로 현장사무실 출입문은 조용해졌다. 가까이 다가가 동정을 살펴보니 종이장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방긋이 웃음지으며 손기척소리를 내려는데 다가오는 발자국소리가 손목을 움츠리게 했다. 얼른 집 뒤에 몸을 숨기었다. 뜻밖에 백승렬이다.

이밤중에 무엇때문에 또 오는가? 유미는 그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중좌동지. 대위 백승렬 명령대로 왔습니다.》

갈릴듯한 목소리로 하는 보고가 밖에까지 또렷이 들렸다.

《동무넌 어찌된거요?》

처음부터 따지는것 같은 정명훈의 질문이었다.

《잘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백승렬은 처음부터 죄책감에 잠겨 대답했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곱때자는거요? 왜 대원들이 대렬도 짓지 않고 제멋대로 병실로 가요? 병실을 채 못꾸렸기때문에 세멘트와 모래를 가지고가느라구 그런다는데 사실이요?》

《예.》

《아니! 난 그렇게 보지 않소! 동무때문이요! 그래 수염도 시간이 없어 깎지 못하오? 다리를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았으니 사색도 시간도 모두 거기에 집중하겠다는건데 자신이 군복을 입은 군인이란걸 잊고있거든. 동무부터 규률생활에서 빈틈이 있으니 대원들도 규률생활에서 에누리려 한단말이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군사규률을 강화할데 대하여 늘 가르치고계시는데 밤이라고 대렬도 짓지 않고 다니오?!》

《잘못했습니다.》

백승렬은 한가지 대답뿐이었다.

《동무는 한명의 로력공수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휘관이요. 그런데 온종일 군인들과 함께 일만 하거든. 물론 일도 해야지! 그러나 지휘관의 이신작칙은 로력공수를 메꾸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대원들의 정신적공간을 메꾸고 사상을 발동시키는것으로 돼야 하오. 하루이틀 할 일도 아닌데 군관들과 사관들을 움직이게 하여 전대오를 불러일으켜야지 부해서 힘내기만 하거든. 그러니 놓치는게 많단말이요!》

정명훈은 잠시 말을 끊었다. 백승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터운 비닐로 막은 창문가에 서있는 그의 그림자만이 거무스레하게 내비치였다.

《한대 피우오.》

백승렬이 측근한 생각이 들었던지 정명훈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좀전에 피웠습니다.》

《폭약은 구했소?》

《예.》

《압축기는?》

《아직 못구했습니다.》

《그럼 손으로 함마질을 하겠소?》

《...》

《경비대동무들에게 소형압축기가 있을수 있소.》

《알아보겠습니다.》

백승렬은 인차 지휘부를 떠났다. 몹시 바쁜것같다. 유미는 그의 어깨가 이상하게 처진것처럼 느껴졌다. 온종일 일을 하고 휴식시간에는 작업을 선행시키노라 뛰어다니는데 밤에 불리워까지 다니며 추궁을 받자니 오죽할가? 하면서도 언제한번 조건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물리는가? 이번에도 소형압축기 구하는 문제가 또 그에게 차례졌다. 유미는 단호하게 출입문을 두드렸다.

《아니, 네가 어떻게?》

혼자서 도면을 펼쳐놓고 바라보던 정명훈이 놀라운 눈길로 반겨맞으며 웃음을 지었다. 유미도 정작 마주서니 아저씨에 대한 그리웠던 감정이 젖어들며 꼬부장했던 생각이 봄날의 눈석이처럼 허물어져내렸다.

《어서 더운데 올라오너라.》

정명훈은 온돌로 된 사무실바닥을 손으로 가리켰다. 밖에서 들어와서인지 방안의 온도는 숨이 막힐 지경으로 화끈했다.

《저- 밖에 좀 나가자요.》

유미는 그대로 선채 정명훈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왜?》

《글쎄요.》

유미는 얼른 그의 손을 잡아끌었다.

《이런 참.》

할수 없는지 신발을 신은 정명훈은 숨옷단추를 채우며 따라나섰다.

《왜 그러니?》

릉라도 유보도길을 따라 경기장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정명훈은 작업장과 반대쪽이라는데 의혹을 가지었다.

《아저씨한테 조용히 할 말이 있어 그래요.》

《방안에서 하면 안되지?》

《밖에서 다 들려요. 이자 대위동지에게 아저씨가 하던 말도 다 들었는데요 뭐.》

《그럼 오래 기다렸니?》

《네... 몇시간!》

유미는 할곳 올려다보며 웃음지었다.

《하- 이거 심각한데?》

정명훈은 출입지 않았는가면서 유미의 흐트러진 목수건을 여미여주었다.

《이쯤하면 극비자료도 말할수 있지 않을까?》

정명훈은 밤이어서 더 웅장하게 보이는 5월1일 경기장과 청류벽 그리고 불밝은 작업장들을 둘러보면서 걸음을 멈추었다.

《전 아저씨 좀 비판하자고 왔어요.》

유미는 좀 어색한 감이 들었지만 애써 참으며 말머리를 떼었다.

《비판? 그래 뭐냐?》

정명훈은 흥미있는듯이 싱긋 웃음을 지었다.

《아저씨 왜 아래사람들에게 과업을 주고 받아내기만 합니까? 작업장에도 잘 나오지 않고 현장사무실에만 계시면서 무슨 문제가 제기되어 이야기하면 자체로 하라면서 내려만 먹이시니 저는 정말 생각이 많아집니다.》

《누가 의견을 부리던?》

《저같은 사민처녀에게 누가 말하겠어요? 그러나 저도 볼줄은 압니다.》

《이거 작업장에 고문이 한명 생겼는걸?》

정명훈은 대견하게 바라보다가 크게 웃었다.

《야- 좀 심중히 들으시라요.》

유미는 안타까와 정명훈의 옷자락을 잡고 응석을 부리듯 흔들었다.

《유미야, 넌 건설이란게 뭔지 아직 몰라. 그리고 지휘관의 위치가 무엇인지는 더욱 모른다. 건설장에서 사날 일해보고 뭘 안다구 어찌구저찌구 하니?》

《지휘관은 로력공수를 메꾸는게 아니라 정신을 메꾸고 사상을 고무한다고 하던 말이랑 다 들었어요.》

그러나 전사들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힘들어서 좀 쉬려다가도 땀흘리는 자기 지휘관의 얼굴을 보면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위동지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막 도와드리지 못하는게 안타깝거든요.》

《우리 대위동지?》

《그럼요. 제가 일하는곳의 지휘관이거든요. 다른 동무들보다 일을 더하면서도 걸린 문제가 생기면 또 뛰어다니지요. 그가 작업장에 없으면 무언가 허전해져요.》

그런데 아저씨 폭약도 자체로 구하라 압축기도 자체로 구하라 모든걸 내려만 먹이시니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떻게 좋다고 하겠어요? 아저씨가 전화한번 하면 풀릴 문제도 아래사람들은 몇시간씩 뛰어다니며 사정을 해야 해결된다는걸 왜 몰라요? 그런데 밤에 줄을 줌 서지 못한것까지 우정 불러다 추궁하시니 너무하지 않아요? 그렇게 불러대고 그렇게 임무만 주니 언제 쉬겠어요?》

《알겠습니다. 처제동무, 명심하지요.》

귀여운 어린이의 재롱을 받듯이 정명훈은 건드려지게 대답하다가 어깨를 들썩거리며 즐겁게 웃었다.

《에잇-ㅅ!》

유미는 자기 말을 룡으로 흘려넘기는 그가 알미워 와락 달려들었다. 주먹으로 넙적한 가슴을 룡당 룡당 때렸다.

《잔등도 좀 때려라.》

정명훈은 돌아서면서 잔등을 돌려댔다. 유미는 속이 상해서 때리기를 그만두고 콧 밀쳐버리며 쉼근거렸다. 정명훈은 어처구니 없는지 돌아서면서 유미의 등을 어루만졌다.

《이야기하겠다는게 그런거냐?》

《더 있지만 안하겠어요.》

《그저 그러루한것이겠지. 그런데 나에겐 시간이 없구나.》

정명훈은 손목시계를 보면서 사정하듯 이야기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입을 삐죽 내밀며 유미는 툭 쏘았다.

《무릎에 앉아 재롱부리던게 이젠 자기 말을 잘 접수하지 않는다고 성을 내누나! 하지만 일이란 네가 생각하는것처럼 단순한것이 아니야.》

그는 반질거리는 유미의 코를 손가락으로 콧 짚었다. 유미는 그의 손을 탁 쳤다.

《어서 가서 좀 쉬여라. 난 이제 갈데가 있다. 그리고 나도 내 할 일은 알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나에게 영웅칭호까지 수여해주시었는데 어떻게 한시인들 그걸 잊겠니? 이번에도 제일 어렵고 힘든 과업을 주시지 않았니? 전쟁에서는 예비대를 잘 쓰는 지휘관이 승리하고 평시에는 자기 사업에 많은 사람들을 인입하는 지휘관이 승리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2호교각에서 일하는 너는 그 하나만 보지만 내게는 그것 말고도 술한 일감이 있다.》

알겠니?!》

정명훈은 어서 가자면서 유미의 등을 떠밀었다. 그러나 유미는 딱 뻗치고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고집두 원...》

가볍게 웃으면서 정명훈은 돌아섰다. 몇발자국가다가 아무래도 마음이 걸리는지 인차 들어가라고 다시 이야기했다. 그러나 유미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기를 어리게 보면서 이야기할 상대가 되지 않는듯이 취급하는것 같아 뺄이 났다. 결국 어느 하나도 접수시킨것이 없었다. 자기의 의견만 옳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우리 인민이 얼마나 각성되고 사상정신적으로 자라났는가를 모르는것이 아닐가? 이제는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한분밖에 안계시기에 그이의 심려를 덜어드리자고 사업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될수록 내색하지 않고 이악하게 관찰만 해나가는것이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 되었다. 만일 그걸 모르고 아래사람들이 잘 움직인다고 자기 사업이 잘되는것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실책인가! 이 청류다리 2단계건설만 놓고 보아도 그이께서 것처럼 참기 어려운 상실의 아픔속에서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부지를 확정하셨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인민군군인들을 불러주셨기때문에 온 나라의 관심속에 힘차게 추진되는것이다. 그래서 이 작업장에서는 누구도 조건을 빙자하지 않는다. 그럴수록 지휘관들은 더 아글타글 풀어주기 위하여 애써야 할것이 아닌가!

유미는 안타까와 울고싶었다. 어떻게 해야 자기의 진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할것인가? 이제는 21살 사로청원인데 유치원시절처럼 귀엽게만 여기는 그의 견해를 무엇으로 바로세울것인가? 아무래도 말만해서는 안될것 같다. 오직 실천만이 모든것을 증명할수 있는것이다.

3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한낮이 되도록 그칠줄 몰랐다. 하얀 솜털같은 눈송이가 끝없는 장막을 드리운듯 땅우로 내리면서 끊임없이 반짝거렸다. 건설장의 모는 구조물과 기계, 립시로 지은집과 구호판들이 점차 가리워지면서 하나의 흰송이에 쌓이기 시작했다. 무겁게 출렁이는 대동강만이 끝없이 내리는 눈들을 자기의 품속에 용해시켰다. 군인들과 지원자들의 머리와 어깨에도 눈이 쌓이였다. 계속 내리는 눈이여서 누구도 털어버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일하는 과정에 몸에서 떨어지는것은 떨어지고 붙어있는곳에는 그대로 덧쌓이였다. 콩크리트 혼합물이 얼지 않게 하려고 불을 피우는 파르스름한 연기가 건설장의 곳곳에서 솟구쳐올랐다.

유미는 목에 긴수건을 둘둘 감고 풀어지지 않게 빈침으로 고정시켰다. 들것에 감탕을 담아가지고 미끄러운 경사지를 따라 올라와서는 강물쪽에 부지런히 내다버리였다. 연방 파제끼는 감탕과 뒤따라 덮어버리는 눈, 마치 자연의 위력과 인간의 의지가 서로 대결하는것 같았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몸이 척척하고 춥기때문에 더 웃고 떠들었다.

《동무들, 압축기요!》

자동차를 타고온 백승렬이 운전실문을 열면서 소리쳤다. 정대로 폭약구멍을 뚫던 동무들속에서 망치를 집어던지며 환성을 터뜨렸다. 끝내 얻어온것이다. 경비대군인들이 이동식압축기와 함께 운전공까지 함께 보내주었다. 순간에 압축기는 자동차에서 부러워졌다. 모두가 성수가 났다 뛰여다니며 압축기운전공의 요구에 따라 전기줄을 끌어왔고 부속들을 조립하였다. 모두들 흥이 나서 웃고 떠들었다. 유미는 뜨거운 눈길로 백승렬을 바라보았다. 목단추를 헤치고 군인들과 함께 전주대를 세운다. 드디어 기관총을 쏘는듯한 착암기소리가 고고성을 터뜨렸다. 작업장은 더 활기를 띠었다. 와-와 소리를 치면서 까마득한 깊이에서 감탕을 퍼내는 군인들, 귀가 멍멍한 착암기소리와 통탕거리는 압축기소리, 둔덕에 세워놓은 방송차에서 불어대는 노래와 부단히 소개되는 혁신의 소식들... 당창건 50돐전으로 다리를 완성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성의 보고를 드리자는 힘찬 호소는 모두의 심장속에 더 거센 불길을 지퍼주었다. 언제 시간이 흐르는지 건설자들은 그것을 몰랐다. 한삽이라도 더 퍼내고 빨리 기초를 끝내자는 생각뿐이었다. 내리는 눈파위는 생각지도 않았다. 이대로 냅다 채면 래일저녁 쫓부러는 정통을 박아넣기 시작할수 있다. 이 정통을 기초로 하여 그우에 다리가 세워진다.

청류다리 2단계에는 100미터가 넘는 청류벽쪽 강물우에 한개의 교각도 없이 무지개식으로 세워지는데 그 기초의 한쪽끝이 백승렬구분대가 맡은 2호 교각에 의지된다. 때문에 기초의 안전은 다리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이며 수직힘만 이겨내면 되는 다른 다리의 한개 교각기초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물속 땅바닥면에서 10미터되는 정통을 박아야 한다.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통을 세울수 있는 준비로서 감탕을 쳐내면서 일정한 면적의 가물막이를 하며 청류벽기슭에 건설했던 유보도의 기초를 까버리는것이다. 지금 기술보장구분대에서는 정통을 위한 철관휘틀제작과 굴착기준비가 동시에 추진되고있다. 유미는 이곳에서 일하는 과정에 다리에 대한 적지않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구분대장동지!》

회썬 연발속에서 웨치는 정치지도원 손정수의 웨침이 들렸다. 어제날 이곳 부대에서 병사생활을 하면서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김일성** 청년영예상》을 받았으며 오늘은 한개 구분대의 정치일군으로 자라났다. 그의 부모들은 일본에서 살다가 귀국의 배길을 따라 공화국의 품에 안겼다. 지금도 삼촌과 누이는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조국을 위해 일하고있다. 그는 자기를 인민군대의 정치일군으로 키워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한몸을 아끼지 않는 정열가였다.

백승렬이 착암기를 잡고 폭파구멍을 뚫다가 허리를 펴면서 정치지도원에게 왜 그러는가고 물었다.

《중좌동지가 왔습니다.》

손정수는 손짓을 했다. 저쪽등성이에 서있는 정명훈의 모습이 보였다.

어떻게 이 스산한 날씨에 작업장에 나왔는가? 유미는 멈칫 섰다.

정명훈은 말없이 작업장을 내려다보다가 가까이 다가와서 보고하는 백승렬에게 정통식으로 기초를 하지 말고 전면을 통채로 하는 립체식기초를 해야겠다고 이야기했다.

작업장은 순간에 긴장되었다. 공법이 달라진다는 것은 작업조직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더우기 립체식으로 기초면 전반에 충진을 하기 때문에 몰탈타입량이 몇배로 늘어난다. 정통을 치기 위한 철관휘틀제작도 중지시켜야 한다. 백승렬은 압축기까지 작업을 중지시켰다. 작업장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둔덕우에서 정명훈이 백승렬과 정치지도원에게 하는 말이 누구에게나 들리었다.

《정통식을 해서는 아무래도 안전성을 담보할수 없을것 같소.》

《설계상요구를 충족시키는데두 말입니까?》

백승렬이 걱정어린 눈길로 정명훈을 바라보았다.

《설계가는 이곳 흙층이 깊을것으로 타산을 잘못 하였더군. 설계사업소에 내가 갔댔소.》

이 청류벽의 바위가 대동강으로 직접 뻗어내렸기 때문에 확신이 가지 않는다고 하니 설계가들은 지형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소. 마침 옛날 이 유보도기초를 하던 아바이를 찾아내었는데 그도 설계를 다시 하는것이 좋다고 하면서 경험을 말해주었소. 설계가를 도와주는 립장에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보자는거요. 건설의 주인이야 우리가 아니요.》

《그럼 파보잡니까?》

《그렇소. 최대속도로!》

이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다. 대동강에 수직갱을 뚫는것과도 같은것이다. 얼마나 깊이 파야겠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어쩌면 흙층이 예상외로 깊어 헛고생을 할수도 있다. 더우기 깊이 파고들어가다가 침수되는 물때문에 흙층이 갑자기 무너지는

날에는 통채로 묻힐수 있다.

하지만 정통을 박아넣다가 흙층이 얇은것을 알게 되면 부득불 모든것을 걷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대로 하면 내려누르는 힘은 기본압반이 이겨내지만 무지개다리가 옆으로 미는 힘은 정통전체를 통채로 밀어내리는것이다. 때문에 지층이 낮으면 기본압반에 쇠기둥을 박고 통채로 충진해야 한다. 시추기를 자저다 설치하면 쉽게 확정할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기계를 자저다 설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아까웠다. 어려워도 힘내기를 하는 길밖에 없었다. 모두가 어쩔지 몰라하는데 정명훈이 먼저 옷을 벗기 시작했다.

《아니, 우리가 하겠습니까.》

지휘관의 결심을 눈치채고 정치지도원 손정수가 정명훈의 손을 잡았다.

《함께 하시오!》

말은 짧고 조용했지만 모두가 들었다.

《중좌동진 뒤에서 조직사업만 해주십시오.》

백승렬도 그의 앞을 막으며 부탁했다.

《뒤에서 무슨 일을 하겠소?》

《폭약과 압축기를 가져오면서 그 동무들한테서 다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높이 들며 웨쳤다.

《동무들, 기초의 안전성을 확정하기 위한 청년결사대를 조직하겠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분대장 안만석, 최광식 동무들을 비롯하여 사관들이 무쇠같은 주먹을 높이 쳐들었다. 상등병과 전사들도 그들을 따라 달려나왔다. 유미도 그 대오속에 뛰어들었다.

《가만, 선발은 우리가 하겠소.》

백승렬과 손정수는 잠시 토론을 하더니 이미 하던 일도 계속해야 하니 모두 결사대에만 들어갈수 없다면서 이름을 불러 한쪽에 따로 내다세웠다.

《결사대의 대장은 나요!》

마지막 이름에 뒤이어 손정수는 자기가 대오앞에 섰다.

《아니 정치지도원동무!》

백승렬이 깜짝 놀라며 그의 손을 잡아당겼다.

《대위동지에게야 2호교각 전반의 파업이 있지 않습니까?》

손정수는 싱긋 웃음짓더니 《자, 동무들, 앞으로!》하면서 달려내려갔다. 정명훈도 함께 내려가 바닥에 sap을 쿵 박았다.

《여기를 팝시다!》

《알았습니다!》

힘찬 웨침과 함께 시커먼 흙들이 뿌려던져지기 시작했다. 유미는 결사대에서 밀려났지만 가슴이 뭉클해서 인차 따라서지 못했다. 정명훈이 설계에

도 없는 일감을 제기했지만 한마디의 의견도 없이 따라나서는 군인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수고와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오직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명령을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자기 기일내에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는 하나의 결심만이 모두의 심장속에 뜨겁게 굵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뭉쳐진 대오의 힘을 어떤 난관이 막아선단말인가! 더우기 정명훈은 대오내에 주인공다운 자각을 키워주기 위하여 앞에서는 자체로 하라고 요구하면서 뒤에서는 그 집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해주고 있었다. 유미는 오늘에야 그를 알게 되었다. 그 마음을 알기에 백승렬이 엄하고 모진 요구도 두말없이 받아들였으며 군인들은 찬물속에 서슴 없이 뛰어드는 것이다.

유미는 뜨거운 눈길로 내리는 눈속에서 물참봉이 되어 흙을 파제끼는 정명훈과 손정수 그리고 돌격대원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착암기를 억제

게 틀어쥐고 폭파구멍을 뚫는 백승렬과 흙을 파제끼고 혼합기를 설치하는 군인들... 하나의 거대한 산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대오였다.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대의 박동에 자기를 맞추며 힘차게 달리는 미더운 사람들이었다. 유미는 정명

훈이 며칠 일해보고 뭘 안다고 그러냐던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다. 확실히 이들에게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높고 고상한, 그러면서도 승엄하고 뜨거운 세계가 굵어지고 있었다. 때문에 내려먹이는 것 같은 강한 요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유미는 받아안은 걱정이 너무도 커서 그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금방 벗어놓은 결사대원들의 솜옷에도 눈이 내렸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무엇보다 귀한 것이다. 자기 옷이 젖는다던가 자기 몸이 얼 수 있다는 것 등은 생각지도 않았다. 유미는 것처럼 귀중한 인간들의 체취가 스며있는 옷이 더없이 소중했다. 그 따뜻한 온기를 그대로 보존해놓고 싶어 하나씩 눈을 털어 곱게 개어서 압축기 옆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다. 그리고는 들것을 가져다 눈이 맞지 않게 썩워놓았다.

다음날.

군인들은 암반까지의 깊이가 4메터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증하고 정명훈을 더욱더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얼싸안았네

홍기품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 사이두고
푸른 갑옷 입은 청류벽
실실이 실버들 드리운 룡라도
긴긴 세월 마주보며 살아왔네

아릿다운 룡라도의 자태
청류벽은 말없이 굽어보며
룡라도는 청류벽의 청청한 기상
정답게 올려다보며

세월과 함께 깊어가는 정
쌓이고 쌓이건만
물이 깊어 못만났던가
강이 깊어 못만났던가

깊은 정 합쳐주려
바람은 오고가고
인연을 맺어주려

새들도 오갔건만

그 소원 이룰 수 없어
청류벽은 다문 입 열지 않고
룡라도는 무겁게 드리운 고개
지금토록 들지 않더니

로동당 좋은 세월이
상봉의 청류다리를 놓아
서로들 찾고 부르며
두팔 벌려 얼싸안았네

청류벽과 룡라도
쌍을 이룬 하나의 경치
락원의 평양 절경을 펼쳤으니
대동강은 기뻐서 춤을 추고
태양은 햇빛을 내려 축복하네

묘향산에서 날아온 새

예로부터 제비는 우리 인민의 정서생활과 떼여 놓을 수 없는 길조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수천 년을 두고 내려오는 구전문학유산을 뒤져보아도 제비에 대한 이야기는 적지 않은 페이지를 차지한다. 실제로 18세기에 나온 고전소설 《홍보전》에서는 제비가 착하고 부지런한 동생 홍보에게 행복의 박씨를 물어오며 또한 다른 옛 문헌을 펼쳐보면 단군 성왕이 세상을 떠날 때 제비들이 날아오고 선학이 그의 영혼을 하늘로 모셔갔다는 기록도 있다.

허나 우리 인민은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지난 애도기간에 지금까지 전설로만 들어오던 이야기를 자신들의 체험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었으니 수령님의 성스러운 발자취가 어려있는 전국도처에서 신기한 자연현상들이 수많이 나타났던것이다.

이런 특이한 현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차례 다녀가신 뜻깊은 고장인 덕천땅에서도 나타났다.

7월 10일, 시랑정사업소앞거리에 드리운 구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의 글밭우로 석양을 받아 장엄한 색조를 띤 잠자리들이 거대한 군집을 이루고 성운처럼 날아갔으며 그 다음날 오전에는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당위원회청사에 꾸러놓은 조의장앞 정원에 밤새인 외쪽독이가 나타나 두시간이상이나 슬피 울었다. 수령님의 서거한달이 되던 8월 8일에는 서창탄광이 자리잡은 알일령계곡우에 마을이 생겨 처음 보는 크고 황홀한 쌍무지개가 비겼는데 두 무지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하나로 합쳐지며 더욱 명룡한 빛을 뿌렸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덕천시 상덕고등중학교에서도 나타났다. 교사 3층에 있는 3학년 6반교실에 묘향산의 령봉우에서만 산다는 산제비가 날아들어 아이들과 함께 오열하였던것이다. 더우기 의미심장한것은 산제비가 교실안을 다섯바퀴나 회전한 사실이다.

7월 12일 오전이었다. 이 학교 소년단지도원 함원국은 3학년 6반 아이들과 함께 화환을 만들고있었다. 탄광문화회관에 꾸려놓은 조의장으로 가려는 것이었다. 산발을 뚫고 시랑강을 건지며 정성껏 구해온 향기로운 꽃송이들마다에는 아직도 마르지 않은 비방울들이 맺혀 눈물처럼 반짝거렸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 묘향산줄기의 이름없는 골짜기에 자리잡은 자기들의 학교를 꼭 찾아주실것만같아 손꼽으며 기다려온 그들이었다. 나날이 더해만지는 사랑과 배려를 받아안을 때마다 학습과 조직생활을 더 잘하여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더욱 빛내이리라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자기들을 것처럼 사랑하시며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던 대원수님께서 다시는 돌아오실수 없는 길을 영영 가셨다고 생각하니 뜨거운것이 자꾸만 솟구쳐올라 두볼을 적시는것이였다.

빨간 산나리를 끌라 화환의 땡기열에 꽃던 분단위원장 김혜란이 안타깝게 두손을 모으며 입을 열었다.

《선생님,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두고 떠나...》

혜란이는 끝내 말끝을 짓씹으며 고개를 숙인다. 원국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였다. 그것은 그자신이 무심한 세월을 향해 묻고싶은 말이였다.

아니라고, 하늘이 무너지면 무너지지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수 없다고 것처럼 완강히 부정하였건만 수령님의 령구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수척해지신 모습을 텔레비죤화면을 통하여 비우고는 너무도 절통하여 가슴을 두드리며 목놓아 울음을 터뜨렸던 그였다.

함원국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창문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버지수령님, 아이들이 울고있습니다. 생전에 그리도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두고 정녕 가시옵니까?)

허나 애타는 마음의 목소리는 광막한 공간속으로 속절없이 찾아들어버리고 폭양만이 더욱 세차게 쏟아져내릴뿐이였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결코 들을수 없는 대답이였다.

이때였다. 찌물쿠는 더위에 대기조차 땀흘리는듯한 중천에서 한줄금 시원한 바람이 터지더니 습기뻤던 공기를 썬 휘파람소리와 함께 작은 새 한마리가 교실안으로 살처럼 날아들었다.

《제비다!》

아이들속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렸다. 제비는 두쪽으로 갈라진 붓초리같은 꼬리를 부채살처럼 퍼서 속도를 늦추더니 수령님의 초상화가 모셔진 칠판 윗턱에 초췌 앉았다. 삼복철이라 온 학교가 문을 열어놓고있는 때여서 간혹 수업시간에도 새들이 날아들어 수업열의를 떨구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둘이 마주서도 소리가 난다는 한창때이건만 아이들은 누구하나 떠들지 않았다. 칠판윗턱에 앉아 고개를 가웃거리는 제비를 호기심어린 눈길로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순간 함원국은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보

통제비가 아니었던것이다. 생김새는 분명 제비와 같았지만 제비보다 약간 큰몸체와 색갈만은 숨길수 없었다. 등은 검은 밤빛이고 배에는 얼룩무늬가 있으며 흰빛은 다만 가슴노리와 목부위에 깃들었었다. 갈새라고 부르는 산제비가 분명했다. 고산지대의 맑은 공기로만 호흡하며 사는 새였다. 언젠가 혁명 전적지답사자로 백두산에 올랐을 때 그는 천지호반으로 내리쬐히는 산제비들의 역센 날음을 두고 경이적인 감정까지 품게 되었던것이다. 인가를 멀리 떠나 구름우에 치솟은 외부리에서만 사는 새였다. 산제비가 구름발을 가르며 살갈이 내려올 때면 마치도 하늘나라의 어명을 땅우의 날짐승들에게 전하는 파발같았었다. 그런데 백두산에서 보았던 《경이적》인 새를 묘향산맥인 알일령의 벼랑가에서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격동에 휩싸였던가.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지는 내 나라, 내 조국에 행복의 절경으로 솟은 묘향산의 공기가 나날이 맑아지니 고산지대에서만 살던 새들도 보금자리를 옮겼다는 환희로운 감정이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주었었다.

함원국은 위대한 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은 지금에 와서 교실에 날아든 산제비를 보니 마음이 더욱 슬퍼지는것이였다.

새는 날개를 저으며 칠판우에 허공 뒀다. 밖으로 날아가버릴줄 알았던 새가 아이들의 머리를 스칠듯 낮추며서 교실안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함원국은 저으기 의아해졌고 아이들의 눈길은 산제비를 따라 돌았다.

한바퀴... 또 한바퀴... 산제비는 다섯바퀴를 돌고 나서 맥이 진한듯 교탁모서리에 앉았다. 한바퀴씩 돌 때마다 큰힘을 소모해버린듯 가슴을 짚게 들먹이는 산제비는 무척 초체해보였다.

이윽고 산제비는 온몸을 떨며 피를 토하는듯한 목소리로 울기 시작하였다. 자기 체내에 남아있는 마지막 생명력을 오직 그 울음소리만으로 탕진해버리려는듯 가느다란 다리를 허청거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뭐라고 끊임없이 웨치고있었다. 그러한 오열이 작은 가슴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엄청난 비애를 표현하는것임을 함원국은 충분히 리해할수 있었다. 참으로 령험하기 그지없는 새였다.

(혹시 묘향산맥에 사는 날짐승들이 보낸 조객이 아닐가?)

이런 생각이 들자 어느덧 그의 눈굽에는 핑-이슬이 어리기 시작했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비애가 너무도 커서 산천도 호곡을 터뜨리거니 새들도 어이 슬퍼하지 않으랴.

아이들속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책상우에 아예 얼굴을 파묻고 엉엉 소리쳐 우는 아이도 있었다.

산제비는 온 교실안을 울음바다로 만들어놓고야 창밖으로 날아가버렸다. 등성을 지나 묘향산줄기의 푸른 련봉으로 솟구쳐오르는 산제비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아득한 중천에서 녹아버린듯 사라졌다.

상덕고등중학교 3학년 6반교실에 산제비가 날아든 소식은 그날로 온 학교와 마을에 퍼졌으며 시랑강의 흐름을 따라 알일령계곡을 벗어나 덕천 시내에 까지 퍼져갔다. 술한 사람들이 사연을 알자고 찾아왔다. 묘향산의 련봉우에서만 산다는 산제비가 인가로 내려온 사실자체가 신기한데 그 새가 슬픔에 우는 아이들의 머리우를 네바퀴나 여섯회전도 아닌 꼭 다섯바퀴를 돌았다니 어쩐지 잘 믿어지지 않았던것이다. 온 학급이 입을 모아 증언했다.

《우린 똑똑히 보았어요. 산제비가 다섯바퀴 도는 것을...》

분단열성자들인 김명성이며 심명철, 리정철이들도 이렇게 대답했다.

하여 사람들은 생각이 깊어졌다. 여기에는 반드시 해득해야 할 그 무엇이 있을것이다.

7월 12일이라고 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결을 떠나신지 닷새가 되는 날이였다. 하다면 산제비의 영특한 그 행동에는 눈물로 차오른 슬픔과 비애의 5일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것이 있었던것이다. 허나 어찌 그것만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하여 생각은 점차 한곳으로 모아졌다.

원래 덕천땅은 우리 민족의 유구성을 확증해주는 《승리산사람》, 《덕천사람》이며 단군시기의 유적, 유물들이 수많이 발굴된 고장이였다. 하다면 령조는 5천년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을 한품에 안아 온 세상에 빛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하신 혁명업적을 아이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주자고 다섯바퀴 돈것이 아니겠는가. 정녕 그런지도 모른다.

자료에 의하면 산제비는 우리 나라와 중국, 몽골, 감차뜨까반도에 분포된 세계적으로도 그 수종이 얼마 안되는 철새이다. 날 때 속도가 너무도 빠르기 때문에 좌-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휘파람소리는 조류학자들도 좀해서는 듣기 힘들다고 한다. 이처럼 희귀한 새가 인가에 내려와 슬피 운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못새들도 못잊어하는 천인이시였다.

손광영

혁명의 성지에서

최성진

만경대는 세상사람들이 다 아는곳이다. 조선의 심장은 평양이며 평양의 자락을 꺾을라치면 의례히 만경대를 먼저 봐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이시었다.

《만경대는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곳이며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혁명사적지입니다.》

인류의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만경대의 추녀 낮은 수수한 옛집은 언제나 가고싶은곳으로 인류의 마음속에 빛나고있다.

만경대로 간다! 이 말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봄을 의미하는 말이다. 해마다 4월이 오면 사람들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것 없이 만경대로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생각속에 잠기게 되는것이다.

그런데 올해의 4월은 류다른 4월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다음 처음으로 맞는 4월이기 때문이다. 이 류다른 4월에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마다 못견디게 사무쳐와서 만경대로 가는 길은 더더욱 사람들의 물결로 차고넘치였다.

나는 그 끝없는 물결을 이룬 하나의 작은 물방울이 되어 만경대를 찾았다.

1. 갈림길에서

세상에 길은 수없이 많다. 그 길들에는 사연도 많다. 그런데 갈림길이라고 하면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그해에 잊지 못할 자욱을 남기신 만경대갈림길을 생각한다. 이 세상의 길들에 아무리 사연깊은 이야기가 깃들어있다고 해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갈림길에 남기신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뜨거운 이야기는 없을것이다.

4월 15일을 앞두고 이 세상 꽃들이 망울을 터치기 시작하는 햇빛 찬란한 봄날에 나는 송신-만경대행 궤도전차에 올랐다. 궤도전차는 잠간사이에 종착점에 와닿았다. 만경대갈림길은 여기 궤도전차정류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곳에 있었다.

사적지주변은 벌써 참관자들로 붐비었다. 평양사람들만이 아니었다. 나는 강선에서 왔다는 로동자동무들을 거기서 만날수 있었다. 여러문명의 젊은 남녀들로 이루어진 그들일행은 일이 있어 평양에 들어와다가 돌아가는 길에 갈림길앞에서 결의모임을 다쳤다고 한다. 강선땅과 인연이 깊은 갈림길이고보면 이곳을 못잊어 찾아온 그들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나는 갈림길에서 조금 떨어진 산기슭에 연록색으로 물들어가는 숲을 배경으로 서있는 현시비를 찾았다.

를 찾았다.

...

-아! 조선이 독립되지 않으면
다시 이 땅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 다지시며 떠나시던 길
해방의 새봄을 안으시고 개선하신
길이건만
고향보다 먼저
혁명을 생각하시는 그 높은 뜻이어
인민을 생각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여

...

현시비는 못잊을 해방연의 그날에 있었던 뜻깊은 사연을 전하고있었다. 이고장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날의 갈림길은 그리 크지 않은 작은 길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대동강기슭에 평양-남포간 도로가 뻗어가 풍치도 아름다운 그 길을 따라 강선으로 곧장 갈수 있게 되었다.

나의 눈앞에는 여기 갈림길우에 어렸던 그날의 광경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온 삼천리강토가 **김일성** 장군님을 맞이한 기쁨에 목메여 해방만세를 부르던 그날, 우리 로동계급을 먼저 만나보시려 강선땅을 찾아가시던 수령님께서 만경대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여기 갈림길에서 차를 멈추시었다.

항일의 나날 어느 하루도 잊으신적이 없었던 만경대, 그리운 혈육들과 다정한 이웃들이 기다리는 고향땅을 눈앞에 두시고 깊은 감회속에 잠겨계시던 **김일성** 장군님께서 어서 고향집에 들려보자는 부관의 청에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저기가 바로 만경대요. ...좋은곳이요...

20년만에 보는 고향이군. ...들어가면 늙으신 조부모님이 계실것이요. 내 인사를 전해주오. 그리고 나라가 해방되었으니 며칠 있지 않아서 나도 돌아올것이라고 알려드리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런듯 뜨거운 말씀을 남기시고 그길로 강선을 향해 가시었다.

력사는 위인들이 남긴 명언들과 일화들을 수많은 기억하고있다. 그중에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친구의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값비싼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이야기도 있다. 고향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수백만금을 희사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그토록 숭고한 자욱을 남긴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더는 알지 못하고있다. 애국애민의 사상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신 어버이수령님께서만이 평범한 보통 갈림길우에도

력사에 빛나는 불멸의 이야기를 남기신것이다.

그리하여 인민은 여기에 화강석기념비를 세워 위인의 숭고한 품모를 후세에 전하는것이다.

이곳에 갈림길동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 갈림길동에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무척있게 들어앉고 갈림길고등중학교며 갈림길상점이며 하는 갈림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간판들을 볼수 있다. 갈림길 현시비가 서있는 그 뒤산을 옛날에는 로산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그저 갈림길산이라고 부른다. 따로 고쳐지은 이름이 아니였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자연히 그렇게 불리워지기 시작한것이다. 인민을 위하여 걸어가신 위인의 자취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현시비앞에서 뜨거운 생각에 잠겨있는데 그사이에도 갈림길을 찾아오는 수많은 참관자들이 교양마당에 들어서고있었다.

2. 고향집에서

여기 만경대고향집은 해마다 찾아오군하지만 때면 마음이 숨엄해지군한다. 해방전 이 나라의 어디에서나 볼수 있었던 수수한 초가집, 혁명일가의 가난했던 살림을 말해주는 찌그러진 독이며 근면한 로동의 손때에 다스려진 농쟁기들, 베틀이며 물레, 토리개며 부엌세간들... 사적물들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고향집의 사립문은 예나 다름없이 활짝 열려져있었다. 고향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참관자들로 꽉 차있었다. 그들속에는 평양사람들과 함께 지방의 각 곳에서 온 견학생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피부색같이 각이한 외국손님들도 보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안계시는 이해의 4월에 만경대고향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여서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하나같이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어려있었다.

바로 이 사립문을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얼마나 멀고 골절많은 길을 걸어오셨던가. 그길우에 우리 수령님의 가슴을 아프게 해드린 회생은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겹쌓이는 고난과 슬픔과 모진 피로움도 헤쳐넘으셔야 했던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여기 만경대고향집에는 일가분들이 사용하시던 살림도구들과 함께 명석이 하나 보관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광복하시고 20년만에 고향집을 찾아오시여 조부모님들과 함께 주무실 때 사용하신 명석이였다.

준엄한 혈전의 수만리길을 헤치시며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고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황금의 지붕아래 모신다고 해도 인민의 마음은 죽하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박한 잠자리나마 따로 마련해드리고싶어하는 혈육들과 고향사람들의 성의마저 마다하시고 고향집 방안의 수수한 명석우에서 사랑하는 조부모님들과 함께 하루밤을 보내신

것이였다. 그러니 이 하나의 명석을 통해서도 우리 수령님의 인민적품모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는것이였다.

인민속에서 나오셨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에 그리도 많은 일을 하신분, 한생의 좌우명도 인민에 대한 사랑에 근원을 두시였던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오늘도 이 나라 농촌의 그 어디에 가나 볼수 있었던 이 추녀 낮은 농가에서 사랑하는 친지들과 함께 환히 웃으시며 인민을 맞아주시나. 항일대전을 금시 치르신 젊음에 넘친 그 모습으로.

이제 세월이 흘러 세기와 세기가 바뀔수록 저 지붕우에 버짚이영은 년륜처럼 늘어가리라. 그러나 우리 수령님은 변함없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고 인민을 맞아주시리라.

뜨거운 마음을 안고 만경대의 사립문을 나서는 나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세상에 금강석을 다듬어 기둥을 세운 황금의 궁전이 있다면 유적으로는 존재할수 있으리라. 실지로 력사에는 제노라고 하는 《위인》들이 영광과 영원을 꿈꾸며 억만의 재부를 들어 남겨놓은 유적이나 유물들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궁전이 있다고 한들 여기 만경대의 소박한 초가집에야 어떻게 비길수 있으랴.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주체위업의 명맥을 이어놓은 만경대의 추녀 낮은 초가집은 영원히 인민의 마음속에 하늘처럼 솟아있을것이다.

3. 개선나루터

만경대고향집에서 앞으로 조금 나가면 대동강과 합수되는 순화강이 있고 거기에는 개선나루터가 있다. 나는 해설강사동무를 따라 거기 나루터로 향했다. 강사동무의 설명에 의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20년만에 고향 만경대를 찾아오실 때 바로 여기 순화강나루터를 통해 오시였다고 한다. 개선나루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신지 서른해가 되는 해인 1975년 10월 14일에 건립된 조국개선기념비가 있고 수령님께서 순화강을 건느실 때 리용하신 나루배가 지금도 보관되어있다.

순화강의 푸른 물은 만경대의 위인을 맞이했던 그날의 사연을 전하며 유유히 흘러가고있었다. 기슭에는 일요일을 리용하여 나온 낚시군들이 늘어앉아있어 화려한 풍치를 두군였다.

나는 나루터 둔덕에 서서 만경대고향집을 바라보며 만고의 령장 김일성장군님을 맞이했던 그날의 광경을 그려보았다.

장군님께서 평양으로 개선하셨다는 소식을 듣던 그날부터 일일천추로 그이를 기다려온 만경대사람들! 장군님께서 순화강을 건너 만경대로 오실때 그들의 기쁨이 어땤했으랴. 사랑하는 친지들과 이웃들의 뜨거운 마중을 받으시며 고향집으로 걸음을 옮기시는 장군님의 감회는 또 얼마나 컸으랴. 간고한 항일전의 나날 그 어느 한시도 잊은적 없으시여

밀림의 타오르는 우등불결에서 사랑하는 대원들에게 사향가도 불려주시고 만경대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던 장군님이시였다 드디어 일체를 몰아내시고 일가분들과 정다운 이웃들을 만나신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그들과 더불어 지나보내신 어린 시절을 추억하셨으리라.

여기 만경대에는 대를 이어 반일애국투쟁에 한생을 바쳐오신 혁명일가분들의 자취가 어려있다. 해방된 고향 만경대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오솔길 하나에도 장군님의 추억이 있다.

지금도 여기 만경대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교편을 잡으시고 후대들을 《지원》의 애국사상으로 교육하시던 순화학교가 그때의 그 모습대로 보존되어 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독립된 조선의 미래를 그려보시며 동생분들과 함께 심으신 백양나무며 강반석어머님께서 어리신 자제분과 함께 자주 오르시던 그네터의 나무들, 우리 수령님께서 어리신 시절에 무지개잡이를 하시던 들메나무 한그루도 그대로 서 있다. 달라진것이 있다면 이 나무들이 흐르는 세월과 함께 가지들을 무성하게 치고 하늘을 찌를듯한 거목으로 자라오른것이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들도 아름답리 거목으로 자라 설레이고있다. 썰매바위며 군함바위, 학습터며 샘물터...위인의 자취가 어려있는 그곳으로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하지만 고향집을 찾으신 수령님의 심중에 넘쳐난 것이 어찌 어린 시절의 추억만이였으랴. 할머니께서 젊으신 장군님을 부둥켜안으시고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 같이오면 못쓴다더냐!》 하시며 목메여 흐느끼실 때 장군님께서는 이국의 타향에 물히신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철주동생이며 철창숙의 이슬로 사라지신 삼촌이며를 생각하시였으리라. 항일전에 몸바치신 혈육들 모두들 조부모님들앞에 다시 내세우실수 있다면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쁘시랴. 하지만 그분들의 명혼은 불러도 대답이 없는것이다.

참으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조국의 막강한 오늘과 사회주의혁명의 초석에는 혁명일가가 바친 얼마나 큰 희생이 깃들어있는것인가!

4. 만경봉에 올라

나는 만경봉으로 올라갔다. 이 세상의 일만경치가 다 모여와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루었다는 만경대며 그 아근이 한눈에 안겨왔다. 절벽아래로 유유히 흘러가는 어머니강-대동강, 강한복판에 두둥실 떠있는듯한 두루섬이며 쑥섬, 저기 은백색초고층건물들이 키돋움하듯 솟아오른 수도의 모습이며 푸르러가는 강남벌과 창조의 열기가 타번지는 강선땅이며... 우리 수령님께서 한생에 얼마나 거창한 변혁을 이 땅에 안아오셨는가! 참으로 얼마나 많은것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시였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속을 헤치시며 찾아주시였고 인민의 락원으로 인류 희망의 상상봉에 올려 세워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오늘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더욱 빛내여주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나날이 변모되어가는 조국의 모습에서 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시대의 대기념비로 솟아오른 저기 창광거리며 광복거리, 통일거리의 살림집들이 시야에 안겨온다.

여기 만경대에도 많은것이 달라졌다. 둘러보면 제일먼저 보이는것이 유희장이다. 만경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수십만평방메터의 부지면적을 가진 대유희장이 일떠서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각종 유희시설들과 함께 하루에도 수천명을 수용할수 있는 물놀이장이 오래전에 완공되어 운영되고있다.

송산유희장과 갈매지벌유희장사이에는 천여메터 길이의 유람삭도가 놓여져 참관자들은 만경대일대는 물론 강선이며 강남벌일대를 부감하며 송산우를 날아넘어갈수 있다.

만경대의 이 전변을 놓고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은혜로운 사랑과 령도의 현명성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유희장건설을 발기하신후 많은 자금까지 내여주시면서 건설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령도의 손길을 뻗쳐주시였다. 여기 만경대유희장만이 아니였다. 대성산유희장과 개산유희장을 비롯하여 수도의 곳곳에 일떠선 유희장들, 문화오락시설들도 그렇게 마련된것이었다.

만경봉에 올라 그 모든 전변상을 한눈에 바라보느라니 내 나라, 내 조국의 공민된 궁지와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참으로 력사의 땅 만경대에 시원을 둔 주체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지며 이 땅에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다.

나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돌 하나에도 혁명일가의 숭고한 애국의 녀이 어려있는 만경봉을 뜨거운 생각에 잠겨 내리였다.

5. 광복거리를 걸으며

만경대고향집에서 시작하여 만경봉기슭으로 난 길이 지금은 드넓은 포장도로가 되어 참관자들로 붐비지만 해방전에는 실오리같은 오솔길이였다고 한다. 바로 이 길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리신 나이에 고향집사립문을 나서시여 광복의 천리길을 걸어가신 길이다. 그러니 이 길은 우리 조국의 새 력사를 열어주고 우리 민족의 영광의 시원을 열어놓은 력사의 길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나는 혁명일가분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길을 따라 걸어갔다. 순화학교옆을 지나 나지막한 고개하나라를 넘어 조금 더 가니 광복거리가 나졌다.

당실하게 들어앉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백화원을 광옆에 두고 눈부리 아득히 뻗어간 광복거리의 중심도로가 시작되었다. 시원스레 넓은 길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글발들을 새긴 궤도전차들이 경쾌한 동음을 울리며 줄지어 오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평양시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더욱 원만하게 해주시려고 궤도전차화의 구상을 펼치시고 보내주신 궤도전차들이었다. 바로 궤도전차마다에 새겨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는 **《이민위천》**의 사상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였던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온갖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그이의 사상이 깃들어있다.

동쪽 하늘가에 동실 떠오른 태양이 드넓은 이 거리에 눈부신 빛발을 아낌없이 뿌려주는데 살같이 달리는 궤도전차의 차창들마다에는 질주의 쾌감에 잠긴 손님들의 행복한 미소가 비껴있다.

나는 지금 광복거리를 걸어간다.

한눈에 담아보기에는 아름답게 열려진 거리, 좌우에는 현대적인 초고층 살림집들과 려관들, 극장과 백화점, 상점들과 식당들을 비롯한 각이한 양상의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광복거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추억의 거리이다. 80년대속도가 나래치던 건설의 나날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여기 광복거리 건설장에 마음을 두고 살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자욱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에 현대적인 광복거리가 일떠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그날부터 온 나라 인민의 지원의 손길이 뻗어갔다. 하지만 자신들의 로동의 땀과 창조적 지혜를 바친 그때문에만 추억의 거리라고 하는것은 아니다. 여기 광복거리에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이

어려있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이 력사의 고장에 가장 현대적인 새 거리를 일떠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빛나게 이끌어주시었다.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건축물들이 들어앉을 위치도 확정해주시고 설계가들을 만나시여서는 건축물들의 형성도안도 하나하나 보아주시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형성도안만도 여러차례나 지도해주시고 설계가들의 시야를 넓혀주시기 위해 귀중한 가르치심들을 주시였다고 한다. 그러시고는 건설의 강력한 대부대를 편성해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현지에 자주 나오시여 건설자들을 보다 큰 위훈에로 불러주시었다.

하여 광복거리 건설의 나날에 새로운 80년대속도가 힘있게 나래쳤으며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위력은 만천하를 떨치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세련된 령도를 받으며 광복거리를 일떠세운 귀중한 경험이 있고 보람찬 건설의 나날에 자라난 슬기와 재능이, 충성의 열정과 통이 큰 심장이 있어 우리 인민은 웅근 하나의 도시와 맛먹는 거창한 규모의 통일거리도 불과 몇해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는 기적을 날을 수 있었다.

80년대에 우리 조국의 건설력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어놓은 광복거리! 만경대고향집에 시원을 둔 여기 광복거리에 이어 이 땅에 또 얼마나 많은 행복의 거리와 거리들이 뻗어갈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여 주체의 혁명위업은 빛나게 계승되고 위대한 향도의 손길따라 우리 인민은 공산주의미래에로 힘차게 달려나갈것이다.

해빛 찬란한 봄날의 광복거리를 나는 생각에 잠겨 오래도록 걸었다.

백날과 하루

림공식

평화로운 날엔
때가 좋아
천리를 따라가고
만리를 따라가라

시련없는 순란한 날이면
그날이 좋아
따르는 마음 더해지고
반드는 마음 깊어지라

아니다
좋은 때 백날을 따라도
준엄한 날에 하루를 배반한다면
그 어이 참된 삶이라

더없이 귀중한
그 하루속에
너나없이 우리의 소원인
영생의 천만리가 뻗어있다

그렇더라
즐거운 백날보다 엄혹한 하루의
그날에
충신과 간신의 진모습이
엄숙히 검증되리니

불구름 몰아치는
혁명의 그 하루에 삶을 엮고
김정일 장군님 위하여
영원히 우리 살리라

광천역을 떠나며

서진명

심장의 맥박도
더 세차게 뛰는듯
걸음새며 눈빛마저
전갈지 앓구나

돌아갈 때에도
가쁜한 손가방 하나
찾아올 때와 차림새는 같아도
너무나도 자신이 달라진것만 같아
내 스스로도 놀랍게 생각되어라

찾는곳
돌아보는곳마다
부러운것만큼 가책도 크던
그 원료기지들과 발전소에서
깨끗이 결별했노라

눈빛이 절로 밝아졌노라
잡관목 우거졌던 등관
한산하던 그 불모지에서도
인민의 기쁨이 주렁질 과원
풍요한 강냉이숲도 그려보며
개간의 첫삽을 박던
그네들의 티없는 그 마음으로

그네들의 자랑으로만 될수 없어라
정대가 휘어들어도

휘어들줄 모른 완강한 그 의지
집을 멀리한 산중의 외진 천막속에서도
손뽕금을 타고 춤판을 벌리던 그 랑만도
이제는 나의것

산과 산을 곧바로 꿰질러
한치 또 한치
천메타가 넘는 물길굴을 뚫어
세동천의 세찬 흐름소리를
끝끝내 전기의 흐름소리로 바꾸어놓은
그네들의 그 힘, 그 열정을 안고 가노라

기대마다 쏟아져내려
상점매대마다 넘치는 갖가지 식료품들
그것을 받아들 사람들의 밝은 얼굴 그려보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이기 위해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불태우고 불태워온
그네들의 심장의 뜨거움을 안고 가노라

설레는 마음을 열차에 싣고
떠나가노라
꿈도 많고 결의도 새로운 길
천리앞이 보이는 밝은 이 눈빛
천백배의 힘이 떠실린 이 손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기쁨을 드릴
멀지 않은 우리 공장의 앞날을 마중해...

마음의 열도여

김송남

단쇠를 두드리는데
더운 열기가 여기엔 없다
지축을 울리는
프레스의 동음도 여기엔 없다

다만 조용히
간장 된장이 피여오르는 소리
술이 끓고
딸기즙이 익어가는
발효의 미세한 숨결...

허나 내게는 들려오누나
하얀 위생복
저 산뜻한 옷깃들속에서
하나같이 높뛰는
가장 뜨거운 심장의 박동소리

나라살림 알뜰한 주부가 되자고
아버이 수령님
생전에 그리도 심려하셨고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

오늘 더더욱 마음쓰시는
인민생활을 꽃피우자고

어찌 그모두 나라에 손 내밀랴
원료 자재도 제 힘으로
전기와 설비도 제 힘으로
간고분투속에 기쁨을 찾는
효자 효녀들의 일터

저기 덧밥의 온도를 재는
귀밑머리 희숙한 녀인일수도 있으리
배덕산 등판을 뒤엎어 씨뿌릴 때
오금에 펄펄 불이 일었다는
재간의 《영웅》

저기 발효물의 시료를 뜨는
얼굴색 맑은 처녀일수도 있으리
세동천 세골물 전기로 일쿠던 날
앞장에서 착암기 잡았던
돌격조의 혁신자가...

그 전기가 오늘도 번개를 친다
끓이자 끓이자
이것이 사회주의를 지키는 싸움
그 마음이 오늘도 불길이로다
익히자 익히자
이것이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케 하는
전투-

나라의 만팔되고
말머느리된 그 마음
당이 걱정하는 그 걱정을 안고
당이 기뻐하는 그 기쁨에 살자고
앞서가며 타끓는 마음의 열도여!

아, 일터는 조용해도
참으로 언제나 높이 고동치는
효자 효녀들의 뜨거운 그 심장들이 있어
광천의 이 구내엔 철철 넘치누나
인민의 새 기쁨이,
나라의 큰 행복이!...

배덕골처녀

량덕모

굽이굽이 열두굽이 지나는
공장에서 먼 골짜기
배덕골 여기에 머물러있어요
꿈 많던 나의 처녀시절은

나무뿌리 들추고 일쿠어낸
저 새땅의 이랑이랑에
이끼검은 바위들을 안아쌓은
저 과일나무 계단들에 어려있어요

단발머리 치렁치렁 어깨를 덮도록
마천령산중의 피약별에
땀인들 얼마나 뿌렸던가요
산짐승을 몰아가는 우등불가에서
숙인들 얼마나 태웠던가요

우리가 씨뿌리고 여물린
알찬 이삭으로 열매로
가지가지 식료품을 쏟아내는
공장의 기계소리 높여가니
바람처럼 날아퍼진 배덕골소문

그 소문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마을에서도 배덕골처녀
거리에서도 배덕골처녀
누구나 이름보다 정답게 나를 불렀어요

나라에 손을 내밀지 않고
제 힘으로 공장을 돌려온 시절
조국의 사랑속에 받아안은 부름
소중하고 값높은 표창의 이름
아, 배덕골처녀!

우리가 한일 크지 않은 일을
그리도 장하게 여기시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
온 나라 공장을 불러
우리 광천식료공장을 따라배우게 하시니
두 아이 어머니 된 이제도
달리는 불리우고싶지 않아요

내 검은 머리 희여지도록
배덕골처녀로 젊어사는 기쁨속에
저기 공장의 숨결은
나날이 젊어질거예요!
내 나라, 내 조국도
길이길이 청춘으로 꽃필거예요!

딸기꽃 외 1편

최영희

발걸음 떼자니
눈이 시게 안겨오네
울안 가득 피여 웃는
하얀 딸기꽃

송이송이 류다른
정을 안고서
포기포기 피었나
군인가족 우리의 첫봄

해마다 꽃피는
이맘철되면

뜨락을 덮었다는
고향의 딸기덤불

그리워 그리워
꿈에 뵈다는
중대의 막내가 꼬마전사의
그 말 못잊어

잡관목 우거진 숲을 헤치고
부식토도 한별 두렵게 깔고
남편과 함께 떠돌던
딸기숲 딸기숲

아, 새집들이 즐거이 하던 날
우리의 첫정을 옮기기 먼저
관병일치의 뜨거운 정
피어서 웃는 울안의 딸기숲

뜨락에 피었네
조국수호와 함께 꽃핀
영원한 우리의 꿈이
영원히 피어갈 우리의 봄이!

시내가에서

푸른 빛 어우러진
산기슭에
고요히 흐르는
정든 시내가

높은 산 푸른 숲
다 비껴 안아서
물결도 푸르러
흘러가는가

소금밭 허연 푸른 군복자락
시내가 물결에 행구니
더더욱 푸르러 푸르러
속삭이듯 찰랑대는 산촌의
시내가

장단맞춰 울리는
물방치소리에
부서지며 부서지며 흩어졌다도
다시 모여 비끼는 푸른 산,
푸른물

치솟은 벼랑가에
기발처럼 나뭇기며
위훈으로 부르던 군복자락
푸르른 그 빛갈 숲에 물에
물들었나

폭양에 바래이고

폭우에 젖으며
행군길 앞장에 달리던 모습
수호자의 그 마음 산에 어려
물에 어려

아 그래서 정녕 그래서
땀배인 옷자락 행귀넬수록
흘러가버리지 아니하는
푸른 산, 푸른 물

조국에 바치는 수호자의 위훈
그리도 푸르러 변함없다고
씻을수록 진하게 새겨주는
시내가의 푸른 산, 푸른 물!